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즐거움이 항상 따르리.
-법구비유경-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5월 31일 수요일(주간) 제 272 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산사 여름 단기출가 '테마 다양'

태교·효·위빠사나·염불수련 등
연령-성-직업별 프로그램 세분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비롯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여름수련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 여름에는 태교, 효, 위빠사나, 염불수련 등 특화된 주제로 진행하는 수련회가 늘어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표 참조〉

여름 휴가를 단기출가수련회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모집인원의 2~3배 넘는 신청자를 맞았던 사찰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련생을 받을 방침이다. 접수 순서만을 고려해 무작위로 입소시키던 것을 신청자의 참가 목적과 사찰의 수련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는 희망자를 선별한다. 주최측은 프로그램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참가자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수련회 참가 희망자들은 신청하기 전에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는 주관 사찰의 수련대회 프로그램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찰수련회는 초심자에게는 발우공양, 결가부좌의 좌선, 예불 등이 육체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때문에 사찰 수련프로그램이 자신의 수행수준과 맞는지 수련경험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련회 유경험자라면 수련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마다 신청자 반수 이상을 탈락시켜야 할만큼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송광사는 7월9일~ 8월10일 5차에 걸쳐 실시한다.

해인사는 1080배, 독경, 사경수행을 주된 내용으로 수련대회 참가자들이 일상에 돌아가서도 수행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고 있어 초심자들이 도전해 봄직하다. 참가자격을 19세에서 50세로 한정한 해남 대둔사는 참선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보성 대원사는 7월30일~8월5일 1주일간 위빠사나 전문수련회를,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 수련회를 실시한다. 또 용주사는 부모와 2인1조로 참여하는 효사상실천수련회(7월), 과계사는 여름태교수련회(7월 초부터 8월말까지), 정토사 만일염불수련회(6월6일~10월22일), 천축사는 무문관 체험 수련회를 연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7월초 '수련회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수련회 일정 및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02)720-7060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주요 사찰 여름수련회 예정표

사 찰	기 간	접수마감	연 락 처
대둔사	7. 10~8. 4일(6회)	6. 30	0634)534-6602
대원사	7. 30~8. 5(1회),주말	7. 27	0694)852-1755
해인사	6. 24~8. 9(7회)	사찰 3일 전	0599)931-1003
백양사	7. 15~8. 26(4회)	6. 25	0685)392-7502
송광사	7. 9~8. 10일(5회)	6. 10	0661)755-9002
쌍계사	7. 22일~8. 2일(3회)	6. 30	0595)883-1901
금산사	6. 30일~8. 15일(5회)	선착순	0658)548-4441
직지사	7. 21일~8. 6일(4회)	6. 30	0547)436-6174
통도사	7. 15~8. 8(6회)	6. 30	0523)382-7182
과계사	7월 초 (주말이용)	매주 금요일	053)984-4550
골굴사	수시(희망일 지정 가능)	사찰 3일 전	0561)744-1689
정토사	6. 6~10. 22	6. 5	0342)723-9797
천축사	매주 토~일요일	사찰 3일 전	02)904-1474

봉정사 목조불 "국내 最古"

'승안 4년=1199년' 조성연대 확인



◇안동 봉정사 지조임 목조 관음상. 최근 '대웅전 관음개금현판'을 통해 관음상의 조성연대가 승안 4년(1199년)으로 밝혀져 국내 최고(最古)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에서 국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국보급 목조 관음보살상이 발견되어 희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정사 측은 덕휘루에 걸려있는 '대웅전관음개금현판'에서, 봉정사 목조 관음상의 조성연대가 승안 4년(1199년·고려 신종 2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조압 관음상의 복장 유물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는 원서(願書)가 나왔다고 밝혔다. 관음상은 높이115cm 가로63cm 세로57cm 크기로 원만한 상호와 화려한 복장이 돋보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해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관음상은 14세기에서 15세기 초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현판 역시 18세기에 쓴 것"이라며 "복장물을 연구한 후 '최고(最古)에 대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고 목불은 1274년 제작된 서울 개운사의 아미타불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참여연대 '문화재 관람료 반환 소송'

조계종 특별대책위 구성 '대응'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과 관련, 조계종총무원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25일 불교회관에서 비공개로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를 갖고 총무원집행부와 관람료위원, 소송 사찰 주지스님을 포함한 9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3면〉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주지들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연대 소송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촉구했다. 스님들은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해 마치 사찰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시비 소지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8일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뿐 천은사 경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환경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합동징수의 폐지를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

"상업시설지구내 석남사 소유 토지 경내지 아니다"

울산지원 판결 '파문'

사찰소유 토지라도 수행 등에 필요불가결한 토지가 아닐 경우는 전 사법에서 규정한 경내지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와 조계종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지법 행정부 박창현 판사는 10일 최모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석남사 앞 상업시설지구 작업중지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에서 "상업시설지구에 속한 석남사 소유 토지는 수행 등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경내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울주군의 작업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 경내지를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민족공동체 본부 6월8일 출범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전담할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다음 달 8일 결성된다. 추진본부는 △남북불교교류 △통일종책 연구·수립 △통일기금 조성 △북한 불교현황 및 문화재 조사·연구 △법회 등을 통한 대중실천활동 △대북 지원활동 등을 펼친다.

추진본부 준비위는 18일 조직구성과 관련, 총재·고문·본부장·집행위원회·사무처(총무국 조직국 기획홍보국)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총재에는 총무원장 정대스님, 본부장에는 포교원장 정련스님, 공동집행위원장에 명진(상임)·양산스님(사회부장), 사무처장에 도각스님을 선임했다. 정성운 기자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외환은행 : 189-13-03929-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buddhanews.com
붓다뉴스 닷컴
교계 첫 日刊 사이버불교신문
6월1일 오픈합니다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6월1일부터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불교뉴스 전문사이트 붓다뉴스 닷 컴(www.buddhanews.com)을 선보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그동안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서비스해온 인터넷신문을 불교뉴스 전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 교계 최초의 일간 사이버신문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교계의 뉴스를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계 최대규모로 구축된 불교DB '부다피아'와의 연계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의 강점인 정보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쌍방향 교신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불교 DB검색 가능
쌍방향 정보교류

매일매일 서비스되는 '붓다뉴스'는 기존의 종이매체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날의 종합뉴스와 불교강좌·학술문화·교육·신행·생활정보등 전영역에 걸쳐 기자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신문이 지면 제약으로 싣지 못했던 기사를 모두 볼 수 있고 각종 부가정보와 심층분석기사 등 다양하고 품격높은 정보와 만나게 됩니다.

특히 기획특집기사, 해외불교, 최신불교정보, 사이트 여행에서는 산사 큰스님들의 사자후인 감로수 같은 법문과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문화, 21세기 새문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 관련자료와 국내외 불교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실, 생명나눔캠페인, 부다카페, 컬럼, 돌부처찾기는 특화된 서비스로, 클릭 사이버뉴스부장·나도한마디·퀴즈이등 10여개의 대화창은 쌍방향 정보교류의 장으로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교계 최초로 선보이는 '붓다뉴스'에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삶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끼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일착력으로 잘 닦이며 살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일착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일착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진, 플롭,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촉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식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약간의 물기만 닿아도 잘점 커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판촉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이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628-14 정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6월4일 전국 120개 군법당 일제히 '호국영령 천도법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국 이래 모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비롯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을 위한 천도대법회가 4일 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열린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옥)는 군승단 주관으로 전군 각 부대 소속 120개 사단급 군법당에서 현역 불자장병과 예비역 장병, 공무원, 민간 신도 및 유가족 등 15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같은 시각, 같은 회순에 따른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군 차원에서 전례없이 실시되는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또 시대별 승군별 부대별 사고별 모든 영가를 망라해 청혼, 천도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천도법회는 4일 오전 10시 전국 군법당에서 국군 법요집 전례에 의거해 봉행된다.

국군불교총신도회는 본 행사에 앞서 전쟁기념관 원형광장에서 진혼나팔이 연주되는 가운데 호국영령을 청혼한 뒤, 헌병대대의 호위 속에 국방본청 합참별관 등을 지나 호국원광사까지 영가위패를 이운한다. 영령 청혼 및 영단 이운은 전인구 장군(군불총 사무총장)이 총지휘한다.

전인구 사무총장은 "이번 천도법회는 호국영령을 진혼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한편 국운 융창및 군의 무사안전을 기원하고 장병의 호국의지와 안보결의를 고양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6월 한달을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게 기도하는 달'로 정한 국군불교총신도회는 이번 천도법회를 기념해 자체 개발한 캐릭터를 선보이고, 차량용 스티커 만5천개를 전국 부대에 보냈다.

캐릭터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군복을 입은 장병이 연등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귀한 넋과 그 넋을 천도하는 군불자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또 16~17일에는 설악산 봉정암에서 국군 장병 무운장구를 위한 기도회도 열 계획이다.

군불총 조현봉 행정차장(중령)은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매년 정례화 할 방침"이라며 "여법하고 장엄하게 봉행하면서도 볼거리가 있는 천도재를 모색, 점진적으로 국민적인 행사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군불교총신도회는 6월2일까지 개인 및 부대 단위의 개별 영가천도 신청을 받는다.

02)796-0230.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관음종 수련대회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종단 연수원이 있는 천안 보명사에서 제34차 성직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에는 혜웅 종정, 홍파 총무원장, 법륜 종회의장, 동령 교육원장 등 종단 대덕 스님들과 전국 70여 사찰 주지 등 1백여 스님들이 참가하여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아래 매일, 새벽 도량석부터 아침예불, 참선, 발우공양, 교육, 토론, 울력 등 모든 일정을 함께 하며 정진하였다. 또한 수련기간동안 홍파 총무원장스님의 '관음종의 종풍과 종도들의 마음가짐' 등 종단 간부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경숙 기자

"달라이라마 7월 방한 허용"

76개 불교단체, 정부에 강력 요청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8일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협의 끝에 달라이라마의 방한일정을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76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방한준비위원회는 이에따라 달라이라마의 방한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보내고 "이번에도 방한을 불허한다면 정부의 굴욕외교에 맞서 국민적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을 오는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즉 아셈회의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준비위측은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다쉬 왕디 문화종고장관과 일본·동북아대표부의 전직 대사인 카르마 겔렉 유록스님, 자불 린포체 스님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준비위측도 여연스님(방문단장)과 성관스님·박광서 공동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다음달 11일 인도 다람살라로 파견해 달라이라마와 직접 만나 방한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달라이라마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인권의 세계적 지도자의 방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사면 설문조사 회수율 극히저조

조계종의 종헌 개정 및 사면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종회 사무처는 22일 열린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일까지 300부의 설문지가 회수돼 1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설문조사지 회수 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 분석은 교계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2천여 스님 하안거 결제

불기 2544년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각 선원은 18일 입재식을 갖고 오는 8월 14일까지 석달 동안의 하안거에 들어갔다.

이번 하안거에 조계종에서는 5개 총림을 비롯한 80여개 선원에 2천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했다. 태고종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20여명의 스님들이 입재식을 갖고 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이날 결제법어를 통해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법어 전문 3면〉 정성운 기자

중국불교협 조박초회장 입적

30일 국장으로 영결식 종단협 조문단 파견



한·중·일 불교교류를 위해 헌신해온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사진)이 94세를 일기로 지난 21일 입적, 영결식이 30일 북경 팔보산에서 국장(國葬)으로 치러졌다. 중국불교협회는 31일 광제사에서 추도법회를 봉행했다. 조 회장이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혁명원로임에 따라 국장으로 거행한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단장으로 조문단을 파견해 조 회장의 명복을 빌고 지속적인 한중 불교교류의 뜻을 중국불교협회에 전했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조 회장의 입적에도 불구하고 한중불교교류는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불교협회 후임 회장은 스님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국 문화혁명 시절 주요 사찰과 불교유적을 훼손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친필휘호를 보내 불교와 불교유적을 지켜냈으며, 특히 95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중국·일본 3국불교교류를 강조해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산파역할을 했다.

조박초 회장은 안후이성 안경시 출신으로 동우(東吳)대학 졸업 항일투쟁에 나섰으며, 모택동 주석 당시 공산당 서열 4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방송 사장에 김규칠씨 추천

불교방송 사장에 KBS이사인 김규칠씨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불교방송 사장에 김규칠 씨를 추천키로 결의했다. 이에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6월 중순경 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인준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 추천 과정을 지켜본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장 추천은 3개월에 걸쳐 철저한 보안속에 7명 정도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신중히 결정됐다"며 "사장에 추천된 김씨는 91년 불교방송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방송 경력과 외무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장 후보에 올랐던 김양일씨(前 울산일보 회장)는 사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불교방송 이사들과 조계종단의 스님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주일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행선지는 맞는데…

'온겨레 평화대행진' 준비위 발족

토론회등 계획발표

온겨레평화대행진 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23일 서울경운동 천도교중앙교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온겨레평화대행진과 겨레대합창, 남북민간교류에 관한 토론회 계획을 발표했다.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기해 열리는 평화대행진은 6월 25일 대학로 특설무대에서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어린이와 전쟁피해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과 문화행사로 진행한다. 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순회공연을 통해 모금활동을 계속 벌이는 한편 국제구호재단을 설립해 북한과 전쟁피해 어린이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겨레대합창'을 경복궁 특설무대와 세종로 일대에서 펼치기로 했다.

'남북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9일 열린 토론회는 '남북 종교인 교류협력의 의의와 전망'(변진흥 종교인평화회의 사무처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 창립

초대회장에 대은스님



태고종 산하 19개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스님들의 상호 친목 도모와 종단발전을 위한 종책개발 등을 협의할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9일 태고종 서울 종무처에서 창립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정대은 스님(인천종무원장·사진), 부회장에 박성수(충북종무원장)스님, 총무에 편백운(강원종무원장)스님, 재무에 박신명(경기북부종무원장)스님, 감사에 김월해(대전종무원장)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전국 종무원을 순례하며 정기회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특별기금을 조성해 종책개발과 후진양성, 종단의 공익인 자금 지원활동 등에 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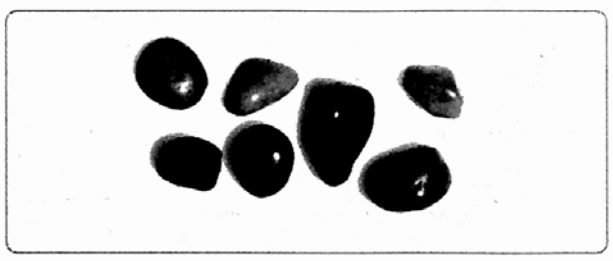
종무원장협의회는 지금까지 종단의 중요 종책을 시행함에 있어 종무원장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만큼 종단의 발전과 승단의 화합을 선도하고 태고종의 외호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남북정상회담 성취 및 국민화합 기원 대법회

2000년 새로운 세기, 남북정상회담 성취와 아울러 국민 대화합이 요구되는 이때,
통도사에서는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고 건립된 통일의 영험이 담긴 황룡사 9층목탑에서 출현된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남북통일의 바탕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리친견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황룡사의 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로부터 모셔온 사리로
통도사 금강계단의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온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 사리 이운식 및 대법회 ◆

· 일 시 : 2000년 6월 2일(음력 5월 초하루)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 법회안내 : 종무소 0523) 382-7182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 축 총 림 통 도 사 주 지 薪虛 합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전에서 불교공예의 정수를 만나 보고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하십시오.
이번 특별전은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친견할 수 있는
금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사리 친견 안 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 관람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
(특별전 기간 중 휴관 없음)
· 행사안내 : 통도사성보박물관
전화 0523) 382-1001, 382-1001
팩스 0523) 384-0030

※ 행사기간 동안 부산, 울산에서 통도사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예약하시면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목어

살아 숨쉬는 문화재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충고 가운데 하나는 로마를 여행의 종착지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로마의 유적을 먼저 보고 여행을 하면 다른 곳은 그 아류이거나 이미 본 유적들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문화재는 유형의 것이 있는가 하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것도 있다. 무형문화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한여름 밤 로마의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유형 무형의 이태리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를 깊이 생각해 본다. 몽촌 토성지역을 발굴하면서 일어난 문화재 발굴팀과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민 개발팀과의 마찰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재팀은 이곳이 백제의 도읍지일 것이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발굴에 임했고 아직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이 틀림없다. 이런 와중에 주민을 앞세운 업자들이 야밤중에 유적발굴지역을 성토하여 다시 매몰시켜 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야 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참 안타까운 팽팽한 주장의 대립이다.

문화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발굴팀과 개발팀의 당사자간 문제인 것처럼 말겨두고 뒷짐을 지고 바라보는 정부의 처사가 민망하다. 어떤 문화재 혹은 유적도 그와 유사한 볼거리로는 재현시켜 만들 수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혼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는 그 형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만큼 혼의 나이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의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한번 상상해 보라.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당사자간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켜주는 데 솔선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숙한 역할이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 조계종 대응

사찰기여도 적극 홍보

특위구성 공원입장료 폐지 촉구

조계종은 참여연대의 관람료 반환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 관람료위원회와 합동 징수사찰 연석회의를 열고 집행부와 관람료위원회, 소송 사찰 주지스님 등 9인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의 대응 방안은 △소송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여론홍보 및 국립공원 정책 개발과 제시 △나아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 종단 차원의 소송 대응

신흥사나 천은사 등 해당사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종단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찰이 그동안 부당하게 관람료를 받아왔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천은사의 경우 참여연대에서 주장하듯, 등산로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조계종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찰의 국립공원 기여도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사찰의 손실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의 토지는 317만㎡에 이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의 자연환경과 문화향유를 위한 조계종의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작은 권리'를 내세워 관람료 반환소송을 냈듯,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작은 권리를 중시하는 만큼 조계종은 국민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마치 조계종을 부당이득이나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립공원 정책 워크숍

국립공원과 문화재보존에 관한 정책 워크숍을 세 차례 정도 개최해 종단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 '사찰문화재의 바람직한 보존 방안' '자연환경과 문화재보호 활동 홍보 방안' 등의 주제를 가지고 6월부터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국립공원 정책, 문화재 유지·보수 비용의 현실화, 사찰의 국립공원 기여도가 주내용이 된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으로 모아진 의견을 정부와 협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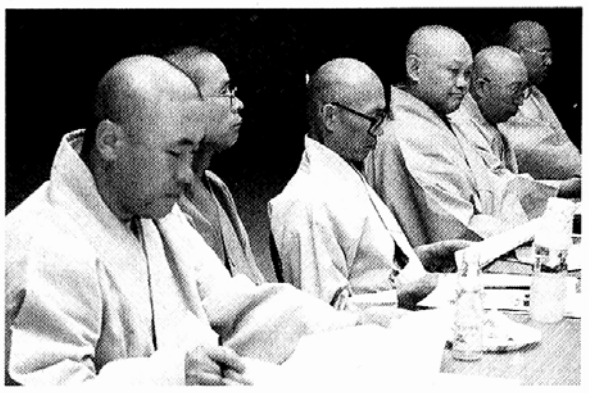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약속했던 것임을 상기시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은 "당시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작은 세수라도 아낀다는 명분으로 유보했지만 정부측의 발표대로 경제위기를 벗어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공원입장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존보다는 매표나 개발에 치중해왔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참여연대가 18일 천은사와 신흥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을 낸 데 대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25일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은 "시민이 누릴 권리 가운데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도 있으며, 전통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있다"며 참여연대에 대해 "발족 이후 줄곧 경제적 이익만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더욱 조장해오지 않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참여연대의 관람료 반환 소송과 관련, 25일 열린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에 참여한 스님들이 집행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조계종 혜암종정 하안거 결제법어

"봄철 아닌데 풀이 푸르리오"



假使棒如雨點하고
喝似雷奔하야도
未能當得向上宗乘事하나니
到這裏하야는 鑠迦羅磨도
更參三十年하야사 始得다.
其餘歷代善知識과 天下大宗師는
盡是依附草木精靈이니
庭前栢樹子와
狗子無佛性은
是什麼乾屎橛고 還會麼아.
石鰐忽生兒하니
夏安居日이로다.
向上一路는 千聖도 不傳이라.
須彌頂上에 駕起鐵船이라 하니
良久云
不來春節이여 草自靑이리오.
喝 一喝

설사 몽둥이로 때리기를 비오듯 하고 / 할하기를 우레같이 하더라도
향상종승의 법에는 합당치 못하니, / 여기에 이르러서는 석가와 달마도 / 다시 삼십년을 더 참구하여야 되리라.
그 밖의 역대 선지식과 천하 대종사는 / 모두 초목에 붙어 사는 잡귀이니 / '뜰 앞의 잣나무'와 '개가 불성이 없음'은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인가. 알겠느냐?
돌사자가 문득 아이를 낳으니 하안거일이로다.
향상일로는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수미산 꼭대기 위에 무쇠 배를 타고 간다 하니
(한참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아직 봄철이 아닌데 어찌 풀이 푸르리오.
아 악—

뛰어난 근기 위한 뛰어난 가르침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⑯간화선은 최고의 수행법인가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다."

이 문장이 유의미한 진술이 되려면 문장의 구성 요소인 '화두'와 '참구'의 의미와 효용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법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화두'란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야기이돼 깨침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낸 언어, 동작, 사물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깨치지 못한 이에게는 넌센스나 동문서답같이 보이기 때문에 심히 곤혹스러운 숙제가 된다. 그런데 이 숙제는 미룰 수가 없다. 끝없는 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 숙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급한 명령이기 때문에 화두를 공안(公案)이라고도 한다.

또 '참구'한다는 것은 의심을 품는다는 말에 가깝다. 불교의 핵심적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조주는 어째서 "뜰 앞의 잣나무"를 들먹거린단 말인가? 의문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심을 품는다고 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골똘히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조금 안다고 잣나무로서 제법실상, 혹은 진여불성을 드러냈구나 하고 암만 기특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정(疑情)이 사량분별이 끊어진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화두를 제대로 참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머리로 '내가' '무엇을' 의심한다기보다 의심하는 자와 의심되는 것이 따로 없이 오직 의심하는 기운만이 전신에 오롯할 때 비로소 참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지는 곧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혹은 망념에 물들지 않는-무심(無心)의 상태요, 불성(佛性)이 현전하는 자리이다. 무심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가 아니라, 업식(業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깨어 있는 의식이다. 화두를 의심하는 기운은 심지어 깊은 잠 속에서도 성성(惺惺)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렇게 화두 삼매가 충분히 성숙된 연후에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비로소 불성을 철견(徹見)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간화선법은 해탈에 이르는 아주 효율적인 수행법일 수가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우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삼매의 대상으로 화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대상이 없이 막연히-관념적으로-불성을 내관하는 묵조선에 비해서 혼침(昏沈)에 떨어질 위험이 적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단지 집중력 강화라면 굳이 화두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지도 모른다. 화두는 의심을 유발하는 외에 화두마다 특정 심리 상태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근기와 성정에 맞는 화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지식이 수행납자를 점검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것도 화두의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화두는 일상 논리로 풀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로 하여금 발디딜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즉 생각의 의지처를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써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미지의 영역, 즉 은산철벽(銀山鐵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넷째, 간화선법에서 흔히 회자되는 삼요(三要)는 솥발과 같이 삼매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큰 믿음(大信心)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가 생기고, 큰 분발심(大憤心)은 채찍이 되며, 크게 의심하는 마음(大疑心)은 수행의 바른 길을 지킨다.

다섯째, 간화선은 특히 단번에 여래의 지위에 뛰어들 수 있다(一超直入如來地)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불성이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는 '한 물건'을 사무쳐 알면 그것으로 생사(生死)의 큰 일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다. 그 한 물건은 밖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용 쓰고 있는 것이니만치 본질적으로는 교학이나 수행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뛰어난 근기를 위한 뛰어난 가르침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간화선이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것과 그 뛰어남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훌륭한' 수행법이 최근 들어 심심찮게 도전받고 있고, 또 그럴만한 이유도 없지 않다. 간화선을 위해서라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특집 스포츠조선과 함께하는
현해탄건너 대마도탐방 ₩440,000
· 일 정 : 부산 - 대마도 - 부산(2박 3일)
· 포함사항 : 선편, 전 일정 숙박, 관광, 역사학자 및 현지안내인 동행, 보험
· 출 발 일 : 5/19 6/2, 4(금) - 20명 선착순
신영훈과 함께 현해탄과 대마도를 탐방합니다.
(신영훈 원장의 특강)
▶ 신 영훈 (申榮勛) 연혁
1935년 개성에서 출생.
1959년도부터 국가지정 중요 국보 · 보물 보수에 종사. 문화재 전문위원(1962~1999)이었으며, 법련사 불일문화원 원장,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
주요 작품은 송광사 대웅보전, 보탑사 3층석탑, 저서로 「한국의 궁실 건축」「우리 문화 이웃 문화」 등 다수.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째-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Zeep (4인탑승), 중국비자, 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 영어가이드, 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 서양을 남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5/29, 6/12, 26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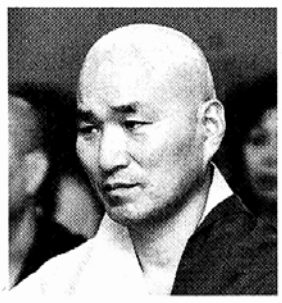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예조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 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 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원, 전용차량
· 출 발 일 : 5/28, 6/11, 7/2, 16 목, 일(15명이상 출발)

도반과 함께 - 네팔 히말라야 순례를...
설산 순례 (트레킹) ₩1,290,000
도반과 동행시 도반의 경비는 ₩1,190,000 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지인 히말라야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안나푸르나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 순례후 네팔과 방콕 그리고 인도의 성지를 개별적으로 순례하시고 델리 또는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 합니다.(1年 항공권)
· 일 정 : 카트만두-히말라야 순례-포카라-카트만두-방콕(8박9일)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소(조식포함), 국내선, 현지안내원(산길안내)
· 출 발 일 : 5/23,30, 6/6,13 매주 화, 목, 토 (2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재소자 건강한 재활이 꿈"

교정대상 본상·특별상 받은 성웅·자인스님


◇성웅스님


◇자인스님

성웅 스님(상주 남장사 주지)과 자인 스님(군산 내원암 주지)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 18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소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본상(자비상)과 특별상(자비상)을 수상했다.

성웅 스님은 88년부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종교위원으로 수용자 불교교리지도, 종교관 비품기증, 무연고 수용자 생활지원을 해왔다. 또 스님은 불교신자의 생일잔치를 마련해 수용자들이 정신적 위축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96년부터는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용자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 청소년 교정·교화에 전념해 왔다. 이와 함께 상주시 냉림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년원생이라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만나다보면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가 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교화·교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군산교도소 종교위원으로 16년간 종교교화 활동에 매달려온 자인 스님은 그 동안 106회의 법회를 주관해 6344명의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또한 스님은 교화행사 물품지원, 교화기자재 기증은 물론 500여 명이 넘는 수용자들을 일반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주거나 주선을 해왔다.

자인 스님은 "주신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교정·교화 활동을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허름한 막사법당 보고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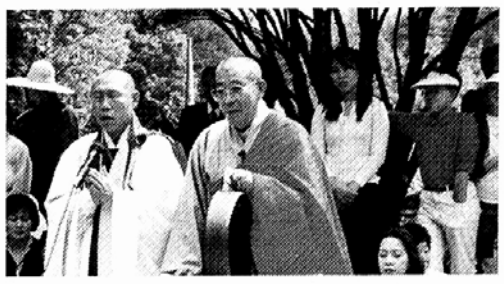
'군불사 디딤회' 만든 도현스님



"전방에 있는 군법당의 사정이 법회 볼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 폐장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최근 군법당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인 '군불사 디딤회'를 조직한 도현 스님(상도동 정혜사 주지), 4년 동안 불교방송에서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스님이 군포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화천 지역 군부대를 방문하면서부터다.

"군부대에 가보니 10여 개의 법당 가운데 법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도량은 두개정도 밖에 되지 않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스님은 4월6일 불교방송의 성지순례 때 지도법사로 청취자들을 안내하며 군법당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해 모은 190만원을 군법당에 보시했다. 스님은 6월11일 오전 11시 화천 '지장사'에서 '군불사 디딤회' 회원들과 함께 호국 영령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는 것으로 본격적인 군 법당지원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김주일 기자



쌍계사 진감국사추모 다례·범패 시연

하동 쌍계사(주지 통광)는 14일 차와 범패를 우리 나라에 처음 들여온 진감국사를 추모하는 다례 및 범패시연을 가졌다. 진감국사 부도탑 및 국사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진감국사의 선사상과 범패연구 발표, 차공양 등으로 진행됐으며, 경남 하동 군수 정구용 씨, 향토사학자 김동곤 씨, 동국대 국악과 교수 법현 스님 등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JTS 북한어린이돕기 후원의 밤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 돕기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 후원의 밤 행사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JTS의 활동을 담은 영상보고와 법륜 스님의 인사말, 민주당 서영훈 대표와 강원룡 목사의 축사, 대행 한마음선원장 스님 등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사암련 5·18 민주영령 천도재

지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민주 영령들을 위로하는 천도재가 16일 광주 망월동 5.18 신묘역 추모탑 앞에서 봉행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관으로 봉행된 천도재에는 고재유 광주시장과 신도 및 시민 1백여명이 참석, 민주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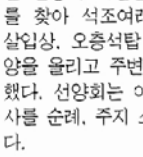


日 장애인 30여명 상락원 방문

일본 장애인 복지법인 '메히노 야원(野薗)'의 타카다(中田) 이사장을 비롯한 장애인과 부모 등 30여명은 18일 승가원의 장애아동시설 상락원을 방문, 양국 장애아동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법인의 인적교류는 물론 자매결연 등의 교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일주문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열어



현성 현성정사 주지는 17일 관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경로잔치를 벌였다. 스님은 이날 참석한 15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점심과 다과 공양을 내고, 용돈을 전달했다.

'21세기 청년불자'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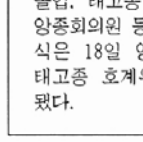
도법 실상사 주지는 21일 대구 성화사에서 '21세기 청년불자의 원력과 정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일붕신문사 회장에 취임



삼중 자비종 총무원장은 6월7일 오후 2시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열리는 일붕신문사 창간 17주년 기념식에서 일붕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다. 이날 남북정상회담 원만성취기원대법회도 함께 열린다. (02)777-0959

실직 노숙자에 기념품 증정



지홍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보현의 집 원장은 20일 개소 2주년을 맞아 후원자 표창 수여식과 실직노숙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국대 불교병원 기금 2억 기탁



황수로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은 15일 동국대를 방문, 불교종합병원 기금 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일맥문화재단은 태창그룹 설립자 일맥 황래성 씨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21세기 경찰개혁' 세미나

이황우 한국경찰학회장(동국대 교수)은 2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를 향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는 17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 3년. (02)780-4290

'올해의 명차'에 뽑혀

서양원 한국제다 사장은 25일 '차의 날'을 맞아 덕수궁에서 열린 차인연합회 주최 최우수 차(茶) 품평회에 작설차를 출품해 만장일치로 '올해의 명차'에 선정됐다.

법륜불자교수회 성지순례

신준식 법륜불자교수회 회장은 21일 경주 불국사와 분황사로 5월 정기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에서 법륜회 산하 불교문화재위원회 최영식 위원장(영남이공대)은 '불국사가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를, 분황사 주지 종수 스님은 '원효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법문했다.

수효정사서 법문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은 6월 3일 오후 7시 서울 수효정사 불이거사회 법회에서 법문한다.

봉업사지 석불에 예불



한국석불선양회 회원 50여명은 14일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봉업사지를 찾아 석조여래입상, 태평미륵보살입상, 오층석탑 등을 참배 예불공양을 올리고 주변에 꽃을 심어 장엄했다. 선양회는 이어 유서깊은 칠장사를 순례, 주지 스님의 법문도 들었다. 이귀인 명예기자

태고종 동호스님 입적



태고종 호계위원장인 김동호 스님이 14일 양산 도운정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1세, 법랍 54세. 스님은 1929년 경기도 시흥 生으로 46년 양산 통도사에서 득도한 뒤 통도사 강원을 졸업, 태고종 중앙연수원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18일 양산 도운정사에서 태고종 호계위원회장으로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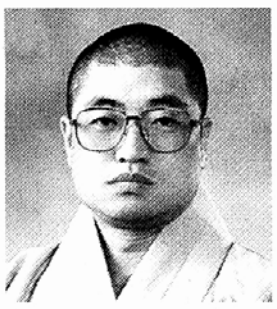
총지종 심인행지수 열반



불교총지종 원로 심인행지수가 21일 성남 하대원동 소재 총지종 기로원에서 세수 74세, 법납 28세로 열반했다. 심인행지수의 영결식은 종단 승직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23일 고려대병원에서 엄수됐다. 심인행지수는 1926년 경주 生으로 지난 72년 총지종에 입교, 종의회 의원을 거쳐 총지종 통리원 사회부장, 실지사 주교를 역임했다.

"禪 비행 청소년 지도에 활용"

청소년 육성 공로 총림표창 도각스님



"이번 상은 청소년 포교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채찍질로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30일 문화관광부 5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육성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마음의 전화' 회장 도각 스님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5년 동안 청소년들의 고민을 전화로 상담해 주는 '마음의 전화'를 운영해 온 스님이 청소년 포교에 갖는 관심은 남다르다. 잠자는 시간까지도 전화를 옆에 놓고 이성, 진학, 교우관계 등에 대해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청소년들을 불교적 교리에 입각해 따뜻하게 상담해 준다. 또 매년 3월에는 10여명의 불우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있다.

선(禪)심리학을 이용해 비행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스님은 "동적인 것에 익숙한 비행 청소년들에게 정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교육시킨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힌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봉선사 월운 큰스님 능엄경 산림 대법회 안내

봉선사는 일찍이 한국불교 교학의 근본 도량으로서 故 운허 큰스님의 원력으로 팔만대장경 역경불사와 후학 양성은 물론 서울 인근의 불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장경 역경불사의 회향을 준비하고, 능엄학림을 통해 도제 양성의 교육 불사에 위법 망구하시고, 종단의 어른이시며 대강백이신 **월운 큰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장장 6개월에 걸친 능엄경 산림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감로와도 같은 큰스님의 능엄경 설법을 통해 불자로서 거듭나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 뜻 깊은 대법회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 재 : 2000년 6월 8일 (음 5월 7일) 목요일 오후2시
▶회 향 : 2000년 11월 30일 (음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6개월간)
▶법회시간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총100시간)
▶장 소 : 봉선사 청풍루
▶동 참 금 : 매월 30,000원 (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봉선사 사무실 (☎ 0346-527-1951)
봉선사 교무국 (☎ 0346-527-1146)

※ 교 통 편 · 청량리 우체국 건너편에서 707좌석 광능내 하차 21번 의정부행 봉선사입구 하차
· 의정부 시장에서 21번→봉선사 입구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 선 사 주지 변 밀 운

불교·언론정보·문화예술 대학원

2000학년도 후기 신입생모집

불교대학원(야간) 2260-3097~8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지도자 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포교학
  -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6.1(목)~6.9(금)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0.6.15(목) 14:00, 본 대학원 (지도자과정 전형일시 : 2000.6.16(금) 14:00)

언론정보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2260-3722~3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최고관리자과정
- 모집전공 :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잡지
- 편입생 : 석사과정 : 지원학과와 동일계열 수료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5.29(월)~6.12(월)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 2000.6.17(토) 14:00, 본 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야간) [신입생·편입생] 2260-3606~7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문화예술지도자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 연극영화학과 : 공연예술·영상예술
  -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한국음악·문화재
- ※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참사람 열린교육의 도량"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자민련·한나라 불자회 '위기'

◇지난 4·13총선에서 낙선한 불자국회의원이 많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불자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진은 법회장면.



박철언 함종한 회장등 다수 4·13 총선 낙마
임원진 못짜고 일정 불투명…종단관심 필요

4·13 총선에서 자민련과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던 박철언 함종한 의원을 비롯한 불자 국회의원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당 불자회가 과연 유지될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신자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부터 세계기독의원연맹 출범식, 국가조찬기도회, 국민일보 주최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축하모임 등 연일 모임을 개최해 응집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불자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어 정당 불자회와 정각회가 결국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불자회는 회장을 맡고 있던 함종한 의원과 불자회 창립 멤버인 권익현 의원 등 불자회 국회의원 대다수가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자회를 이끌어 갈 적임자가 없어 92년 창립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다보니 원내구성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로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련불자회도 회장으로서 불자회 운영을 도맡아 왔던 박철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면서 난파 직전에 있다. 그러나 비록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부총재라는 당직을 맡고 있는 박철언 현 회장이 재입하면서 불자회를 계속 이끌어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연등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불자회와는 달리 총선 결과가 성공적이어서 자못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장인 박상규 의원, 간사인 조성준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모두 원내에 진입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와대불자회 출신인 박주선 당선자, 전국구 당선자인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류할 것이 확실해져 몸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연등회의 약진은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청와대불자회와의 합동법회에서 과시되기도 했다.

연등회는 6월9일 총회를 열어 국민회의 연등회를 민주당 연등회로 승계하고, 새 회장체제를 출범시킨다. 회장에는 박상규 의원에 이어 김기재 당선자가 거론되고 있다. 김 당선자가 연등회장이 되면 관례대로 국회 정각회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불자회가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데는 종단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불자 의원들이 한데 어울릴 명분이 약하고, 스스로 불자회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심점이 돼 주어야 할 종단마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 의원들이 신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불교계 권익옹호를 위해 나름대로 외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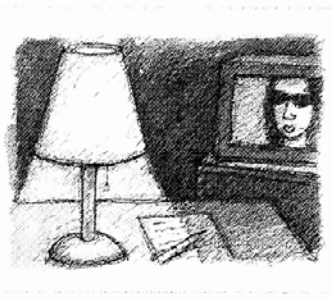


양 성 목
〈국방부근무지원단 사무관, 시인〉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의 직장인들은 때로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을 부러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가한 사람중에는 일터가 없어 안타까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에 열중(熱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나는 10여년전에 담석증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담석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3시쯤 서울대병원 응급처치실로 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

응급 중환자실 입구는 매우 부산하고 어수선하였지만 전국에서 앰블런스에 실려오는 중환자들은 찰나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매우 위급한 중환자들이었다. 길게 늘어선 침대위에 응급환자들의 환부를 처치하는 간호사와 의사들의 손동



씬 아름답다. 훈련(전투)에 열중하는 군인,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 장사에 열중하는 노점상, 한밤에 오징어 잡이에 몰두하는 어부, 불쌍한 이를 돌보는 수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스님, 자손을 위하여 늙도록 육체노동을 계속하는 노동자, 천수답(天水畓) 한평도 묵히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 등등

이와 반대로 요사이 좋지 않은 일로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류(女流) 사기꾼(?)이나 로비꾼(?)들, 부정한 재

"일에 열중하는 모습 아름다워"

작 하나하나가 매우 엄숙하며 질서있고 성스럽게 보였다.

"인생이란 무대에는 플레이 어게인(Play Again!)이라는 구호가 없다"는 하듯이 현생에서 단 한번뿐인 생명의 숭고(崇高)함을 일깨우며, 최후의 일각까지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이 그때처럼 숙연하고 아름답게 보인 적도 없었다. 나는 그때 넋나간 사람처럼 한시간 이상을 중환자실 응급진료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나의 마음과 정신이 조금은 맑게 씻겨진 느낌이었다. 마치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확인하기라도 한 듯이.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다음날 회진(回診)때 주치의에게 며칠만 일찍 퇴원할 수 있어도 직장에 일주일 이상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허락을 얻어 조기퇴원을 했다. 직장에 복귀한 나는 그날 응급실에서 느꼈던 숙연함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미스코리아 진(眞)보다 훨씬 물을 토해내지 않고도 사면(赦免)받은 사람들의 뱃속 이야기를 내입에 올리는 것 조차 부끄럽고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에 인용하기 부적절할 뿐이다.

내 일터에서 마음의 편지를 쓰는 것조차 부끄러워 집에와서 한밤에 이 글을 쓴다.

산나는 것이 결국 억겁속의 찰나라면 순간순간마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삶을 풍요롭고 자신의 영혼을 살지우는 것이 아닐까?

마음의 여유로움조차 갖기 어려울때면, 일상사의 괴로움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대표하여 목탁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아니면 가까운 산사에라도 가서 풍경소리를 들고 마음을 밝히는 일도 괜찮을 듯 싶다. 비온 후에 외출을 삼가면 지렁이도 밟지 않을 것이니 하안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의 마음을 헤아려봐도 좋겠지만 나는 아직 중생인걸 어찌하랴.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행복을 우리는 버리지 말며, 때로는 주옥같은 시구라도 외워보면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한 곳 아닌가.

클릭! 새 홈 페이지

■연세대불련모임(http://cafe.daum.net/ybuf)-4월18일 개설. 연세대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방.

■정법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jungbub)-4월19일 개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 소속 정법불교학생회 카페.

■천안 각원사 학생회(http://cafe.daum.net/wooris)-4월19일 개설. 천안 각원사 학생회 선후배 모임의 장.

■포항고불선원학생회(http://cafe.daum.net/chm9829)-4월20일 개설. 포항고불선원학생회의 학생들과 졸업한 회원들과의 연락창구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金剛2000(http://cafe.daum.net/kumkang200)-4월20일 개설. 금강불교학생회 수료 선후배들이 꾸몄다.

■정토의 세계(http://cafe.daum.net/jungto)-4월20일 개설. 불교, 사회복지자료와 신행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토 세계의 회원은 도림사에서 무보시 사시기도 축원도 해준다. 도림사 소식지와 어린이법회 소식도 알 수 있다.

■미타사(http://cafe.daum.net/mitasa)-4월22일 개설. 미타사 법우회 모임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륜가족들(http://cafe.daum.net/foreverbr)-4월24일 개설. 부산 동래 법륜사 가족들의 홈.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장애인 수중결혼식
승가대 동호회 알선

스님이 주례를 서고, 스님이 하객으로 참여하는 수중 결혼식이 27일 강릉 남항진 해수욕장 앞 바다 속에서 열렸다. .

중앙승가대학교 스킨스쿠버 동호회인 천수천안수중동우회(회장 대원스님)는 천수천안장애인 수중동우회와 공동으로 1급 장애인 최해구씨와 비장애인 장수정씨의 결혼식을 바다 속에서 주관했다. 최씨 부부는 부모의 반대로 오랫동안 결혼식을 미뤄오다가 최근 승낙을 얻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맞은 대원스님은 "역경을 딛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최해구, 장수정 부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네티즌 불자 '야단법석'이 좋아요

하불동 소모임 산사 특강·수련 붐

하이텔불교동호회 각 지역회가 21~28일 잇따라 모임을 갖는 등 나들이 철을 맞아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이텔불동 장애인 봉사 소모임인 칠연회는 21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2000년 전반기 전국모임을 갖고 거등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북 전남 지역회도 21일 정기법회를 겸해 해남 대흥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강원모임은 27~2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춘천 석왕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오제로 현악 4중주단의 축하 연주와 '원시불교(근본불교)의 이해'에 대한 특강, 청평사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북 경남모임은 28일 대구 삼보사를 방문, 주지 자현스님과 '신행생활 중 궁금한 점 스님께 여쭈어보기' '차와 생활속의 지혜모으기'에 대해 부담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편, 다인(茶人)들의 모임인 명등계는 6월3~4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위치한 효월수제차 밭으로 햇차를 만들러 간다. 이날 동참자들은 생잎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해 제다한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불교언론인회장 신광식씨



한국불교언론인회는 17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에 현 회장인 신광식씨〈사진〉를 재선임하고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칙은 매년 개최키로 한 정기총회를 2년에 한번, 총회 의결 정족수를 참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하는 등으로 개정됐다.

운불련 전국 체육대회

전국불교운전기사연합회(회장 박영조)는 6월18일 오전 9시 대전 상업정보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대전지역회 주관으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전지역회는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경기만으로 우승을 겨뤘던 예년과 달리 제기차기, 윷놀이, 줄넘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추가해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지역회 6백50여명이 참석한다.

스카우트불교회 윤독법회

전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7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제82회 윤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정옥 법사의 강술로 '증도가' 강의가 진행됐다.

우리 모임에선

02)2292-8502

서울시청 불심회 정기법회

서울시청불심회(회장 제타룡)는 27일 오후3시 성북동 태고사에서 서울 정기순례법회를 가졌다. 40여 명의 서울시청 불자 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태고사 종연스님이 법어했다.

철도청법우회 양로원 봉사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는 30일 시흥 혜명양로원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법우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돼 따뜻한 인간애를 전하는 것은 물론 공양 준비와 방청소 등을 도왔다.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사 설

종교단체의 면세 이유

조세정책의 형평성은 자본주의 국가를 안정적 기조 위에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하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른다면 종교단체들의 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견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발상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 단체들의 목적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조세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종교 단체들은 그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자양을 공급하며, 또 갖가지 복지 사업 등을 통하여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국가가 도맡아서 하려 한다면 종교단체들이 할 때보다 더 많은 세원을 그 쪽에 소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조세상의 혜택을 통해 종교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이득이 된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자발적인 영위는 단지 경제적 측면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큰 차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효율성 면에서도 관 주도의 사업보다 다양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가능하면 종교단체 등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정부는 눈앞의 조세 수입 증대에 매달려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조세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이 지적하는 조세 정책의 문제는 종교단체에 주는 조세 혜택이 아니라 탈세에 의한 사사로운 부의 축적이라는 것을 바로 보고 공평한 과세가 시급히 필요한 곳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 특히 불교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용이 많기에, 불교계는 오히려 부동산 양도에 의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거기에 무거운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종교계가 더더욱 올바르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정책을 편다는 대 원칙아래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원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불교단체들이 지닌 부동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기에 합당한 보상 조치들도 이번 기회에 검토되기 바란다.

6·25 온겨레 평화대행진

'화해와 평화'는 올해 한국 종교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난 3.1절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 운동'을 함께 펼쳤던 7대 종교단체가 이번에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 '온겨레 평화대행진'을 벌이려 한다. 더 나아가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구호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의 공포를 겪지 않고서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다. 지난 세기 우리가 겪었던 비극, 식민통치의 억압과 6.25전쟁 그리고 분단의 아픔은 한민족을 세계 제일의 평화희구 민족으로 만들어 왔으며, 지금 종교계가 앞장서고 있는 '화해와 평화운동'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6.25전쟁은 반세기가 지났으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인식이 깊다. 철저한 단절의 상징인 휴전선 철조망이 그렇고 상존하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그렇다. 세계사 또는 한국사 속에서 6.25가 갖는 의미와 역사성의 규명 역시 분단 상황에서는 제대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젠 그 모든 갈등과 대립을 털고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다행히 남북은 공연한 적개심만을 불태워 왔던 시기를 지나 오래 전부터 서로가 만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때로는 웃으며 빈번히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등을 돌리기도 했으나 거듭되는 만남은 그 횟수만큼 화해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마련이어서 이제 남북 정상간의 대좌를 준비하고 있다. '온겨레 평화대행진' 등 화해와 평화운동은 남쪽만의 행사가 아니다. 북한인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어서 오라' 손짓하는,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함께 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이 손잡는 그 날은 곧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한민족은 세계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저항 정신을 화해로 성숙시키고 갈등의 상징이었던 6.25를 평화의 밑거름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어쩌면 종교인들이 당연히 앞장서야 할 일인지 모른다. 대립과 저항 증오를 버린 빈 자리에 인도주의와 관용, 자비심과 사랑이라는 좀더 고양된 감정을 채워 넣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종교인들의 몫인 것이다. 불자들의 평화대행진 참여를 기대한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 논설고문

문화올림픽을 제창한다

올해 벽두 귀국하는 길에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스 일대를 돌아보았다. 이집트에는 기원전 3천5백년이래의 고·중·신 왕조의 이집트 폐허들이 남겨졌었고, 그리스도 고대의 폐허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스의 오늘은 그리스정교만이 관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올림포스산에 가지 못했다. 눈이 쌓여 있었고 길도 험악했다. 예로부터 그곳 사람들도 그 산에 가까이 가는 일에는 무척 주저한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처음 일정으로는 그 산을 꼭 보겠다 했는데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올림포스산에는 주신(主神)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산자락 어디에도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산 전체가 신전이었다.

그대신 올림피아에 가기로 했다. 그 곳도 여러 곳의 일정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내가 간 올림피아는 물론 올림포스산이 아니다. 그 산은 그리스 북쪽이고 올림피아는 서쪽에 있다. 아침 7시 아테네를 떠난 기차는 오후 2시에 도착했다.

그리스 본토에서 펠르폰네소스 반도 서북쪽이니 꽤나 멀다. 그 일대가 아테네와 대립했던 스파르타 지역이다.

코린도 해협을 끼고 아르카디아산들이 솟아있는데 평지는 올리브숲과 레몬나무 단지로 되어있다. 보리밭도 넓다.

올림피아축제 경기의 선수들이 1개월동안 기숙을 하던 곳을 지나서 종점 올림피아는 뜻밖에 적적했다.

왜 이런 벽지에 올림픽경기가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그리스 최대 경기장이 있고 최대의 조각전시장이기도 했다.

올림피아는 고대 정치와 문화에서 소외된 곳이었다. 말도 우아한 아테네 언어가 아닌, 두메마을의 거친 사투리였다. 다른 지역은 도시국가를 세웠는 데도 이곳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자연부락이었다. 사람들도 소박한 백성과 지주로 단순하게 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 지역은 이민족의 침입이나 여러 세력의 갈등이 별로 없어서 그런 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경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또한 그리스 식민지는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선수들이 모여 들기에도 좋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올림피아. 이곳이 제우스신전 축제행사의 하나로 올림피아 경기가 정기적으로 거행된 곳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근대 올림픽으로 세계적인 스포츠축제가 된 것이다.

그리스는 이 경기의 발상지라는 긍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곳의 가장 큰 항공사는 선박왕 오나시스가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창립한 올림픽항공이다. 그밖에도 올림픽 이라는 이름의 기관이나 시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고대올림픽 축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어느 날로 정해지지 않고 그때마다 시기를 정했던 것이다. 대략 8월 6일부터 9월 19일 사이의 보름날이기 십상이었다. 이것은 올림픽 주기(週期)의 태음력과 관련이 있다.

이 무렵이면 더운 여름이다. 대체로 보리 수확과 탈곡이 끝나고 포도수확도 어지간히 끝날 무렵의 농한기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름이 새해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올림픽축제가 거행되는 때는 7월과 무더위가 비껴간 때이며 지중해 항해의 적기이기도 하다. 배가 잘 다닐 수 있어야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해 여러 섬들의 선수가 모여들 수 있다.

본래 이 경기는 8년마다 열렸다. 8년의 주기가 농민이나 목축생활에서는 삶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네 10년 단위와 같은 것이다.

이 8년마다의 경기가 뒷날 4년제로 바뀜으로써 경기의 지속성을 강화한 사실이 오늘에 이르렀다.

고대 그리스올림픽이든 근대올림픽이든 그것은 승리 혹은 승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고대 그리스사람들에게는 신과 영웅들을 이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거기에 속해있기를 염원했다. 불패의 체력과 남성적인 힘, 그리고 파란만장의 역정을 찬미하는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삶의 최고형식이 되었다.

일단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고 1등을 차지하면 토지와 가축, 노예 그리고 재보를 차지하게 되고 조상의 무훈(武勳)에 버금가는 명예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는 자를 위한 경기는 몇가지 기원설을 가지고 있다. 제우스의 아들 중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간악한 아우개아스왕을 물리치고 나서 제우스를 위한 신역(神域)을 정하고 4년마다 제전을 거행할 때 여러 종류의 경기와 격투 등의 시합을 시작했다 한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아름다운 공동체 또는 협동사회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지만 인류의 생존방식 자체가 힘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적자생존의 법칙은 무자비했다.

모든 스포츠경기도 상대 또는 적을 규칙에 의해서 쓰러뜨리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언제나 이기는 자의 축배와 지는 자의 고배를 갈라놓는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경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근대올림픽의 세계대회에서 수없는 기록갱신의 영광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림픽의 개최국이었고 10위권 이내의 놀라운 성적을 국내 외에 과시하기도 했다.

외국에 나가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라는 대중적 위상이 생기기도 했고 어느새 그런 기억들이 없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스포츠경기는 아무리 고상한 운동정신으로 강조하더라도, 언제나 그 성화는 그리스신전에서부터 인도되어 오는 성스러운 제례의 불이더라도, 겉으로는 올림픽위원들의 기사적이며 신사적인 위풍이 그럴싸 하더라도, 주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고 참가국의 수상이 참석하더라도, 그 경기는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극한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긴 자의 것이다. 진 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많은 승리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우선 그들의 상대를 물리친 존재들이고 그들에게 진 선수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올라온 사람들이다. 한 승리는 많은 패배를 딛고 일어선 것이다.

이렇듯이 누군가를 싸워 이겨야만 되는 올림픽축제는 그 세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슬픈 사회원리를 반복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긴자의 것

진자에겐 관심이 없다

스포츠정신의 뒷모습

여러 문화의 만남

그 속에서의 우정과 평화

'문화의 축제'를 열자

이기는 자만이 아름다운 것, 1등만이 찬란한 것으로 될 때의 수많은 패배자들을 그 사회와 문화는 포용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나는 이러한 근대올림픽에 요구되는 인간의 의지, 기술 그리고 힘의 미학이 다른 쪽에 있어야 할,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 문화올림픽을 제창한다. 승리를 위한 이기적 긴장과 투지가 아니고도 인간은 얼마든지 비경쟁적인 우정과 평화의 고조된 축제 속에 존재할 수 있다.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없는 여러 문화가 함께 만나는 그 장려한 국제광장이야말로 새로운 천년의 문화상징일 것이다.

매학기 3000명의 신입생이 몰리는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의 저자 우학스님이 학장으로 있습니다.

① 통신 영남불교대학 T. 053)472-6268

TAPE 강의를 통한 불교의 체계적 공부(어렵지 않습니다) - 정규과정과 동일(포교사 시험볼 수 있음)

② 인터넷 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com) T. 053)564-9355

교계최초! 영남불교대학의 인터넷 과정! 새로운 강의! - 6개월 되었음(포교사 시험볼수 있음)

③ 특종교재 : '새로운불교공부' '불자수행지침서' - 도서출판 좋은인연 (e-mail:414444@nownuri.net)

매학기 전국의 많은 불교대학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불교대학 전문교재입니다. (우학스님 저)

④ 행자모집 (선착순10명) T. 011)560-5968

21C 비견, 근본불교 · 세계불교 · 첨단불교를 지표로 삼고 있는 본 영남불교대학에서 참 인재를 찾습니다.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주위의 추천바랍니다. 공부와 수행위주의 행자생활.

⑤ 불사안내 T. 053)474-8228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9월 20일 낙성식을 앞두고 7층 7보탑 대법당이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와장 한장이라도 보시해 주신다면 비바람으로 부터 부처님을 더 튼튼히 지킬 수 있겠습니다. (만불모시기, 나한모시기, 포대화상모시기, 부처님모시기 등)
성의껏 불사금 받습니다.
불교인의 자부심을 지키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 동참계좌번호 · 국민은행 : 615-01-0534-000(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 농협: 704-01-199831(영남불교대학)
· 대구은행 008-07-353722-001(영남불교대학) → 동참하신 후 연락주십시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053)474-8228

대한불교승가개혁참여 연대를 출범하면서

▣ 취지(趣旨)

1천6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는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법(正法)과 정도(正道)는 땅에 떨어지고 사마외도 들이 청정 승단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제 한국불교 특히 조계종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회생 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불교를 걱정하고 종단을 사랑하는 뜻있는 사부대중은 승가개혁의 기치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 정법 안장의 혜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승가개혁 참여 연대를 발족하여, 승단의 점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종단은 종권 야욕으로 인하여 분규가 발생, 무수한 승려가 체탈징계 등에 처해지는 등 승가가 분열되어 그야말로 조계종은 양분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3선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종단분규가 촉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종단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불교 현재의 그릇됨을 개혁하고 밝고 청정한 미래를 열고저 승속의 불자들이 함께 모여 대한불교 참여연대를 출범코저 합니다.

▣ 목적(目的)과 활동

승가개혁참여 연대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승가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며,
둘째는, 사찰운영의 합리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셋째는, 종단의 발전과 개혁 및 화합을 위하여 종단의 전 분야에 걸쳐 개혁 방안을 종단에 건의하는 운동을 벌이며,
넷째는, 한국불교의 위상과 종단발전을 위한 수행과 포교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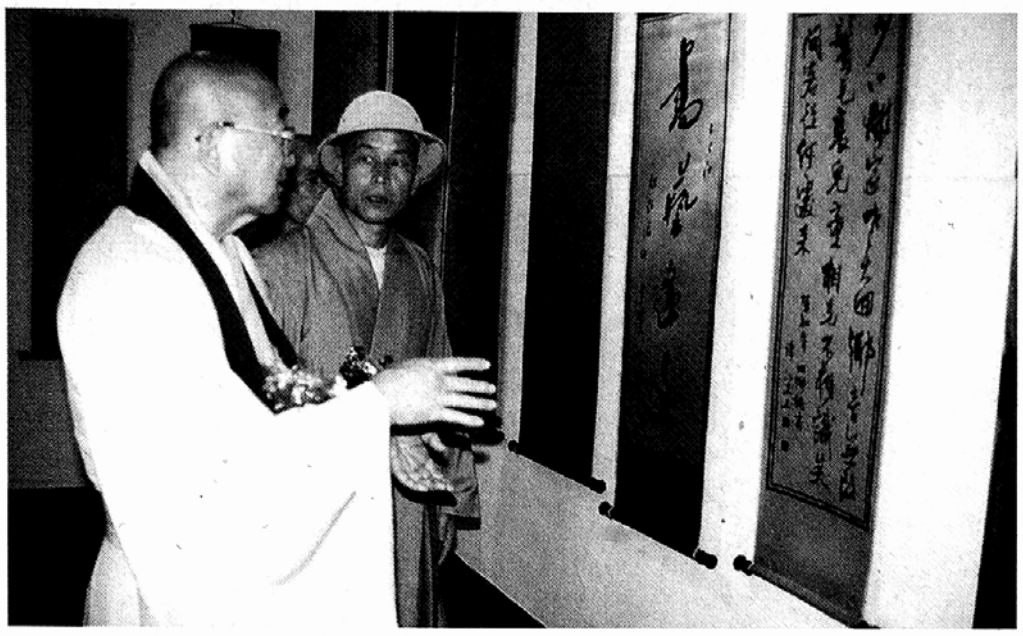
누군가는 이 승단 청정정화불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과 정의구현을 위해 뜻을 함께 할 사부대중은 기꺼이 동참하여 이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참여합시다. 지금도 제방의 선원과 토굴 그리고 강원에서, 아니면 도심의 포교당에서 수행과 교화에 진력하시는 고승대덕 스님들이시여! 저희들의 운동을 적극 성원하고 지도 편달하여 승단이 청정하여 지고 종단이 발전하는 승가개혁운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표 박 도 오
집행위원회 최 법 매
사무총장 이 치 란
대 변 인 이 선 행
자문위원장 무영스님

<자문위원>
표도철 스님 대 붕 스님 이지호 스님 박정운 스님
홍도일 스님 팽정오 스님 김동화 스님 백현초 스님
김익홍 이두석 류근복 김주호 강정기 김재홍 박미타행 이지은 노희재
권혁달 박숙희 장여현 양무착심 이상재 최명순 전용만 김영생 양위찬
고행선 김자경 선덕행 오태호 한종호

서울 종로구 청진동 251번지 상공빌딩 202호
전화 : (02) 722-5208 팩스 : (02) 722-5209
※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제보를 받습니다.
불기 2544년 5월 22일

대한불교승가개혁 참 여 연 대



◇지난 24일 송광사 경내에 문을 연 금죽헌 미술관에서 스님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찰 상설미술관에 가면…

문화도 만나고 불교도 만난다

낙죽공예품 · 탁본 · 휘호 · 고서화 등 전시품 다양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산사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다. 고즈넉한 산사의 곳곳에서 만나는 문화유산들 또한 굉소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산사에 최근 상설 미술관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24일 경내에 금죽헌미술관을 개관했다. 50평 규모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지어진 금죽헌미술관은, 사찰에 불교미술 전시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해 온 사중 스님들의 원력으로 5년만에 완공됐다. 개관 기념전으로 중국 죽편자화(竹編字畵) 대가인 은초선생 초청전과 20여년간 송광사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해 온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후계자 김기찬씨의 낙죽공예품이 전시중이다.

사찰미술관은 96년 1월 개원한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시초다. 교계 첫 사찰미술전시관으로 문을 연 불일미술관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불교미술작품을 전시해 왔을 뿐 아니라 일반미술작품까지 두루 전시하는 등, 주변의 유명 미술관과 어깨를 겨뤄왔다.

이후 백양사 고불미술관과 해인사 해인미술관이 97년 10월 나란히 문을 열면서 사찰미술관에 대한 볼자와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백양사 경내 우화루 27평을 보수 개조해 마련한 고불미술관은 그동안 탁본전시를 비롯 돈황막고굴 보살상 그림전,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휘호전, 수석전 등 다양한 테마전을 기획해 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해인사 입구에 3층 70여평 규모로 지어진 해인미술관은 3층 전시장에서 고승 서화 특별전, 불교사진전, 불교미술작가 협회전 등을 열어왔으며, 1층에는 도예교실과 전통찻집을 마련해 미술감상은 물론 여유롭게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완도 신흥사가 99년 8월 사찰 안의 전통다래헌에 구계미술관을 열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속리산 법주사도 지난 4일 산중다원 법주사문화관을 열어 산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문화의 향기를 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밖에 보성 대원사가 오는 가을 완공을 목표로 티베트불교미술관 건립 공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찰미술관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조화속에 현대불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있는 작품 유치와 홍보 등 적극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문화 단신

봉원사 단오맞이 영산재 시연

태고종 봉원사가 오월 단오를 기해 6월 6일 제12회 영산재 시연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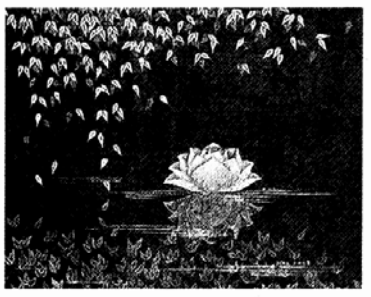
영산재는 지난 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단체지정된 이후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스님) 주최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돼 왔다. 이날 법회에는 인간문화재 영산재기능보유자 제50호 일응스님을 비롯, 준보유자 구해스님, 교육보조자 일운, 기봉, 송강스님이 직접 의식집전에 참여한다. 또 이수자, 전수생, 준회원,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해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02)392-3007

불교음반 전문사이트 개설

불교음악 감상은 물론 불교음반 구매와 주문이 가능한 전문 사이트 'Buddhist Music'이 최근 개설됐다.(www.buddhistmusic.co.kr) 불교음반 전통유통업체인 송강기획이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유통되는 1천5백여종의 불교음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담겨 있다. 최근 불교음악계의 소식을 모아 놓은 소식란과 박범훈 교수의 불교음악강의도 제공한다. 또 새로나온 음반, 추천음반을 통해 최근의 음반현황도 알아볼 수 있으며, 각 장르별 대표 음반에서 발췌한 불교음악을 MP3 파일로 다운받을 수 도 있다. (02)745-6015

가볼만한 전시회 3題

고영을 탱화전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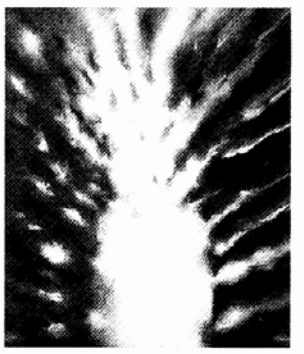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통적 탱화 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서양화 물감으로 탱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불화가 고영을씨가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탱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 '아름다운 세상'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천연염색을 한 비단에 금니로 표현한 '아름다운 세상'을 비롯 소나무로 관을 짜고 천을 씌워 아크릴로 그린 대웅전 외벽 벽화 '극락회상도', 실크스크린, 동판화 등으로 표현된 탱화 등 2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표현상의 기법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탱화 그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서울 전시에 이어 6월 7일~13일에는 부산 부일갤러리에서, 7월 1일~7일에는 대전 시민회관 별관에서 전시를 갖는다. (02)720-5114

만다라 40년의 오늘-전성우전



캔버스에 유화, 거기다 다분히 추상주의적으로 표현된 만다라. '21세기 새로운 만다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까'하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독특한 만다라 전시가 열리고 있다.

40년간 만다라의 세계를 탐색해 온 전성우 화백이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개관 기념전으로 6월 4일까지 '만다라 40년의 오늘-전성우 전'을 갖는다.

간송미술관 설립자이자 부친인 전형필 선생의 영향으로 젊은 시절 만다라 연구에 몰두, 미국 밀즈 대학에서 유학한 전 화백은 65년 화갑(華甲)만다라 발표 이후 회전만다라, 운경만다라, 광배만다라로 변모해 오면서 독특한 만다라의 세계를 구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90년대 이후 전 화백이 화두로 삼은 청화만다라 연작 등 평면작품 30여점과 부조 15점, 오브제 7점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청화만다라는 전 화백이 청화백자의 푸른색상의 이미지를 본따 갖가지 형태로 변용한 것으로 기존 만다라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만다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보인다. (02)734-1020

상기호씨 '한지공예 어제와 오늘'



98년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한지와 삼베를 주재료로 불상을 만들고 옻칠해 도금한 불상인 건칠지불로 대상을 수상했던 공예가 상기호씨(오색한지공예연구회 회장)가 3년만에 전시를 갖는다.

'전통오색 한지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오색한지공예연구회 회원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26일~6월 1일까지 서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상씨가 제작한 건칠지불 3점과 오색한지를 주재료로 만든 색실상자, 팔각 받짇고리, 찻찬과 과반 등 연구회 회원들의 다양한 한지 공예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상씨가 지난 10년간 수집해 온 조선시대 한지공예유물 100여점이 전시돼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지 공예 유물 중에는 종이를 꼬아 사경한 독특한 형태의 반야심경과 병풍, 예단함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전통 한지 공예품도 접할 수 있다.(02)548-8981



◇한용환교수는 우리사회의 문화현상을 내러티브로 조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연구저널 '내러티브' 창간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한용환 교수

"내러티브=이야기"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독특한 형태의 만남을 시도하는 등 문화의 틀 자체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 이러한 문화현상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 있는 국내 최초 전문 서사연구저널 〈내러티브〉가 최근 창간됐다. 반년간지로 발간될 〈내러티브〉의 편집인 동국대 한용환교수(국어교육)를 만나 현재의 문화현상과 내러티브의 상관관계에 대해 물었다.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다. 삶의 모든 내력이 바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정착될 때 소설이 되고, 연극이 되고, 또 영화가 된다. 오늘날 선보이는 광고도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런 모든 것이 내러티브다.

-내러티브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 장르들은 대부분 이야기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야기가 폭주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서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20세기 후반부터 서사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야기에 관한 단순한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학의 제반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학문임을 통찰한 결과다.

-반년간지 〈내러티브〉가 추구하는 바는?

〈내러티브〉는 대중 소비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다양한 서사물의 성격과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개의 이야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이야기로 돌러싸인 세계를 보다 명쾌하게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이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열린 자세로 참신한 견해와 조언을 포용할 것이다.

-불교 경전이나 설화도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내러티브는 종교적 전통을 오늘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 또한 크다. 따라서 불교의 경전과 각종 설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이은자 기자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 바친 공주는
끝내 천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성불한다.

신비와 전설에 담겨 1천여년을 비전(秘傳)으로 내려온
눈물과 감동으로 읽는 관세음보살 성도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소설 정찬주 편역

아, 관세음보살



동쪽나라
100-380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 Tel:2263-1941(代)/Fax:2263-1946

변형국판/206쪽/값 5,000원

서점가 달라이라마 '열풍'

강연록·명상록 등 잇달아 번역

기존 출판물도 인기…방한 가능성 영향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에서는 이미 달라이 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들어 그의 강연록이나 명상록을 담은 책이 잇따라 우리말로 옮겨지는가 하면, 예전에 출간된 책을 찾는 독자들의 손길도 부쩍 늘고 있다.

도서출판 문이당은 98년 미국에서 출간된 달라이 라마의 명상록 〈평온으로 가는 길-일일 명상(The Path to Tranquillity-Daily Meditations)〉을 우리말로 옮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를 펴냈다. 365개의 짧은 단상들이 일기 형식으로 묶여진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인류와 나누고자 하는 평화와 자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자비심이란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명상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러한 삶의 지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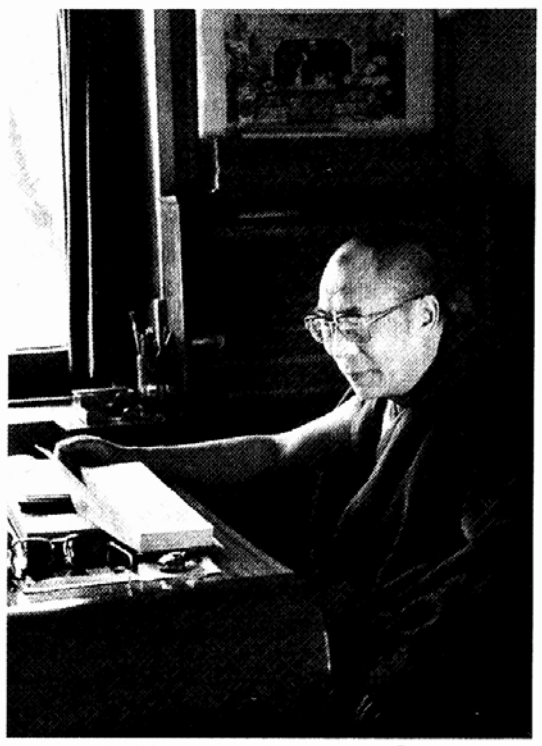
이에 앞서 출간된 〈아름답게 사는 지혜〉(정우사)는 달라이 라마가 93년 5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성당에서 강연한 내용을 옮겨 엮은 것이다. '티베트에서 온 자비의 힘'이란 부제로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또 육바라밀과 연기법, 그리고 공사상 등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군비 축소, 인구 조절 등 인류의 당면과제와 티베트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그의 입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출간돼 화제를 모았던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나무심는사람)와 〈달라이 라마가 설법한 37가지 수행법〉(정우사)도 다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위즈덤 출판사에서 〈선한마음(The good Heart)〉으로 출간된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는 94년 9월 영국 런던 미들섹스대학에서 개신교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약성서 4복음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다. 〈달라이 라마가 설법한 37가지 수행법〉은 74년 보드가야에서 티베트 불교수행의 입문서 〈보살의 37수행법〉을 3일 동안 설법한 내용이다. 즉 이 책의 핵심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이 닦아야 할 마음가짐과 수행법이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기별 수행법을 재미있게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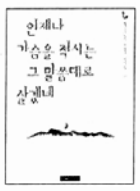
이밖에도 〈아, 달라이 라마 지혜의 큰 바다〉(동쪽나라),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서울출판), 〈달라이 라마, 티베트에서 온 편지〉(혜음), 〈티베트 나의 조국이여〉(정신세계사),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예문당) 등이 나와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1935년 티베트 타스커에서 태어난 텐진갸초는 1940년 달라이 라마에 즉위, 1989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새로나온 책



▲언제나 가슴을 적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네(법성 스님 지음, 지혜의 나무)= 스님이었던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 48세에 불문에 귀의한 이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법성 스님이 미수를 앞두고 펴낸 자전적 고백록. 스님의 인생역정을 진솔하게 싣고 있는 이 책은, 수행과정에서 듣고 배우고 또 직접 실천한 법문 등으로 엮어 읽는 이에게 삶에 대한 감동과 부처님의 진리를 얻게 한다. 값 8천원.



▲머무는 곳 없이(고산 스님 지음, 들녘)=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 스님이 예로부터 전해지는 설화들을 바탕으로 삶의 진리를 탐구한 책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선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즉 선을 단순한 명상술로 여기거나 불교신자들만 근접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등의 잘못된 해석들을 짚어내고 있다. 값 9천원.



▲선암사(이계표, 현득염, 최인선 공저, 대원사)= 유명사찰을 꾸준히 소개해 온 대원사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 사찰편 12번째. 선암사의 대표적인 철불과 보탑, 그리고 부도 등의 유물을 비롯 현존하는 42동의 건축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특히 사계절 풍경을 담은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값 4천8백원.



▲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박준영 지음, 동학시인선)= 시인 박준영(SBS 기획편성본부장)씨의 시집. 불교에 기초한 동양적 사유가 그의 시 곳곳에서 드러난다. 무(無)와 공(空)의 사상을 빌어 구현한 인간과 삶, 세계와 우주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가 그것이다. 즉 인생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사유가 그의 시 내면에 흐르고 있는 뼈대이다. 5천원.

▲한 생각 바꾸면 이렇게 편한 것을(성재도 지음,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과 옛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권할만한 가르침을 골라 모은 명상집. 값 5천원.



▲사람의 여자(정명혜 지음, 다지리)= 이 땅의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중광 스님의 예술세계를 열어준 박혜련 씨, 병신춤으로 널리 알려진 공옥진 씨, 광주학생운동의 기폭제인 소녀회를 결성했던 박옥희 씨 등 25명의 어머니들 삶이 2부로 나눠 소개돼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내 어머니 같고 이웃집 어머니 같은 우리들의 어머니 이야기이다. 값 7천5백원.



일본 선방생활 엿보기

'선방의 아침'

입문부터 총림행사까지

일본의 선방(선당)생활을 찬찬히 살필 수 있게 하는 〈선방의 아침〉(들꽃누리)이 나왔다.

이 책은 일본의 선승 좌등의영 스님의 선방일기로 선당 입문부터 총림의 연중행사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방의 일상을 그린 96장의 삽화도 들어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한다.

일본에서 선종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종문이나 일반 학교를 졸업 후 반드시 총림에서 좌선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입문과정부터 만만치 않다. 입방 원서와 서약서들을 총림에 제출하고 현관에 끓어앉아 입방을 간청한다. 이때 총림에서는 "여러 면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돌아가 주십시오"라며 서류를 되돌려 준다.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된다. 무릎 꿇고 계속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루정도의 출입시험과정이 끝나면, 또다시 뜰에서 끓어앉기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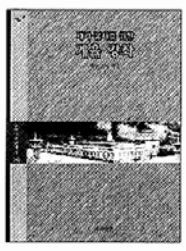
이 과정을 거치면 객실로 들어가 벽을 향해 좌선을 해야 한다. 이는 지루함과 고독과의 싸움이다. 선승들이 이보다 더 긴장하는 것은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시선이다. 선방생활을 하기 위한 5일 여 동안의 과정은 '입문 작법'이라 불릴 정도로 엄격하다.

일본 선당의 하루는 용맹정진(대절심)이외에는 낮에는 노동이나 탁발을 하고, 남은 시간에는 경전을 본다. 오후 3시를 방참(放參)이라고 하여 모든 일과가 끝난다. 취침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는 자유시간이다. 외출도 가능하다. 또 2·5·7·10일에는 강의, 1·3·6일에는 탁발, 4·9일에는 삭발하고 청소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지계는 수행 첫 단계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지계는 수행의 첫 단계이자 깨침을 향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재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생활불교편 두번째 권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는 '계율'의 참된 의미와 재가불자들이 지켜야 될 여러 계율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답하고 있다.

모든 계의 기본인 삼귀의계를 비롯 오계, 팔관재계, 십선계, 보살계 등을 재가 불자의 윤리적인 측면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했다. 또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비롯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등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도 수록해 지계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이 엮은 이 책은, 재가자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신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엮자의 말처럼 불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도적들을 대비해 집 주위에 담을 치는 것과 같다. 불공을 올리고 기도하는 일도 불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자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깨침의 첫 걸음인 지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계생활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 책은 그 숙제를 푸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젊은 시인 14명의 사찰에세이 '시인들이 절에가면'



시인들의 시심 속에 깃든 산사(山寺)를 수필로 풀어낸 〈시인들이 절에 가면〉(프레스21)이 나왔다.

이 책에는 신현림, 장석남, 원재훈, 이홍섭 등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중반까지 등단한 14명의 젊은 시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부석사, 낙산사, 실상사, 감은사 등 한국불교의 법향이 녹아 있는 고찰들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사찰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시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과 독특한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즉 젊은 시인들에게 있어 사찰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시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짚어 볼 수 있게 한다.

시인 권대웅 씨의 에세이 '전등사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를 보자.

"삶 자체가 불투명하고 막막하고 내가 낯설고 불안해질 때, 나는 내 마음에 지은 고요한 절 하나를 꺼낸다. 내 마음의 법당에 엎드려 나에게 3천 배를 하다 보면 3백 배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새 평정이 찾아온다." 권 시인에게 있어 부처님과 수행자 그리고 신도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이다. 물론 사찰도 그의 마음 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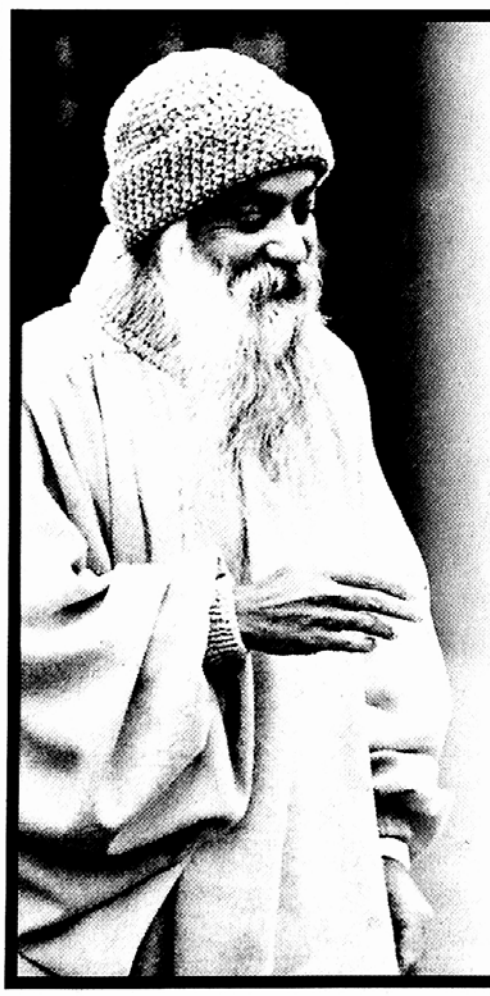
이밖에도 이 책에 실린 글 속에는 젊은 시인들의 삶에 자리잡은 '사찰'이라는 공간이 의외로 넓고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6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 열 권	불 광
7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8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10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불교학연구회 발족

열린 학문마당 '희망'

역사·사상·어문·예술 전공자 다수 참여

학제간 연구 활성…불교학계 쇄신 기대



◇소장 불교학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창립총회 모습.

한국 불교학계에서는 언제쯤 국제적인 학술단체를 배출할 수 있을까. 1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불교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불교·어문·예술·역사학자 50여 명이 모여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스님·이하 연구회)를 창립해, 이 같은 바람에 대해 적잖은 기대를 품게 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학회·한국사상학회 등이 국내 불교학 연구를 이끌어 왔지만, 동국대·원광대 등 대학 내 특정 학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연구의 옥석을 가리는 토론이나 학제간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소장 학자들의 지적이었다.

30여 년간 국내 불교학계를 이끌어 왔던 한국불교학회의 경우 5백여 명의 학자들이 회원으로 있지만 학회의 '동국대 수성(守成) 논리'로 인해 폐쇄적·권위적·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 연구를 보편적 학문의 지평에서 수행해 나갈 것 △학문적 배경이나 나이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학문마당이 될 것 △다른 불교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발전을 지향해 나갈 것 등을 표방한 연구회는, 학연·수성 논리만 팽배해 있는 현 불교학계를 일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 신임회장 해주 스님은 "열려 있는 학회를 지향하겠다"며 "세계의 불교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국내 불교학계의 안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주 스님은 '교학 분야'뿐만 아니라 '불교역사·사상 분야', '불교어문·예술 분야' 등으로 연구회를 세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고, 불교관련 타 학회와의 '확대 학술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전국에서 2백여 명의 교수와 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연구회의 이 같은 운영 방침이 학계 내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회는,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소속 학회에서 독립해 창립됐다. 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종교학회 불교분과는 그 동안 '1인 발표 2인 논평' '동·하계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 기존 불교학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불교학계의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불교분과 소속 교수·학자의 연구 성과물을 엮은 〈불교학연구〉의 발간·배포하면서 한국종교학회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종교학회 내에서는 순수한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과 소속 교수들의 판단에 따라 '불교학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방 대학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한 강사는 "연구회가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학계의 중추 역할을 충분히 해내길 기대한다"며 "작은 힘이나마 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불교학계의 쌍두마차 시대가 왔다"며 연구회 창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한국불교학회와의 차별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주제와 소속 회원의 중복을 피하는 묘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제정 및 회장단을 선임한 데 이어, 학술강연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종범 스님의 '불교학 연구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전남대 이중표 교수의 '21세기 불교학 연구의 방향'이라는 논문이 각각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 공동체 건강센터

조파 린포체의 호스피스 활동

티베트 스님이 인도 보드가야에서 호스피스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인도인들에게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부처님 공동체 건강 센터'(Shakyamuni Buddha Community Health Care Centre)를 클릭하면, 화제의 스님 조파 린포체(Zopa Rinpoche)를 만날 수 있다.

1991년 부처님의 성지 보드가야를 순례하던 조파 린포체는 죽음에 임박한 거리 유랑자들을 돌보았던 게 계기가 돼 건강 센터를 개원했다. 이 센터는 인도의 비영리 호스피스 재단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훈련은 물론 유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에도 노력하는 등 인도에서 호스피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조파 린포체(52)는 "우리의 수행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돌보는 것이며, 죽음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은 일상의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건강 센트는 최근까지 곪주림과 열병 그리고 암 등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인도의 유랑자들을 주로 돌보아 왔는데, 현재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HIV' 서비스를 신설, 에이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사이트는 '문헌 정보'와 '패러다임' 서비스를 개설해 놓고,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 생활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geocities.com/Athens/Delphi/7733/health-care.html

"현대 물리학은 부처님 손바닥"

양형진 교수 '선과 과학의 평등과 차별' 발표



"현대 물리학의 세계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말이지만, 사실 그 진위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심 두터운 물리학자의 친절한 설명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다.

양형진(고려대) 교수는 20일 열린 한국선학회의 월례발표에서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를 발표하고, "우주의 근본 법칙인 뉴턴의 만유인력은, 사과와 달과 같이 크기와 형상이 다른 모든 사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것은 중도라는 틀에서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과학은 겉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세계의 존재 구조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차고 기우는 달이 동일한 운동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직관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끌어낸 것이 물리학이라면,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존재들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무한한 상호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연기론이라는 보편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 불교이다.

'불생불멸' 역시 미립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고 그 양성자들이 원자핵을 이루고 원자핵이 원자를 이루며 다시 원자가 모여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를 떠나 달리 어디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양 교수는 액체→기체→고체→액체 등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기를 통해 '부증불감'을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 '중도' '불생불멸' '부증불감' 등 부처님의 세계관을 물리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양형진 교수는 "천만 가지 차별의 상이 모두 뚜렷이 존재하면서도 참으로 평등한 자리"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은 몽고 인종 티베트-미얀마계"

조준호씨 '석가모니 인종적 기원' 발표



부처님은 어느 인종에 속할까? 20일 열린 한국불교학회의 제33회 춘계발표대회에서 조준호(동국대 강사) 씨가 '석가모니 붓다의 인종적 기원'을 발표하고, 경전을 토대로 이 물음에 해답을 제시해 화제다.

부처님에 대한 인종학적 접근은 주로 서구 학자들이 시도하그 있는데, 이들은 인도-유럽계·드라비다계 등 인도 역사를 이루어 온 인종에 주목하고 있다. 조 씨는 초기 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마누(Manu) 법전 등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반박하고, "부처님은 몽고 인종의 티베트-미얀마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에 따르면 마누 법전과 초기 경전에 나타난 리차비족과 말라족은 석가족과 함께 인도의 토착민인데, 〈불본행집경〉에 나타난 리차비족의 장례 풍습이 티베트의 것과 일치하고 있어 '몽고 인종' 설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례 풍습은 아리야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초기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시타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시타림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수행처로, 새나 짐승들이 사체의 살을 먹고 난 후 인골이 흩어진 장소였다. 현재에도 이 풍습은 티베트계 부족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 씨는 초기 경전에서 리차비족의 후예로 등장하는 마가다(Magadha)의 니수나가(Sisunaga)와 그의 아들 카라소카(Kalasoka)가 검은 피부였다는 문헌 자료를 찾아냈다. 카라소카는 불교의 제2결집을 지원했던 왕이다.

오종욱 기자

'21세기 문화변동'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는 6월 9일 오전 10시 한국방송통신대 별관 세미나실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화 변동'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 세계에서의 과학·예술·철학·종교 등의 변화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에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이상하·고려대 강사), '컴퓨터 게임과 영상예술'(김응남·사이오넥스 게임스토리 작가), '존재, 공간 그리고 가상공간'(소홍렬·포항공대 교수) 등 14개 논문이 발표된다. (02)797-0585

염불신앙결사의 역사성

한국정토학회는 6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정토사 극락전에서 '염불신앙결사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광(동국대 교수) 스님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염불행자의 믿음'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초기 정토 신앙'(태원 스님), '신라시대의 염불결사에 대하여'(김영미), '고려시대 원묘요세의 염불결사'(채상식), '일본의 염불신앙의 전개와 그 의의'(강동균) 등이 발표된다. (0342)723-9798

학술단신

'원효연구' 제4집 발간

원효학회는 〈원효학연구〉 제4집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원효의 '본업경소 연구'(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원효의 중위분별론소에 관한 연구'(이만·동국대 교수),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 분석'(최성열·조선대 교수) 등이 실려있다. 또한 스님 저서의 바른 이해를 위해 '고증목록'과 '참고목록'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0561)742-9922

진각논문대상 당선자 발표

진각종은 제2회 진각논문대상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총 13편의 논문이 응모된 이번 '진각논문대상'에는 오경후(동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씨의 '범해 각안의 고대 불교사 연구에 관한 검토', 김진무(중국 남경대 철학과 박사과정) 씨의 '위·진나라 시기의 현학과 반야학의 관계 연구', 이종복(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씨의 '까말라실의 중관사상연구' 등 불교분야에 응모한 논문 3편만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진각종은 10월중 논문발표회와 시상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02)913-0755

동악미술사학회 정기답사

동악미술사학회는 6월 3일 서울 소재 고건축을 대상으로 제1회 정기답사를 실시한다. 조훈철(동국대 박물관 연구원·한국건축사 전공) 씨의 안내로 진행하는 이번 답사는 경복궁 등 조선시대 궁궐의 진면목을 살피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고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실시되는 동악미술사학회의 정기답사 2000년도 하반기 일정표는 추후 공개된다. (02)2260-3463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금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우시여! 원하시는 분은 속히 주문하시어 인연하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연꽃향기도 몰래 맡지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9〉

오계상경-13

훔친 업보로 고통받고 가난해져
악한 도둑 다음생에 축생될수도

△원문

또 세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취하는 것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첫째 스스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남을 시켜 훔치는 것이고, 셋째 사람을 보내 훔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훔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고, '남을 시켜 훔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며, '사람을 보내서 훔친다'는 것은 보낼 사람에게 먼저 훔칠 물건이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보내서 가져 오도록 해서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 또 다섯 가지 다른 사람의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있으니 범하면 참회할 수 없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훔치는 것이고, 둘째 가벼이 훔치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하여 훔치는 것이고, 넷째 강제로 빼앗는 것이며, 다섯째 말았다가 갖는 것이다.

△강의

도둑질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율장에서는 5전(錢) 이상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취하면 중죄(重罪)로서 참회할 수 없다 하였다.

〈무량수경〉에 16라한 가운데 한 분으로서 계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해탈제일 교범바제 존자의 본생담이 전해지고 있다. 교범바제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공양을 하고 나면 소가 새김질을 하듯 계속 트림을 하며 음식을 다시 씹어서 삼키곤 했다. 보다 못한 비구들이 주의를 주었으나 고쳐지지 않으므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교범바제의 본생을 말씀해 주셨다. 교범바제는 과거세에 비구였는데 걸식을 하러 가는 길에 조밭에서 조 한 이삭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탐스럽게 영근 것을 살펴본 뒤에 바로 놓아 두었다. 그러는 중에 몇 알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남의 조를 허락없이 함부로 떨어뜨린 과보로 5백세 동안 소가 되어 그 빚을 다 갚았다. 그 뒤에 사람의 몸을 받았으나 5백세 동안의 소의 습이 남아 있어 소의 새김질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인과는 출가자에게든 재가자에게든 털끝만큼도 사사로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잡아함경〉에는 출가 수행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전하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한 비구가 눈병이 나서 조용히 연못가를 경행하면서 마침 아름답게 피어있는 연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향기에 취해 있었다. 그 때 연못의 신이 나와서 비구에게 말했다. "어찌 조용히 좌선하는 일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향기를 훔쳐가는 도둑이 되었는가?" 비구가 놀라서 말했다. "연못을 허물거나 빼앗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가?" 연못 신이 말했다. "구하지 않고 가졌으면서도 어찌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 때 마침 속인 한 사람이 오더니 연못에 들어가 꽃을 꺾고 뿌리를 파내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고 비구가 말했다.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는 꽃을 꺾지 못하게 하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막지 않는가?" 연못 신이 말했다. "세간의 나쁜 사람들은 죄악의 똥물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것과 같아 내가 함께 말할 것이 못된다. 마치 악인은 검은 옷과 같아서 비록 검은 점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거니와 누가 검은 옷에 검은 점이 묻었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선(禪)을 닦는 수행자인데 이런 향기에 집착하니 그대의 선을 닦는 좋은 일을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 올바른 수행자의 털끝만큼의 작은 허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태산처럼 크게 여기나니, 그대는 항상 청정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비구는 연못 신의 말을 듣고 오로지 좌선에만 전념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여기서는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를 함부로 맡으며 집착하는 것도 훔치는 것이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율장에서는 도박을 하다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패를 바꾸어 5전 이상을 따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여행할 때에 차비를 내지 않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가 되므로 참회할 수 없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는 삼악도의 고통을 받고, 이 업보가 다하여 다시 사람이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는다. 첫째는 빈궁해서 옷으로 몸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며, 둘째는 물·불·왕·나쁜 도적의 겁탈을 받아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결국 훔치는 행위는 자신의 복덕의 종자를 끊는 것이므로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다음생에 축생의 가죽을 쓰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화합의 오월 민주정신 남북통일로 이어지길"

법회증계

5·18 영령천도재

〈2000년 5월 17일〉



성호스님
〈관음암 주지〉

서로 가슴열고 용서하여
지역감정 빈부격차 없고
고통없는 불국토 만들자

밝고 텅비어 한점 걸림없이 한 번 몸을 던지니 얼마나 자유롭소.

그대 영령들이 가신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 그 함성은 추모의 대서사시로 이어지고 금남로에 펄럭이던 그 깃발은 여기 이렇게 추모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영전에 가득 찼습니다.

태어남도 태어남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니며, 있지 아니하되 있고, 없지 아니하되 없으니 죽음으로써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 영원히 살아있는 영령들의 정신, 5월의 정신은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5월의 정신이 살아있으므로 영령들이 사는 것이며, 우리들의 정신이 죽으면 또한 그대들도 죽는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가장 값진 터전을 일구어 놨으니 그것이 '5월의 민주주의'입니다. 영령들의 대승적 삶이 질곡된 역사의 물꼬를 터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평화스럽지 못했습니다. 근대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국지사가 그 얼마나 죽었습니까. 나라는 빼앗기고 민족정기는 말살되고 압박과 설움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우리는 또 강대국의 정치적 논리와 지배야욕으로 남북이 갈라졌고, 6·25 전쟁을 겪는 동안 동족상잔의 비극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포의 총탄과 탱크 앞에 학살된 양민과 그로 인한 이산가족은 또 얼마입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은 이땅에 민주의 시대를 일구어 놓은 무진골의 형제입니다.

이 광주에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영령들이시여, 그 날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용기는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역감정, 소아적인 정치논리, 부정부패 빈부격차, 정권야욕도 영령들의 값진 희생정신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이 5월의 원융화합의 민주정신으로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한달 후면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이 시대 우리의 역할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이 민족의 화두입니다.

우리는 상생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벗어놓고 서로서로 가슴을 열고 용서할 것입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하여 지난 원결(怨結)을 풀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위는 허공에서 일어나는 허환(虛幻)입니다. 이 허망한 현상에 너무 집착되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령들이여! 지금 시대는 각기 떠나고 영식(靈識)만 홀로 들어났소. 영지(靈智)는 거래에 관계없이 시방세계에 노니나 자취가 끊어졌으므로, 산하대지에 막힘없고 육도윤회에 자유로이 왕래하니 이것이 무엇인가, 한 생각 놓아 집 밖으로 뛰어넘으니 화탕지옥도 시원하리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대승적 삶을 살다 간 5월 영령이시여, 날 때는 한가닥 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멸할 때는 맑은 못에 달 그림자 잠기듯 하니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가는 데 걸림없으니 오월의 영령은 어느 곳에 머무는가.

세존께서 한 송이 꽃 상근기(上根機)에 보이시니 금빛 두타 빙그레 미소짓고 달마는 면벽한 채 날카로운 상근기 맞으니, 팔 끊는 신광(神光)은 눈 속에 서 있도다. 5월의 영령은 이 또한 어떨 것인가? 5월의 무등산에 해가 더욱 솟아오르고 망월동산의 영전에는 꽃이 가득하구나.

정리=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뿌리

세계의 불교학 〈19〉 프랑스 ②

미셸푸코·데리다 등 空사상 심취
탈중심적 사유 연기사상과 접목



◇야회 대중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프랑스 불자들.

전 세계적으로 언어·문학·예술·철학·정치·사회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스며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이 사상의 중심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등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새로운 사유의 틀로써 선택한 등양, 특히 불교사상이 있다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주 중심으로서의 신(神), 세계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현상들을 설명하여 주는 영구불변의 틀로서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런 것들이 영구불변의 자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중심들이 허구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프랑스 불교학계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불교, 특히 나가르주나의 공(空)사상과 접목시키려는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미셸 푸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불교 사상으로 서구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 중에서 1968년에 출판된 텍스트들은 불교와 나가르주나의 공(空)사상 체계와 유사한 국면들을 보여준다.

또 데리다는 자신의 철학과 불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첫째 부자(독성이 강한 한약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듯이 약이면서 독이기도 한 파르마콘(pharmakon)에 대한 데리다의 사유는 불교적인 논리를 보여준다.

참/거짓, 선/악, 본질/가상 등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파르마콘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에 나타나는 색(色)과 공(空)의 동거 그 자체다. 둘째, 파르마콘은 상호 이질적인 것을 수용해 '차이'를 형성하고, 그 차이가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이 과정에서의 끊임없이 수용하고 차이짓기를 하는 것은 불교의 연기사상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지적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불교의 핵심 교의인 연기설과 불이불(不二不) 사상과 접맥시킬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통찰이다.

이와 같이 불교 사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을 들여다보려는 프랑스 학자들의 시도들은 대체로 나가르주나의 사상과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리다의 사상에 대해 불교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로버트 매그리올라는 그의 저서 〈수리 중인 데리다〉(1984)에서 "현대인은 데리다 없이 나가르주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나가르주나는 데리다의 선구이고,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의 사상적 원천이라는 말이다.

불교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읽기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것은 불교의 공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연기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불교의 중심철학은 나가르주나의 중관사상이며, 중관사상의 핵심은 연기설인 것으로 널리 지적되고 있다.

포스트모던적 사상의 주요 배경을 제공하는 푸코의 계보학, 데리다의 해체철학의 핵심인 텍스트 이론,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론의 집중적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 관념론 철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리의 일관성 이론과 사실들의 상호의존 이론에 나타나는 연기론적 국면들과 이들이 가지는 포스트모던적 의미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로 연기설을 통해 얻어지는 공(空) 사상은 탈중심적, 탈자성적 포스트모더니즘 사상들의 진정한 요체가 아닐까.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쇗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0년 6월 5일까지
◆개강일시 : 2000년 6월 5일 오후 5시 정각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2000년 제 1기 摠摩禪法
자감(自感) 영통법사 교육 (전국지역지부지회 모집)

道理는 相生이며 道術은 弘益이니
達磨禪法으로 도를 覺하고 五行變化로 도리를 究하며
千手觀音으로 도술을 得함이 三尊修行이라
古往今來 병을 물리치고 마귀를 쫓으며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治万을 수행의 요체라 하니
살아움직이는 달마선법의 벼락 같은 비법을 전수코져 함이라 -白常 禪師-

【특 전】
· 연수 및 분기별 교육예정
· 각 과정 수료시 지도법사 자격증 수여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해외 법사 위촉 및 해외 활동지원
· 각 지역 지부장 위촉 교육지도 할수 있음
· 본연합 연대사업 적극 지원
· 장묘문화(화장, 납골) 사업
· 민박-세계관광 연대 사업
· 각종 사찰 불사사업 지원

【해외지원】
CIOI 중국(장백, 연길) JIOI 일본(도쿄, 하까다)CAIOI카나다(알브타)

【국내지부지회(대모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 진주, 울산, 마산, 포항, 경주, 청주, 대도시 및 소도시

◆접 수 방 법: 이력서(사진첨부), 간단한 자기소개서 우편접수 및 팩스로 접수 하여야함
◆ 기 간 : 2000 수시 접수 가능함 (1차 2000.6.20까지)
◆1차교육수련회비: 30만원
◆계 좌 번 호 :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이 민택
※ 이력서 : 자기소개서,교육 수련회비, 입금표 접수한 분에 한하여 면접 상담 후 지역 지부장으로 추대코져함

세계 상생운동연합 부설 달마선법 세계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전화 053)982-4976 팩스 053)983-9223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蔯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시방세계

장업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찰 이정표
전설고등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찰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회계관장 포맥스
사무회계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항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cm×10cm)



◇선암사 야생차밭에서 자란 연녹색의 찻잎은 새벽이슬을 머금고 빛을 발한다.

我今淸淨水(아금청정수)
變爲甘露茶(변위감로다)
奉獻三寶前(봉헌삼보전)
願垂哀納受(원수애납수)

저는 지금 맑고 깨끗한 물로
감로의 차를 만들어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에 올리오니
부디 어여삐여겨 주시옵소서.

24일 새벽 네시. 도량석 목탁소리와 범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리자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 대웅전에서는 50여명의 대중스님들이 새벽예불을 올리기 시작했다. 새벽예불은 먼저 삼보전에 정성들여 달인 차를 올린다는 다게(茶偈)의식으로 시작됐다.

예불 후 도량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5월초 처음 찻잎을 딴 뒤 그 동안 차밭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애타게 기다려온 2번째 찻잎을 따는 움직임을 하는 날인 것이다.

청명한 날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는 차를 최고로 치기에 산내 대중들은 서둘러 차밭에 모였다.

칠전선원 뒤 1만5천평 야생차밭에는 연록색의 찻잎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빛을 발한다. 차밭에 모인 대중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반배를 올린 뒤 한잎한잎 정성들여 찻잎을 딴다.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선담 나누는 것에서 수행속의 즐거움을 찾는다.

선암사의 차는 중국과 일본의 다인들에게 알려져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 이름이 높다. 이는 야생 상태로 자란 찻잎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차를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인 데 있다.

스님들이 직접 차를 따고 가마솥에 볶아내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은 물론 구증구포라 하여 가마솥에 9번 볶고 9번 말리는 수고로움도 기꺼워하며 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9번 볶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혜우스님(선암사 재무)은 "한약에서 숙지황도 9번을 볶는 것처럼 본래의 차 맛을 살리면서 식물에 있는 독을 서서히 중화시키는 것"이라며 "덖음차는 차의 여린 잎을 따서 가마솥에 덖어 엽록소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녹차라고 한다"고 말한다.

선암사의 차 만드는 전통은 옛 스님들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밭에서 따온 찻잎은 짚으로 만든 멍석 위에 가지런히 펼친다. 이어 곧바로 200~300도로 달궈진 가마솥에 찻잎을 덖는다. 찻잎을 재빨리 뒤집고 살짝 눌렀다가 다시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며 찻잎을 고루 익히는 것이다. 이때 녹차 향기가 느껴지고 즐기가 익으면 찻잎을 퍼낸다. 그런 다음 찻잎을 전통한지에 10여분간 말린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되면 엉킨 찻잎을 손으로 일일이 푼 뒤 찻잎이 으스러지지 않게 비벼 나간다.

선암사 · 다솔사 등 야생차밭 유명

혈압상승 억제 체내 중금속 제거

다시 가마솥의 온도를 100도 70도 50도로 점점 낮추면서 볶은 뒤 엉킨 부분을 풀어주고 비벼대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런 사이 찻잎의 색깔은 어느덧 녹황색이 되고 모양은 새의 혀처럼 둥글게 말려진다. 그래서 녹차는 작설차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렇게 8번을 볶은 뒤 마지막으로 1시간여 동안 옅은 불의 가마솥에 찻잎을 뒤적거리며 가양처리를 하면 차가 완성된다.

이순간을 혜우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차를 뒤집을 때 싸그락 싸그락 맑고 고운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고 차의 기운이 물안개 서리듯 피어오름을 느낄 때가 완성됐음을 뜻한다"

선암사의 한해 따는 찻잎은 800kg. 가공되면 약 80kg으로 줄어듬으로 80g들이 1천통이 생산되는 셈이다.

혜우스님은 "茶는 108번뇌를 말끔히 씻어준다"며 "올해는 겨울에 춥고 비가 오지 않아 유난히 차 맛이 진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차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치는 않지만 신라 선덕여왕 때인 7세기로 보면서, 직접 재배하게 된 것은 828년(흥덕왕3) 사신 대렴(大廉)이 당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쌍계사 인근에 심으면서부터라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차(茶)의 글자는 풀(艹)과 나무(木), 사람(人)으로 구성돼 있는데 즉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뜻이다. 심신을 청아하게 하는 차는 선과 묘하게 통하여 선다일여(禪茶一如)이라는 말까지 생겨 났다. 그래서 옛스님들은 선문답에 차를 자주 등장시켰다. 차를 명(茗)이라고도 불러왔는데 초의선사와 교류했던 추사 김정희는 명선(茗禪)이라는 글귀를 자주 사용했다.



◇차밭에서 따온 찻잎을 곧바로 200~300℃의 가마솥에서 덖어낸다.



◇가마솥에서 꺼내어 엉킨 찻잎을 푼 뒤 비벼내는 작업을 9번 반복한다.



◇9번 덖은 차를 가는 체로 걸러낸다.



◇완성된 녹차. 녹황색을 띤 녹차는 공작의 혀처럼 둥글게 말려진다.

입안에 햇내…마음엔 禪香



◇선암사 칠전선원뒤 1만5천평 야생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사중스님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선암사 가마솥덖음차는 스님들이 직접 차를 따서 가마솥에 9번 볶아내는 전통방식을 고수한다.

명선은 '차를 마시면서 선에 든다'는 뜻이다. 전남 강진에 유배온 정약용은 초의선사와 선담을 나누며 다산(茶山)이란 호까지 얻었다.

스님들의 차 나누기가 수행 속의 즐거움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차는 불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현재 야생 차밭이 있는 사찰은 전남 장흥 보림사, 순천 선암사, 광양 백운산, 경남 하동 다솔사인데 이중 도선국사가 주석했던 광양시 다압면의 백운산 옥룡사 야생 차밭이 최대 규모이다.

특히 한국 차를 대표하는 초의스님은 1828년 지리산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에 주석하며 참선하는 여가에 茶神傳(다신전)과 東茶頌(동다송)을 집필했다. 현재 동다송은 다인들에게 최고의의 고전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차의 생육 온도 한계는 연평균기온 12.5℃ 안팎이다. 우리나라의 분포지는 차 시배지인 경남의 하동을 비롯하여 전남 남해안 일대, 제주도 지역에서 대량 생산된다.

녹차는 충치 예방, 콜레스테롤 저감, 혈압상승 억제, 체내 중금속 제거, 변비개선, 여성미용, 비만 억제,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구분한다. 또 제조법에 따라 크게 불발효차·반발효차·발효차로 나뉜다. 우리나라 차의 대부분은 불발효차인 녹차다. 반발효차는 찻잎을 햇볕에 노출시켰다가 그늘에서 말려 가마솥에 넣고 볶는 것으로 우롱차(烏龍茶)가 있다. 발효차는 잎을 시들게 한 뒤 비벼서 발효시킨 것으로 홍차(紅茶)가 대표적이다.

글=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중국차 시장 잠식…국산차 개발 절실

기·자·수·첩 한국의 녹차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차의 대량유입으로 국산차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다.

지난해만도 6.1톤이 수입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집계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맛도 이미 중국 차에 길들여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산차는 고급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차에 밀려나 있다. 대중차 시장도 중국 찻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평양이 중국의 찻잎을 가공하여 티백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 차 산업은 위 아래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최근 기현상중 하나는 중국을 방문하는 스님과 다인들의 대부분이 차를 구입해오고 있으며, 차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단체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덩달아 5만~10만원을 상회하는 국산차보다 2~30배인 20~300만원을 호가하는 중국차를 판매하는 중국차 판매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 차천지 대표 이수동씨는 "현재 고급 국산차의 개발이 전무한 상태다"며 "중국차와 맞설 수 있는 품격 높은 국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차인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분의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 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제품가격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4개 1세트 : 10,000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션가격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금비누 (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화장품 성분의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제품가격
▶1개당 : 15,000원
▶100개 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⑯ · 끝

故經云
고경운
惡業卽得苦報
악업즉득고보
善業有善報
선업유선보
不但嗔墮地獄
부단진타지옥
喜卽生天
희즉생천
若知嗔喜性空
약지진희성공
但不執 卽業脫
단불집 즉업탈
若不見性
약불견성
講經決無憑
강경결무빙
說亦無盡
설역무진
略標邪正如是
약표사정여시
不及一一也
불급일일야

若欲求佛 但求心
약욕구불 단구심
只這 心心心是佛
지저 심심심시불
我本求心心自持
아본구심심자지
求心不得待心知
구심부득대심지
佛性不從心外得
불성부종심외득
心生便是罪生時
심생변시죄생고

마음 마음 하는 그 마음 찾을 길 어려워라.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치 않네.

나는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찾은 적 없나니, 삼계(三界)가 비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아노라.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만을 찾아라. 마음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로다. 내가 본래 찾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찾는 마음으로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라.

너그러울 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 끝도 용납 않네

경에 말하기를 '악업은 곧 괴로운 과보를 받고 선업은 곧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였으니,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만약 성내고 기뻐함의 성품이 공(空)함을 알아서 집착함이 없다면 바로 업(業)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경전을 강론한다 해도 결코 아무런 보탬이 없다. 설명하자면 끝이 없기에 간략히 옮고 그름을 이처럼 표방했으나 자세히는 다 미치지 못했다.

頌曰(송왈)

心心心難可尋
심심심난가득
覓時偏法界
멱시변법계
窄也不用鍼
착야불용침
我本求心不求佛
아본구심불구물
了知三界空無物
요지삼계공무물

불성(佛性)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 아니니, 마음이 일어나는 그 때가 바로 죄가 생기는 때니라."

偈曰(게왈)

吾本來此土
오본래차토
傳法救迷情
전법구미정
一花開五葉
일화개오엽
結果自然成
결과자연성

내가 중국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네.
한 송이 꽃에 다섯 개의 잎이 달렸으니
그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역자 주 : 이번 호로 달마의 〈혈맥론〉은 끝을 맺고, 다음 호부터는 달마의 〈관심론〉이 연재됩니다.

큰 스님과의 대화

설산스님

정토사 주지

고려시대의 스님 나옹화상은 염불수행을 하면 법신불이 된다고 설파했다. "아미타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철저히 마음으로 잘 챙겨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일체 망념이 없어진 무념처에 이르면, 이 몸이 법신불 되어 금색광명을 발하리라."

서울 평창동 삼각산 자락 한켠의 작은 법당 정토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골짜기 아래 흘러내린다. 30여년 전 이곳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정토를 발원해 온 설산스님. 내년 9월이면 만일염불을 회향한다. 설산스님은 "염불을 하면 내가 곧 부처님이며, 미타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산스님에게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염불수행의 방법과 그 공덕은 무엇인지, 염불수행의 길을 여쭈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무아미타불"



- 1919년 경북 문경 生
- 15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출가
-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10하안거 성만
-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 조계종 8대 종회의원과 도선사 실달학원 원장 역임
- 현재 정토사 주지, 배달문화선양회와 설산장학회 회장
- 저서로 〈명산고찰따라〉 〈뚜껑없는 조선역사책〉 이 있음

—스님께서는 30여년 전부터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염불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염불문으로 들어선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청담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종회의원을 하다 그만 두고 도선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식문에 정토발원이라는 큰 뜻이 있는데도 염불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녁 송주(誦呪)를 하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네지이다 (願我決定生安養 願我速見阿彌陀 願我分身遍塵刹, 願我廣度諸衆生)" 하고 발원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건봉사가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이니 건봉사에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려 했으나,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요.

30여년 전 삼각산 자락에 정토사를 세워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염불을 시작했지요. 내년 9월이면 만일염불(萬日念佛)을 회향합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며 염불을 강조하시는데, 여러 수행법 중에 염불을 권유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발원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수행에는 참선도 있고 간경도 있는데, 성불하겠다는 뜻이 있지요 성불하기 위해서는 여러 겁을 닦아야 합니다. 시일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염불을 아주 쉽습니다. 경전을 보기 위해서는 글 공부를 해야 하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만 부르면 돼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시장에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아미타부처님은 10만억 국토 밖에서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시니, 아미타부처님을 염하면 항상 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 극락세계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그사람 앞에 나투시느니라."

—기도와 수행은 다른 것인가요?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에 의존하는 것이고, 수행은 자신이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되 염불이나 좌선을 꼭 해야 합니다.

부처님 믿는 데 종파도 많고 수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요즘의 불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도 하지만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리만 해요. 아들 낳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나 사바세계에는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몸뚱이는 늙어가고, 이것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법력으로 기도한 만큼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까먹으면 또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고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사를 초월해서 고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압축해놓은 반야심경에 보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그걸 체득해야지요.

〈초심(初心)〉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三日修心 千載寶
百年貪物 一朝塵

사흘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를 쌓고, 백년 탐한 물건은 하루 아침의 티끌이라는 뜻이지요. 복만 구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천불, 만불 조성해놓고 빌고 있어요. 탐내지 말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서 영생토록 인류평화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따르지 않고 내가 조성한 부처님께 절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수행을 해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연연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사바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미타세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나와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미타세계에 소요(逍遙)하는 것이지요.

—참선이 최고이며, 염불은 하근기의 수행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참선을 한다, 무엇을 한다며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불이 참선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은 뽐내려는 소치이지, 그런 소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불은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염불을 해야 반드시 성불한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염불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염불이요, 밥을 메도 염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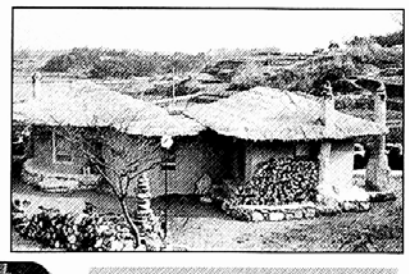
—염불의 방법이 있을텐데요. 혼자 할 때와 여럿이 할 때의 방법이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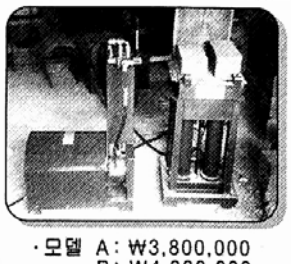
▲애초의 염불은 부처님의 원만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마음속에 상념하여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관상염불(觀想念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염(念), 부처 불(佛),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염불입니다. 그런데 말법천년에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으니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비가 내리고 있는니 비를 맞지 말고 우산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나무아미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깔롯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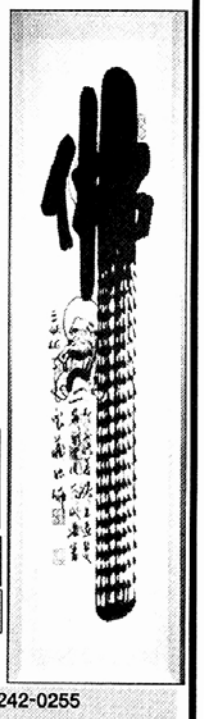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能자 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현대불교신문사 구독문의
0二-七三七-八八一

"복만 빌지말고 마음공부 열심 염불하면 제불 환희 지혜얻어"

타불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효봉, 청담, 동산스님 모두 참선을 한 도인인데도 아미타부처님을 불렀습니다. 원효스님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염불하는 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에 따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과 징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릅니다. 또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손바닥을 치거나, 두 손의 손끝이 맞닿도록 합니다. 집중하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집중하도록 돕는 방법일 따름이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염불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만의 불광산사에 가봤더니, 신도들이 염불을 하며 조그만 종을 치더군요.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부르고 땡, 종을 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염불삼매라는 말은 어떤 경지를 이르는 것인지요. 염불의 공덕은 무엇인지요.

▲삼매는 자기의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면 삼라만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어 무엇을 봤다는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를 깨쳤다고 하면 벌써 도가 아니라는 이치와 같습니다.

중생들은 결과를 미리 보여줘야 따르지요. 염불을 하면 열 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잠이 가장 큰 마구니인데, 능히 수마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여러 신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전파가 두루 퍼지듯 염불소리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불(諸佛)이 환희하며 큰 지혜를 얻습니다. 용맹스러운 정진을 성취해 왕생정토에 이릅니다.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상원사 선방에서 수행 중 열병을 앓았을 때 한암스님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쌀에서 뉘와 돌을 골라내야 하듯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골라낼 줄 알도록 가르쳐 주는 스승을 꼭 모셔야지요. 특히 참선을 하는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뭣꼬' 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망상이 들어옵니다. 피가 머리로 몰려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염불할 때도 상기된다든지 하는 위험이 따르나요?

▲염불은 절대 부담이 없어요. 편안해야 염불이 되고, 가르쳐준 방법대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스승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선수행을 하다 금강경을 공부하셨는데, 왜 금강경이었습니까?

▲금강경은 12인연, 아뇩야식 등 우리 마음의 근본을 열리게 하고 다독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금강경을 많이 배웁니다. 반야심경이 금강경의 요지인데,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하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곧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인 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꼭 불상에 금칠을 하고, 백호를 넣어 광명을 발하도록 해야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거울을 잔뜩 덮고 있는데 들여다본 들 제대로 보이지 않겠지요. 물을 흔들어봐요. 거기에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겠지요. 번뇌망상을 닦지 않으니 나타나지 않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체험한 부처님의 진수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일제 때 발가락 네 개를 자르고 학병에 나가지 않았는데, 발가락을 잘라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메디컬센터에서 수술하고 몇 달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먹지를 못해 송장과 같았어요. 하루는 내가 육신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중 울음소리와 두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내가 죽었으니까 염하는 중이었고, 내가 어느 큰 산의 돌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가라"고 지르는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는지 "살아있다"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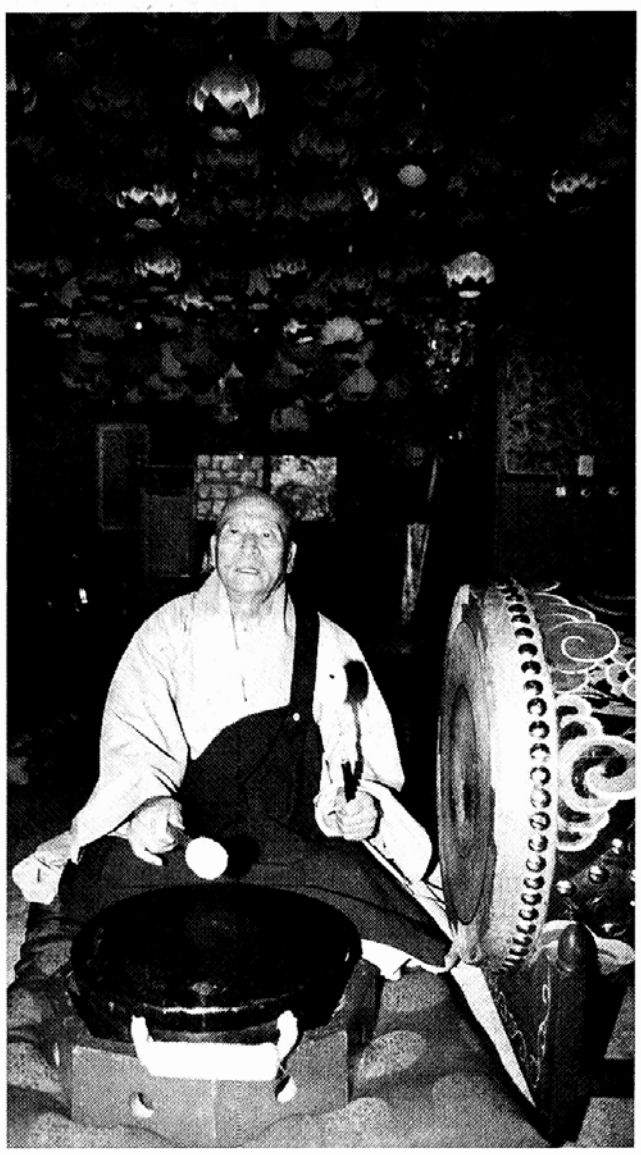
육신을 느낄 때는 괴롭지만, 육신을 느끼지 않을 때는 편안합니다. 수행은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본성을 깨달아 생사에 연연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선 안되겠지요.

-스님께서는 시를 쓰시기도 하는데요. 한 편 소개해 주시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로써 전하려는 뜻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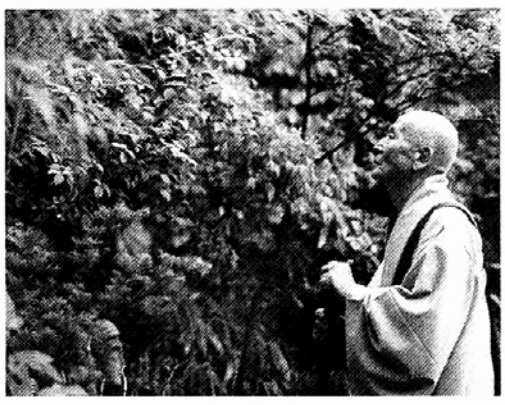
▲염불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가끔 쓰지요.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산거(山居)라는 제목을 붙인 것인데, 들어보세요.

낮달이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 바위 아래 / 주리면 열매 따고 풀섶으로 바람 비 가려 / 옹달샘 달빛을 움켜 마시면 저 멀리 / 도솔천 별빛이 진주알처럼 흘어진다 / 연(緣)은 무상(無常)이요, 정(情)은 환멸(幻滅)인데 / 산에서 사는 사람 마음이 없다 하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설산스님은 "불교는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늘 강조한다. 염불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설산스님은 북과 징을 이용한다.



◇ 극락정토를 발원하며 염불수행에 전념해온 설산스님. 내년 9월 만일염불을 회향한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②

"집을 떠나오기 전에 내가 망설였던 일은 책 때문이었다.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독자(獨子)인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길러주었을 것이다.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책더미 앞에서 나는 또 생나무 가지를 찢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너 권쯤은 몸에 지니고 싶어 이 책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놓기를 꼬박 사흘 밤을 되풀이했었다. 그것은 지독한 집착이었다.

책 몇 권을 가지고도 이러는데, 정든 처자권속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능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결국 세 권을 뽑아 짐을 꾸렸지만 산에 들어와 보니 모두가 시시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출가기(出家記)〉에 나오는 스님의 담담한 회고담이다.

스님은 임신생으로 음력 2월 15일생이니 금년 춘추는 69세이다. 한번은,

"2월 15일이 부처님의 열반재일 날인데 스님 생신이십니다."

충천의 기상 넘치는데

어찌 여래 가신길 따를까

하고 말씀 올렸을 때에,

'그건, 호적상으로만 그래." 하셨는데 춘추도 호적상으로는 몇 살 적다. 스님은 전라남도 해남 땅에서 박씨 가문에 외동아들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목포에서 지내다가 23세 때에 충무 미륵산 미래사에 출가하셨고 지리산 쌍계사에서 은사 효봉 노스님을 모시고 탁발을 해가며 공부를 한 바가 있으시다.

초대 역경원장을 지내신 운허(耘虛) 대강백을 모시고 해인 강원에서 수학했고 운수납자의 길에 올라 선원 대중생활을 한 때가 있으시다. 처음엔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을 하다가 두 번 째에는 관법(觀法)을 통해 스님의 입지(立地)를 튼튼히 하신 것으로 헤아려진다. 일화(逸話)가 많다.

언제 들은 이야기이지 잘 모른다. 한번은 스님이,

"나도, 도적질을 한 적이 있었어." 하고 말씀하셨다. 학교 앞 장소에서 상이 군인인지 다리가 부자유한 사내가 잉크지우개, 콘사이스, 문방구, 책 등을 길바닥에 늘어놓고 학생들에게 팔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점상. 스님이 별 내용이 없는 책인데도 그냥 호기심으로 펴들고 넘겨보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스님이 그들에게 밀려서 주인 사내와 약간 멀어져 버렸다. 주인 사내는 다리가 부자유스러워 쉽게 일어서고 앉고 할 형편이 아닌지 그냥 앉아서 학생들과 흥정을 하며 팔고 있었다. 순간, 스님은 책을 슬쩍 가방 안에 넣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리나 성한 사람 것 같으면 덜 미안한데....." 하신다. 이때 나는 스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큰 기쁨을 맛보았다. 의외로 재미있으시다.

또 이런 일도 있다. 스님이 목욕 빨래를 하신 날이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많이 모아두고 빨래를 방바닥에 널어놓고는 그냥 쓰러져서 살풋 잠이 드셨나 보다. 밤중이었다. 잠이 깨었다. 문득 밤중에 세상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소형 라디오를 켰다. 이때 이런 말이 막 흘러나와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음악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낭송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다락에 가서 옛 책을 꺼내와 오랜만에 무소유 책을 펼쳐서 라디오 진행에 따라 함께 읽어 보셨다고. 차를 마시면서 "참, 오랜만에 무소유 읽었네. 하하하" 하고 웃으신다.

산을 탈 때에는 젊은 우리보다 더 힘있게 앞장서신다. 비결은 발바닥 중간쯤에 위치한 용천혈(湧泉穴)을 자극하는 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돌을 피해 걷는 게 아니라 용천혈을 자극하면서 발바닥 중간으로 밟고 가신다. 건강도 의외로 좋으시다. 그 연세에 자취 생활이라니! 혼자 지어 잡수시는 건 아무나 흉내낼 정도가 아니다.



그림 · 문병성

내가 글을 쓰게 된 연유는 이렇다. 하루는 제목으로 '여름날 돌계단 쌓기'를 주면서 원고지에 10장 가량 써오라고 하셨다. 스님이 〈불일회보〉 '불일탑(佛日塔)' 고정난에 매월 연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실으려고 하신 것이다. 두어 차례 말씀 끝에 쓴 글이 '법보의 소중함'이었다.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는,

"아니, 이제 중이 된 아이 아니야?"

"지묵이가 벌써 불일탑에 글을 올려?"

하는가 하면 찬탄하는 쪽에서는,

"송광사는 물이 그래서 그런가? 글을 쓰는 이가 많아."

"괜찮군. 앞으로 유망해 보여."

하고 격려를 보낸 이도 있었다. 이 한차례 글이 불일탑에 실림으로 해서 말하면 일종의 추천이랄까 인정을 받는 자리가 된 셈이다. 그 이후 나는 10권의 책을 엮어내면서 생활불교와 선 수련 이야기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 의도적으로는 스님의 책을 잘 팔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문체 스타일 등이 스님을 닮아갈 것을 염려한 까닭이다.

"장부에게는 충천의 기상이 넘치는데, 어찌 여래(如來)가 가신 길을 따라 갈 것이냐?"

스님의 교훈이시다. (계속)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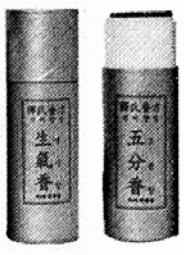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 · 정향 · 혜향 · 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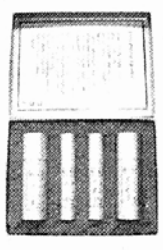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푸른 옷 갈아입고 굽이도는 봄산

백두대간 속으로 〈15〉

큰재↓봉황산↓갈령



◇진달래 꽃불을 켠 백두대간의 봄. 흔하면 귀함을 잃는다는 말도, 어디서나 피어나 봄을 장엄하는 이 꽃 앞에서는 헛말이 되고 만다.

흐드러진 진달래 '잡목은 없다' 가르침

못재엔 후백제 견훤이 목욕했다던 전설

진달래 꽃그늘을 드리웠던 자리엔 어느새 녹음이 짙다. 죽은 듯 앙상한 가지 위로 기적처럼 붉은 빛을 토해내던 그 곱던 봄빛이 아직도 화인처럼 기억에 생생한데, 성큼 여름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속살까지 푸른 물을 들이고 나면 소나무는 화답하듯 노오란 꽃가루를 실어 보내고, 별안간 빗방울이 듣기라도 하면 기다린 듯 참나무는 '후두둑' 소리로 장단을 맞춘다. 그야말로 상생과 조화의 극치다. 지금 우리의 산하는 온몸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떠나간 거리를 확인이라도 시킬 듯, 오종종 돋아난 들풀만이 빈 고정을 지키고 있는 상주시 공성면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에서부터 다시 백두대간의 품속에 안긴다. 지난 1월초,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이 연상시키는 우뚝함과는 생판 거리가 먼, 아산이라는 이름에나 딱 어울릴 이곳을 지나며, 고정 관념, 통념, 선입견, 타성 혹은 관습들로 오염된 내 머리통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진달래꽃을 보는 순간.

지금껏 수없이 보아왔고 봄이면 으레 피는 꽃으로만 여겼던 그 평범한 꽃을 볼 때마다 나는 끝없이 낯빛을 붉혀야 했다. 꽃에 취해 꽃빛에 물들어 붉어졌고, 부끄러워 붉혀야 했다. 지난 겨울, 수없이 스치며 '잡목'이라 불렀던 그 나무가 이토록 찬란한 모습으로 봄을 장엄할 줄이야. 사실 목재라는 윤모를 기준 삼으면 소나무일지라도 구부러진 것은 모두 잡목이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소나무를 잡목으로 부른 적이 없다. 보잘 것 없어 보이거나 내가 모르는 작은 나무들은 싹그리 잡목이라 불러왔다. 존재의 질량으로 보자면 작은 풀싹이나 거목이 하등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왜 진작에 몰랐을까.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 해서 늘이고 줄일 수 없다는 이 경범한 진리를, 왜 모든 사물에 적용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존재의 본질을 정면으로 응시한 적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되새겨 본다. 진달래꽃이 가르쳐 준 바, 지금은 농부로 살고 있는 윤구병 선생이 '잡초는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잡목은 없다'는 사실을.

이렇듯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워올리며 한껏 허리를 낮춘 백두대간은 다시 조금씩 키를 높이며 백학산(615m)으로 발길을 이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이루다가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와 대표리를 넘나드는 고갯길(지기재) 하나 내어 주고 나서 신의터재에 이르기까지는 아예 왼쪽 옆구리에 논밭을 끼고 간다. 지기재서부터 신의터재까지는 쉬엄쉬엄 걸어도 두어 시간이면 족하다.

신의터재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곳 또한 역사의 현장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록 해발 280여 미터에 불과하지만 금강과 낙동강을 가르는 분수령인 이 고개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신은현(新恩峴)으로 불리었으나 임진왜란 때 김준신이 이 고개에서 의병을 모아 큰 전공을 세우고 임진년 4월 25일 순절한 후부터 신의터재로 불린다 한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이 고개 동쪽의 동리 이름을 따 '어산재'로도 불리었으나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제 이름을 되찾았다.



◇백두대간의 모든 고갯길은 높이와 관계없이 분수령의 구실만큼은 분명히 한다. 높으나 낮으나 백두대간의 당당한 등성이인 것이다.

과랑 없는 바다를 생각할 수 없듯 굽이치며 휘돌지 않는 산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법. 비록 추풍령에서부터 속리산에 이르기까지의 산세가 미약하기는 하나 그래도 산은 산. 신의터재에서 무지개산을 거쳐 윤지미산을 지나 화령에 이르기까지는 활 모양으로 휘어돌며 그윽한 봉산의 정취를 자아낸다.

화령에서 다시 한숨을 돌린다. 상주시 화서면과 외서면을 잇는 이 고개 또한 300미터 남짓으로 그리 높지는 않다. 택리지에서도 이 고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화령과 추풍령이 되었는데, 사내와 산의 경치가 그윽하다. 모두 낮고 평평하여 살기에 알맞으나 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곳 지형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이 지역을 일러 중화(中化)지역이라 일컬는데, 이는 옛적 상주목에 속하던 중모현(지금의 상주시 모동면, 모서면)과 화령현(지금의 상주시 화서, 화북, 화동, 화남)을 이루던 이 일대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백두대간이 도의 경계를 이루는 것과 달리 이 곳은 아예 대간의 동서를 경상도(상주시)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국이 각축을 벌이며 국경을 뒤바꾸던 역사의 반영이기도 한데, 우뚝 솟은 백두대간이 천연의 국경 노릇을 하며 우리네 문화와 풍토를 가름지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요새같은 산은 광화의 중재자가 되고, 지역과 지역을 이웃하게 만드는 낮은 산은 오히려 화를 불렀으니(6·25 때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다), 이로써 또 한번 백두대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살필 수 있겠다. 이렇듯 백두대간의 고갯길은 높낮이나 위치에 따라 역사적, 지리적 의미를 달리하지만 분수령으로서의 구실은 같으므로 대간 등성이로서의 자위만큼은 동등하다.

화령에서는 봉황산(740.8m)이 그리 멀지 않다. 너머로 속리산을 빼고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군더더기 없이 봉싯한 자태가 봉황이라는 이름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산이다. 화령을 넘어 화서로 향하는 포장도로를 낀 산 기슭을 따라 걷다 속리산 문장대로 향하는 샛길을 가로질러 솔의마을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높이를 올리면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봉황산의 동쪽 봉우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급하게 아래로 떨어졌다 솟구친 다음, 왼쪽 기슭을 길게 휘돌다가 정상 아랫부분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꺾은 다음부터는 급한 경사가 목대기까지 이어진다. 금강으로 흘러드는 송천의 발원지이기도 한 이 산은, 화령의 진산답게 화서면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속리산 천황봉도 가늠이 될 만큼 조망도 빼어나다.

봉황산 박 지나서 암릉을 돌고 나면 공원길을 산책하는 듯한 편안한 걸음으로 비재까지 내려설 수 있다. 지금은 비재라고 부르지만, 나는 새의 형국과 같다 하여 비조령(飛鳥嶺)으로 불렀다는 이 고개에서부터는 급한 오름길과 내림길을 이어간다. 특히 못재 직전의 가파른 암릉은 발끝의 감각을 짜릿하게 하며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못재, 이름처럼 항상 물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습지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못재의 맞은편에 솟은 대궐터산에 성을 쌓은 견훤이 이곳 못재에서 목욕을 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넓혀 가자, 이를 안 황충이 못에 소금을 풀어 견훤의 힘을 꺾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의 한 처녀가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나이 열다섯 살이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는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전하는 얘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못재에서 그 옛날 견훤과 함께 목욕을 하는 상상을 하며 조금만 나아가면 이내 속리산의 동남쪽 자락에 닿는다. 올라서면 형제봉, 내려서면 갈령이다.

다음 차례에는 갈령에서부터 속리산 문장대를 넘을 예정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秉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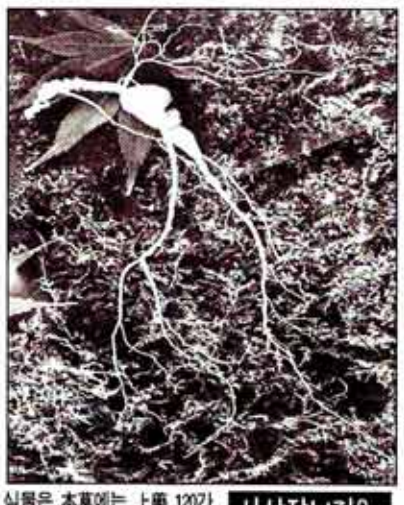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놓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재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則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일체 생명과 내 생명은 본래 하나

벌레 죽였는데 살생죄 받나요

문 인터넷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지 한달도 못되는 햇병아리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워서 자꾸만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님! 본래 자성(自性)이 부처임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둘 아닌 도리를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이에게 섭섭지 않게 대하고, 성내면서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하고 함이 없이 나툰다는 실천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하여 덮어쓰기를 했을 때 이전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입력되니 나은 곳에 도로 놓으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초보인 저의 귀에도 잘 들리도록 쉽게 쉽게 법문해 주셔서 더욱 더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등의 벌레를 예전에는 휴지로 싸서 죽이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 죽이기도 하고 약을 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무게가 같은 것을 안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 불법은 참으로 묘법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죄업과 인과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새나 벌레 따위를 죽이게 됐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근본으로 돌려서 그 생명과 내가 곧 바로 하나가 된다면 죽은 생명은 찰나에 제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생각만 잘 내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해서, 윤리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거니와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눈앞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라는 원리를 뼈저리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을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맡겼을 때 그 살생은 이미 살생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본래는 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업보가 있기 마련인 것이 유위법(有爲法)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며,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을, 악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위법을 떠나 저 무한광대한 불법의 진수에 들게 될 때엔 이미 그런 인과응보 따위는 훨훨 벗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속담도 이미 맞지 않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콩 심은 데서 팥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콩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이야기가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법이 무한광대하고도 미묘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살생을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근본에 말긴다면 오히려 그 생명이 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따돌림 받는 아이들 있는데…

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얼굴 생김새가 이상하고 아이들과 잘 사귀지를 못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을 싫어하고 따돌리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아닌 내가 그 아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많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보기만 해도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던데, 어떨 때는 그런 아이들이 좋아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큰스님,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어떨 땐 나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지…. 왠 줄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래. 또 둘이 아닌 까닭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세상에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고 도 내 친구 아님이 어디 있겠니?

우리 몸은 이 세상에 한철 소풍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저 집에 가서 한철, 자식이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부모만 나만의 부모, 나만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본다면 남의 부모, 내 부모, 또 친한 친구, 친하지 않은 친구하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두 내 아님이 없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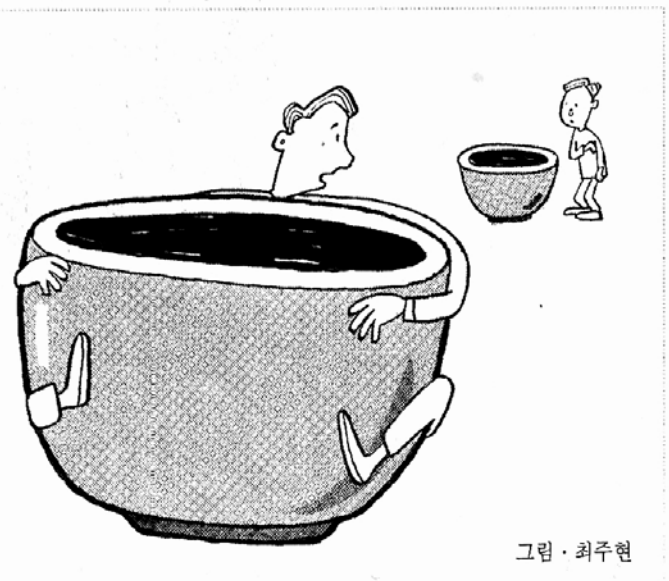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에 내 형제 · 부모 · 자식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나와 둘로 보지 말고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대해야죠

불쌍한 줄 알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사람이라고 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 그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와 둘로 보지 말고 너의 가족과 형제처럼 생각하고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참, 좋을거야. 그리고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주인공에 '너 만이 저 애들이 따돌림받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깊이 관해준다면 네 마음의 따뜻한 에너지가 그 쪽으로 가서 그 애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렴.

불이(不二) 생활 실행 어려워…

문 부처님께서는 "삼라만상 모든 생명과 내가 본래 둘이 아니고, 일체 제불과도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고 도태되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 절박한 생활속에서 나와 남이 둘 아니고 하나이니 모든 것을 쟁취하지 말고 불이(不二)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실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따르면서 사회생활을 순탄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들은 언제나 한몸이요, 한마음인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중생의 아픔을 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은 그런 근본까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나를 나누고 서로 이(利)와 득(得)을 다툽니다. 그렇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분별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중생들의 짐작과는 다르게 크나큰 평화를 줍니다. 우리들은 수억겁을 두고 오직 남을 이기고 짓눌러야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줄 아는, 그렇게 살아온 뿌리깊은 습(習)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우선 몸부터 사립니다. 행여나 무엇을 빼앗길까, 행여나 애써 얻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해서 본능적으로 집착을 가지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가르치셨고, 역대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이르신 이 무심법(無心法)과 놓아나가는 법은 결코 수행자들의 이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정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일체의 경계를 쉬어 수행자가 자기의 욕망을 차츰 조복받아 가다 보면 도리어 내면에서 크나큰 안심과 대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심과 평화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하고 깊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를 왜 가짜 짓을 하면서 삽니까? 돈 벌려니 괴롭고, 뺏기지 않고 모아놓으려니 괴롭고 모아놓으면 놓은 대로 아직 이것밖에는 없다 싶으니 괴롭고…. 아이구, 이게 얼마나 가짜 놀음을 하고 사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맡기고 살아라,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는 감사한 데가 없다, 이러는 것은 '재산을 버려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리랬습니까? 올바로 쓰기가 벌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도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다 쓰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손을 펴고 오그릴 줄 모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을 모르면 이것도 또 정상이 아닙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자유자재해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상의 삶을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줄 알아야 진짜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대로가 깨달음인지요

문 한번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려울 때 스님께서는 제게 메일로써 큰 위로를 주신 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없는 위로였으니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그런 메일이 제게 왔는지 저는 신비스럽게만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단지 지금 이대로인 것인가요? 단지 그것뿐인가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지금 이대로의 삶뿐인가요? 수행은 필요 없는 걸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각자 각자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깨달음은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이 피어나는 것은 꽃씨 속에 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가 알맞게 오고, 햇빛이 고르게 비추어도 씨앗이 자라 오르려고 하지 않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법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어서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히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만나는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려면 자기가 죽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주인공을 믿어라! 믿고 일체의 모든 것을, 즉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하고 일어나는 모든 분별 망상을 몰록 주인공에 맡겨 놓아라! 용광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꿈과 희망이 샘솟는 어린이불교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 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부처님 사상 교육의 바탕 위에 **놀이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또한 여름불교학교에 이은 어린이법회 운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및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어린이법회 교육에 관련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공모 및 시상식을 '놀이를 통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직접 시연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며 다채로운 어린이법회, 발전적인 법회 형식을 느낄 수 있는 연수회를 준비하오니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러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4년 4월 좋은 날

총재/**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덕진** 상임부회장/**정여**
부회장/**운성, 원혜, 영조, 해관,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식**

연수회 안내

- **언　　제** : 불기 2544년(2000년) **6월 3일**(토) 오후 5시~**4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김천 직지사 **만덕전**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동 참 금** : 3만 8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여름불교학교교재, 포스터 등 /미리 접수시 : 3만 5천원/ 군종병, 도서벽지지도자 2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5월 1일(월)~5월 31일(수)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 808-4571)
  PC천리안 : GO BOSAL(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주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강의일정

강 의		주요 연수내용	강 사	비 고
강의 1		노래로 여는 여름불교학교	정유탁	풍경소리
강의 2		여름불교학교의 계획과 운영 - 놀이를 통한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계획 · 운영의 실제	김미옥	옥련유치원 원감
강의 3		멍상과 선 수련 - 어린이참선 지도법	정여스님	본회 상임부회장
강의 4		부처님 말씀을 통한 어린이불심 키우기	청안스님	직지사 부주지
부처님 세상 여는 놀이로	5	도구를 이용한 야외놀이세상	박철수	도레미이벤트 대표
	6	전래놀이의 운영과 실제	이상호	전래놀이 연구회
	7	놀이감을 이용한 놀이세상 - 매직풍선	박창주	발룬아티스클럽 대표-개인일전 출연
	8	어린이법회의 의식과 실제	덕진스님	본회 회장
강의 9		여름불교학교에 임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본각스님	불교방송 - 자비의 전화 진행

제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 · 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세기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불국토
-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참가대상** : 전국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 **응모기한** : 2000년 5월 15일까지 접수
- **응모내용** : '놀이'를 이용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현 어린이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경진대회 시연 및 시상식** : 연수회 당일 (상장 및 상금 3백만원 수여)
- **기타 참가 안내** : 본회 사무국 동련 5월호/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

지역문의처 ▪서울 · 경기 : 02-433-1506 유지선 사무국장 ▪부산 : 051-853-5486 이선경 총무부장 ▪대구 · 경북 : 016-505-3143 김형중 사무국장 ▪광주 : 011-719-5550 정수보 사무국장 ▪대전 : 016-446-5955 김신형 사무국장 ▪경남 : 0551-242-0108 천명숙 사무국장 ▪제주 : 016-691-4728 김봉현 사무국장

경계·욕망 조복받으면 대평화 얻어

☞ 15면에서 계속

로에 넣어 녹여라! 나오는 것을 되놓고 침착하게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는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관해 보세요. 수행이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면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항상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확철대오 방법 무엇입니까

문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마저 없는데, 있다 없다도 없는데 말입니다. 확철대오마저도 없는데,정말로 차원 아닌 차원, 무한량의 차원의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참에 확철대오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바꾸든지 안되면 우주의 존재로 남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한번 선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몸 받아 가면서 일희일비하면서 끄달리며 살수는 없습니다. 사람 몸을 받고 정법을 만났을 때 직통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답 주인공은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들면서 연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에 따라서 자연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비좁은 마음으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모습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서 항상 '나다' '내가 아니다'하고들 있죠. 그건 진리와 함께 회전하는 마음이 아니고 한군데에 고정된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 '내가 아니다'를 몽땅 그 자리에 맡겨 놓으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을 같이 회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정되게 세우지 않고 자유로이 돌면서 넘나드는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곧 중심이란 뜻인데 그 꿋꿋한 중심이라는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중심입니다. 큰 중심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마련이죠. 그런 중도, 중심이 선 뒤에야 참 지혜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현상 세계에 알맞는 판단이 딱딱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런 중도, 중심, 중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질 못하는 거죠.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 이 중심이라는 것이 자비 중용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데로만 치우치고 그래선 안되죠. 또 모른다고 해서 고정되게 항상 모르기만 하던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다가 모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으면 내 근본 자리로부터 유위, 무위를 스스로 다 회전시키기 때문에 저절로 중도, 중용이 되고 또 저절로 진리에 부합하도록 생산이 됩니다. 생산을 해도 한 가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천 가지 만 가지를 자유스럽게 생산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생산을 해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생산한 것들을 거두어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생산하고 거두어 들이는 그것들이 모두 한 군데서 다 나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였다 냈다 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다 쉬고 맡겨 놓았기 때문에 중도가 되고, 중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므로 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깨우치겠다고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서두르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믿고 놓으며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보살행을 할 때 그것이 곧 참선이며 올바른 수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찾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냥 쉬고, 맡길 뿐입니다.

끔찍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문 생활하다 보면 항상 머리 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생각지 말아야 하는 끔찍한 생각이 올라 올 때면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며 그런 끔직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많은 망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과거에 입력된 대로 주인공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온 곳에다 되돌려 놓을 때 자연히 봄 눈 녹듯 스르르 녹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끊어야 한다고 애를 쓰면 끊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내는 것도 결국은 망상이니까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듯이 넘어지는 것도 거기요, 일어나는 것도 거기이므로 지혜로써 활용해야지, 좁은 소견으로 없애고 끊는 것이 해결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에는 나쁘다 좋다를 분별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나온 곳도 거기이고 좋다는 생각이 나온 곳도 거기이니, 나쁘지 않게 생각이 들게 하는 것 또한 그 자리인 것을 알아서 한생각 돌려서 놓고 뜻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오직 주인공에 일임하고 늘 감사함을 느끼며 과거에 지은 대로 부딪쳐 오는 경계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되 말하지 않는 도리

문 보되 보지 않고 말하되 말하지 않고 듣되 듣지 않는 도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때에는 둘이 아니기에 그냥 맡기고 '그래, 저것도 둘이 아니잖아, 안 좋으면 고쳐야지.' 하고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되는지요, 아니면 맡김과 동시에 그것마저 몽땅 잊어야 하나요.

답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보고 듣게 하는 근본을 지켜보세요. 그 근본에서 일체가 다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참작하고,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관습에 이끌려도 안되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안되고 집착을 해도 안됩니다. 모든 거는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갈 뿐이니까요.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고가 생기죠.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이 첩첩이 쌓입니다. 끄달리지 말고 그런 의정이 나오는 것도 주인공 뿌리이니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어떠한 괴로움이 닥친다해도 설사 상대로 인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없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자기 주처인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오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다면 내가 저이를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한마디 헤쥐야 되겠다, 저이는 저렇게 틀렸어 하는, 건건이 올라오는 그 생각들도 다만 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투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구는 각각이나 전력은 같듯이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유있게 그 마음들을 바라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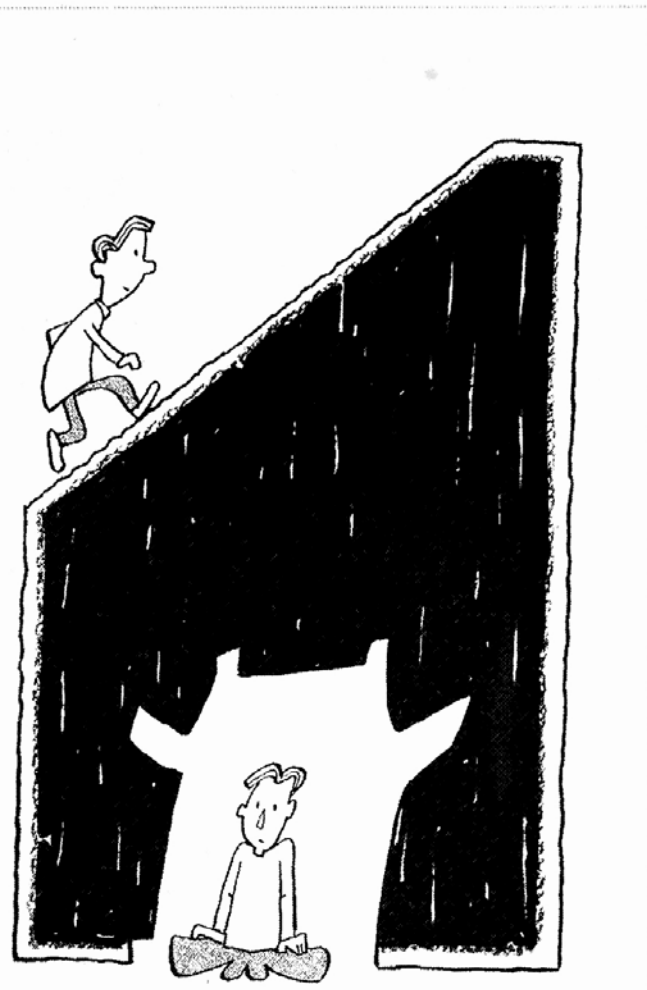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법은 콩 심고도 팥 거두는 묘법

믿고 놓으며 보살행 하는게 수행

개고기 · 뱀 먹으면 안되는 이유

문 세간에 요즈음 영양탕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저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연하게 불자들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고만 알고 있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명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불자뿐 아니라 사람들이 개고기나 뱀등을 먹어서는 안되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답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무지하게 때려 죽였대요. 아마 땅꾼이었겠죠. 그런데 산을 다니면서 땅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와 함께 얘기를 같이 하다가 스님께서 "살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돌아가니 어찌 억겁을 거치면서 지어온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고 하니까 땅꾼이 하는 말이 "수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죽인 사이 없고, 그 수만 마리의 몸이 내 몸이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뱀이 자기라는 거야. "수만 마리의 뱀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어찌 돌이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분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그냥 홀연히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뱀이다 소다 돼지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일체 만물만생이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본래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취하는 사람에게는 살생이 살생이 아니라 천도를 시키는 자비의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리도 모르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기에 부득이하게 그것을 취해야 할 때에는 그 동물의 생명과 내 생명을 둘 아니게 하나로 규합해서 지극하게 관하고 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취함을 당하는 동물과 취하는 내가 둘이 아니게 돼야 그 동물은 몸을 벗어서 좋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니 양편이 다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도 악도 본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둑이 칼을 잡으면 강도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잡으면 환자를 살리는 활인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그 내면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식을 하고 싶습니다

문 저는 올해 26살의 여성으로 불도에 대해 많은 걸 알진 못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 하지 않으며, 상구보리 하여 하화중생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힘든 이를 보면 도와주는 것을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한다기에 나름대로는 불도에서 말하는 보살행을 닦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 조용한 사찰에 머물며 단식을 하여 제 마음의 때와 음식의 탐욕을 줄이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단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단식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단식이라는 게 그냥 밥을 굶고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의 근본 뜻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 걸음을 걷는 대로 내가 움켜잡고 왔다면 그건 단식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항상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먹게 되면 그냥 먹는 거지요. 똥을 누는데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똥을 눕니까? 그러니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고 그대로 활궁법이며, 여러분이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관습, 집착, 욕심이 끼어 밝게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궁법임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대로 넉넉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식이란 말을 안 할 뿐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몸 속의 많은 자생중생들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혼자 오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돈을 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여하게 걸림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이니, 어떤 결정을 하건 본인 스스로, 진정 나를 이롭게 하는 길로 이끌고 가게끔 주인공에 관해 보고 길을 선택하기 바래요.

간화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간화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조사들께서는 화두를 잡고 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믿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겠지요. 큰스님이 가르쳐주신 관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으나 근기가 아주 수승하지 않고서는 초발심자들은 간화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어느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더군요. 가르침

법공양 페이지

바랍니다.

답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진하는 것입니다. 정진을 해야만이 그것이 성립되니까 말입니다. 정진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이라는 그 자체까지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변소에 가나, 나오나 드나, 법당에 가나 참선이라고요.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와선이니 좌선이니 참선이니 또는 입선이니 하는 이런 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간화선이니 묵조선이니 하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선이니 좌선이니 할 것 없이 우리가 움죽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정진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믿고 안으로 굴리고, 남을 원망 안 하고, 남한테 듣는 것을 거름 삼아서, 주춧돌 삼아서 내 것을 만들고, 또 내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들고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느꼈으면 느낀 대로 그냥 놔버려야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그릇에 담긴 것은 먹고 놓고, 안 담긴 것은 믿고 놔라' 이런 말을 했죠. 담긴 것을 먹을 때에는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안 담긴 것은 믿고 놔라! 그 뜻이 뭐냐하면, 안 되는 것은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참선 못할 분이 없을 겁니다. 싱싱한 몸을 가지고 내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이,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놔버린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날이 궂었다고 해서 날이 항상 궂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벋이 듭니다. 그런데 벋이 들었다 해서 붙들고 있고 날이 궂었다 해서 또 붙들고 있고 이런다면 이것이 공부에 얼마나 지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화두를 또 잡고 늘어진다면 구멍 뚫린 그릇에 불과한 것에다가 구멍을 막아놓고 또 의정을 내는 거나 같거든요. 보십시오,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순응하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좇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그걸 잡고만 있다면 그런 고집불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유위법 50%를 의심하고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50%를 그냥 뛰어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번연히 다 아는 거를 아무리 의정을 내봐도 겉돌기입니다. 맷돌 겉돌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몰록 놔서 참나를 알았을 때, 그건 어린애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데 보임하면서, 체험하면서 한발 한발 떼어놓는 그 공부가, 공부 아닌 그 공부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렇게 해나가다, 알 수 없는 무의 세계, 미지수의 그 묘법이 나올 때, 진짜 의정을 내야죠,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무슨 의정을 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진실해야 하겠거니와 길을 인도받는 사람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당에 들어오면 그 법당의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색신은 색신대로, 여기 이 세상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질은 물질대로 역력하게 돼 있고, 역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됨이 하나도 없으니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그것을 또 이론으로만 알고, 남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알고, 주장자 한번 쾅 내리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의 소리를 듣고서 흉내만 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법을 가지고 거론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부처님 법에, 아니, 진리에 참으로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름의 문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탁 잘라서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려운 언덕을 긁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474-8228 /011)560-5968
(선착순 1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전의식
▶ 기본과정 : 도량석, 쇳송, 예경, 불공시식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다비의식, 제반의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의식, 바라무, 작법무, 특별의식 등
▣무료강좌
▶ 생활불교의식과정 : 예경, 통과의례, 고사, 불공 가정의례, 법회의식, 기도의식등
▶ 교육기간 : 3개월 ▶ 지방수강생 상담 환영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481-4482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책임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 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주소 : 진주시 주약동 약골
대각사
0591)755-6997/0591)759-1514
016)612-9204

역학개인 전수
· 책없이 손으로 짚어내는 역학을 전수합니다.
· 간단하고 편리하게 손안에 숙지하여 중생의 옳은길을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를 얻는 스님이 잘 짚은 이 비전은 부처님 氣가 있어야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011-695-2320

사주 명리 배우실분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이사방위 진로선택 등 기초부터 끝까지 책임 완성해 드립니다.
■ 강의기간: 주2회(2시간씩)4개월
■ 개 강 일: 6월 1일(목요일)
■ 수 강 료: 월10만원
■ 장 소:마포구 망원2동 474-15
선주명리연구원
☎02)323-4050/4480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한국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주 소 : **제주시 영평동 2007-1번지**
◇성 명 : 박 용 기 (법명 : 기철)
◇**승적번호 : 2540 0723**
상기본인은 서기 2000년 5월 20일부로 한국불교 일붕선교종의 종지 종풍을 따를 수 없어 은사(봉암 장연종)스님과의 인연을 지속 할 수 없음과 아울러 승적탈퇴 및 탈종코자 이에 공고합니다.
2000. 5. 20

구인구직

암자나 토굴
구입하실분
찾습니다.
(꼭 하실분 연락바람)
0563)335-7312
016)664-0563

공양주
모십니다
0543)
954-0391

사찰 운영할
스님
모십니다
0395)
541-8968
(상담후 결정)

공양주
모십니다
(대둔산 안심사)
0652)
263-7475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02)
359-7766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417)566-6301
011)5803-6301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053)
743-7070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은평구 응암1동
관음사
02)
359-7317

사찰에서 일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사찰 : 조계종 대흥사 백화암
※ 비구니스님 사찰입니다.
자녀, 식구 있어도 가능합니다.
0634)533-2810

부산세원 백화점
맞은편 원통사 포교당에 계시던
원봉스님을 찾습니다.
구미 금강선원 보살님이 부산
백련사 큰일 때문에 필히 찾고
있습니다.
0546)
473-915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동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9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 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3477-5336

기타

인터넷 무료 직거래 생활정보
무료매매, 물물 교환, 지역별 공공정보, 구인구직, 부동산 매매, 분양, 중고 자동차 사찰부지 · 포교원 안내, 고미술품 매매 컴퓨터, 생활용품, 무료 게시판 운용
02) 2242-0331 / 2242-0255
www.memull.com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페인트 제거제(오일 · 곰팡이)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공사
◆ 강력 접착 실리콘 본드(다목적)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유방암, 자궁암, 간암에 좋은
백화 사설초, 조청엑기스
신경통, 관절염, 척추에
좋은 골담초, 조청 엑기스
※ 다려드립니다(건강원)
053)941-5432

불교 조각 **고려 미술원**
문화재수리 단청, 개금, 조각기능보유등록 693호,1361호,1495호1853호
목불상, 단집,불단, 개금, 법당,내부불사 일체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성불사 內)
0417)567-2600 011)421-5337
인터홈페이지
http://www.mainsoft.co.kr/Art.htm
※ 연락주시면 카다록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원 장 임영창 합장

불교사업 하실 분 초빙
당사는 종합불사를 하는 회사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실 불자님을 초빙합니다.
▶자 격 : 수계를 받은 불자로서 각 종단 소속 사찰 주지스님 추천을 받은 불자(운전 능숙한 불자)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신원보증서
■ **영업 품목안내** 사찰 고건축, 토목, 불상조성, 단청, 납골용기 제작 사설납골당 설계시공, 기타 불교관련 용품 제작 및 판매
자본금(보증금) : 일체없음 (불심이 깊은 불자님께 회사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상담 02)354-5056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사업성공, 건강 ▶부부화합, 승진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결혼성공, 득남득녀 ▶대해,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갓바위 뒷길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26.5평
(법당 +요사채, 98년 12월 신축),
◆ 가액 : 1억
※ 비구니스님 적합
053) 853-4418
011) 551-1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 평수 : 1층 20평(공양간겸 방1칸), 2층 37평 (방2칸, 법당1)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11)430-3344
※꼭 하실분 연락 바람.

토굴(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25평
임법당,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800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371)763-6032
011)9792-2078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동두천
◇법당 : 15평
◇요사 : 47평
◇부지 : 600평
◇가액 : 8천5백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브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5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주택가이면서 주변에 녹지가 있음.
◆ 수락산 · 불암산 ·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좋음.
◆ 전철역에서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임법당, 단독주택
◆가액 : 전세 6천만원
02)937-6909
019)276-2388

사찰 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신길2동 219-12호
◆ 평수 : 법당35평, 큰방 30평 1개 방4개 총5개
◆ 가격 : 답사후 절충
02)842-7629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천보사 포교원
◆ 건물 : 1층 요사채 28평 주방10평, 2층법당 28평
◆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 시설이 완벽함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10만원시설비 답사후 결정
0417)577-1469/017)741-1467

포교원운영하실 분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 평수 : 2000평이상
◆ 특징 : 시내속의 산사, 바다보임
◆ 가격 : 권리금700만원 (월세20만원)
0557)646-2766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빼어난 산새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오태민 합장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총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실리
◆ 건물 : 25평, 주방(시설완비)겸 거실, 욕실, 보일러, 큰방2개, 황토방1동, 텃밭300평
◆ 특징 : 마당이 넓고 주차장 완비, 대진해수욕장 20분거리, 산세, 물 좋고 요양원으로도 최적
◆ 가격 : 건물 5백만원
0564)733-7668

토굴(터) 안내
◆ 위치 : 삼천포 와룡산
◆ 대지 : 임야 4500평 건평80평, 방10개
◆ 특징 : 산세 수려, 차량진입 가능
◆ 가격 : 상담후 결정
0593)835-1078
011)830-2880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
◆ 평수 : 62평
◆ 평수 : 황토집 적당
◆ 가액 : 3000만원
0597)962-3528

포교원 무상양도
◆ 위치 : 부산 온천장 식물원 4거리 부근
◆ 평수 : 35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5만원
◆ 인연있는 스님 및 불자들께 시설일체 무상으로 드립니다.
0561)744-1689/011)763-1690

사찰 안내
◆위 치 : 경북 김천
◆대지600평 (사용부지 1000평이상) 법당28평(사무실포함), 산신각, 창고 주차장,요사채55평, 빙7개
◆특 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별장이나 기도처로 최적지 대형차량진입
◆가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사거리
◆ 평수 : 3층 45평 법당, 4층 45평 요사, 주지실, 상담실 완벽
◆ 가격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343)469-1562
011)9807-67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대지 : 430평 (등기필)
◆ 건물 : 1층 70평(법당20평) 2층 20평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 덕산온천옆
◆ 가격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458)337-6348

파고 또 파고…신음하는 국토

산허리에 고층아파트 계곡엔 러브호텔

지자체 지방세 빌미 난개발 부채질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 이른바 '난(亂)개발'로 일컬어지는 제멋대로 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번지면서 대도시와 지방, 도회지와 농촌 할 것 없이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산허리에 초고층 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숲을 파헤친 계곡엔 카페와 러브호텔이 파고들었다. 아늑했던 강변은 요란한 간판을 단 업소들에게 점령당했다. 자연환경은 물론 갖가지 생물이 멸종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2천만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변은 닥치는 대로 파헤치는 전원주택 공사로 늘 자욱한 흙먼지에 휩싸여 있다. 90년 2580여개였던 팔당호 유역 음식업소는 98년엔 9500여개로 3.7배나 증가했고, 숙박업소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울의 산림은 재개발과 도로, 택지조성 명목으로 지난 10년새 33%가 줄었다. 국토의 허리 백두대간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진 광산 채굴과 채석,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산줄기는 곳곳에서 허리가 끊겼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은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 서북부지역에는 현재 18곳에서 13만여 가구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지상주의의 미명아래 녹지에 대한 자연생태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개발로 인해 임진왜란 성터 등 문화재도 가차없이 폐기돼 버렸다.

마지막 청정지역이라는 제주도의 서귀포시는 절경을 자랑하는 자구리 해안 일대를 메워 각종 유흥·오락시설을 들이는 4만평 규모의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경관을 대표하는 기생화산들 가운데 70여개는 벌써 석재채취 등으로 파괴된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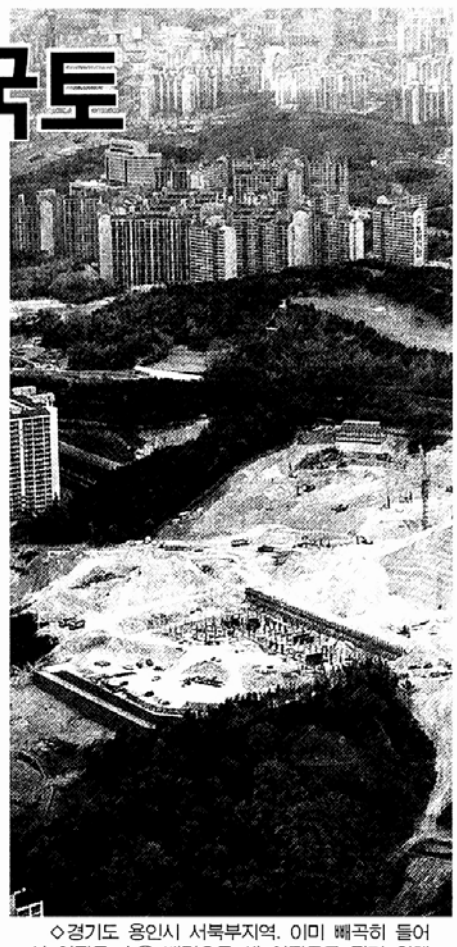
뿐만 아니다. 인천과 경기도의 앞 바다인 경기만에서는 하루 평균 트럭 1만대분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개펄, 철새가 쉬어가는 습지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전국에서 15t 트럭 500여만대 분량의 흙과 돌을 파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18년간 매년 1만6000ha의 농지와 7000ha의 산림이 사라졌고, 생물종은 500종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국토가 황폐해져가는데도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에만 목을 빼고 있다. 주택보급율 확대라는 물량적 목표달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정부도 그렇고, 지방세 마련을 빌미로 난개발을 부채질한 자치단체들 역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용인에서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개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무계획적이고 무제한적인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다.

〈중아함경 근본법문경〉을 보면 부처님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즉자적, 주관적,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이치와 소중함을 강조한 말이다. 또 〈범망경〉에서는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돌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한다"며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가르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국토관리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국토가 회복불능에 빠지기 전에 국토과괴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국토가 황폐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도 그만큼 황폐화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기도 용인시 서북부지역. 이미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숲을 배경으로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림이 우거졌던 야산이 파헤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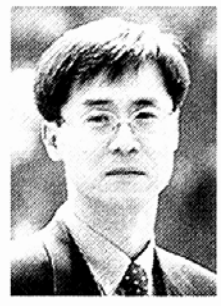
시론

경제위기설의 진위

모든 매스컴이 경제위기설에 대한 찬반토론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1997년 말 경고 한 번 없이 맞이한 외환위기로 인해 이번엔 모두가 나서 우리경제의 불안한 요소들을 거론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이슈화…국민 불안

더욱이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나타난 것처럼 평균 소비성향이 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골프관광객만도 97년의 3배가 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띠가 풀렸다는 사실은 이같은 위기감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설에 대해 우리의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물론 과소비를 비롯해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나 단기외채비율의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침체와 예상물가수준의 상승 등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거시지표를 들이대면서 낙관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부의 경제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가세하여 정부의 발표에 집중포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IMF를 맞이할 때와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경보시스템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 또한 외환위기 때와는 한수준 높은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제위기설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나쁜 상황으로 몰고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의 주체들은 현재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하여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민반응이 필요한 경고수준을 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또한번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적 예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나 금리 그리고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못지 않게 크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편 정부는 치밀한 예방전략을 세워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을 경청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책임질 일은 서로 떠넘기기식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주관 부서간의 협력적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경제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경제전문가 그룹 역시 경제주체에 대한 비관론 보다는 다소 의도적인 낙관론 또는 조심스런 희망섞인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정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위한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예방책이자 21세기를 위한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과소비·골프여행 등 자제

또 하나,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다져져야 한다. 300만원이 넘는 여행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평일도 북적댈만큼 붐비며, 해외여행객들이 들고 오는 선물보따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풍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위기설이 말 그대로 진짜 위기로 닥칠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소비증가를 무턱대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소비는 그동안의 투자위축을 견인하고 경제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묻지마 소비'는 분명 가계의 파산과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뿐이다.

'포돌이 양심방' 한달

촌지 1천만원 반납

경찰은 촌지반납을 위한 '포돌이 양심방' 제도를 시행한 지 한달만에 1,000여만원의 촌지가 반납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내부개혁과 자정 차원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일선서에 설치, 경찰관이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받은 금품을 자진 반납하도록 한 '포돌이 양심방'에는 현금 980만원과 상품권·주유권 33만원이 신고됐다고. 신고건수는 현금만 총 98건이며 양주와 담배, 고가의 장식품도 포함돼 있었다.

〈미증유정법경〉에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광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다. 정직한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이같은 풍토가 자리잡는다면 국민들은 경찰을 경전말씀처럼 보살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경찰에게 촌지를 건네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마음은 道와 어긋난다.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다"는 〈유교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여성 "성폭행특별법 있으나 마나"

정신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자체조사해 22일 발표한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 사례를 보면 대다수 직장동료, 이웃, 아버지 친구,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 친고죄인 강간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를 제시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확정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전문가에 의한 대리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성 노리개로 삼는 파렴치범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쪽으로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니라.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을 보지 못하였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감로법을 얻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일반의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출판연 조사, 성인 1년에 9권 독서

책은 안보고 비디오는 보고

성인의 경우 1년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22.2%에 달하는가 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9%나 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초·중·고생 각 1000명씩 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연간평균 독서량은 9.3권으로 일본의 18권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비디오·영화(19.1편)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타니파타〉에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큰 바다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만 가득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쯤 채워진 물그릇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가득찬 연못과 같느니라"는 가르침이 있다.

독서를 하지 않고는 깊이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하기 힘들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험해지는 이유가 우리의 '양식쌓기 부족'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다.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00평이상(국유지)
◆ 건물 : 건평28평, 임법당 방1, 주방, 욕실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청정도량임.
◆ 가격 : 월세가능(답사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874-019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평수 : 약40평, 법당 20평 이상, 큰방2개, 주방
◆ 특징 : 불사시설 완비
◆ 가격 : 보증금+시설비 3천 8백만원 (사정상 급매)
011)9928-5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보문산
◆ 평수 : 부지 국유지 사용 허가필 100평, 임법당15평, 방6개, 산신각, 별채
◆ 가격 : 답사후 절충
042)255-5063
011)9766-5563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에서 10분거리
◆ 대지 : 158평 건평 70평, 방5개
◆ 특징 : 주차장 완비, 지하수 있음.
◆ 가격 : 답사후 절충
018)626-811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 부지 : 300평(년 28만원)
◆ 건물 : 법당 목조단청12평, 산신각 4평, 요사 13평(욕실2개)
◆ 가격 : 6000만원
017)705-65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선도산 무열왕릉옆
◆ 대지 : 105평, 골기와33평, 아래채10평 (현재사찰 운영중)
◆ 가격 : 1억 2천만원
0561)743-5730

포교당 안내
◆ 위치 : 상계동 당고개
◆ 정말 괜찮은 포교당
◆ (산이깊은절)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허 인 합장
02)939-7121
011)9972-712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평수 : 법당15평, 방3개 삼존불, 지장보살, 후불탱화 상단에는 홍태화, 세면장
◆ 특징 : 주위에 복지사업할 여건이 좋음
◆ 가격 : 3천만원 (월20만원)
0351)868-0516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9646-3220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홍도동 72-27 3층 보현정사
◆ 평수 : 법당35평 중 주방, 상담실, 침실 삼존불 각 탱화, 종
◆ 가격 : 전세 2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42)627-5925/011)742-5925

사찰운영 안내
◆ 위치 : 서울, 등산로 약수터 입구
◆ 대지 : 65평, 법당25평(2층) 요사 50평(1층), 지하실 20평
◆ 특징 : 산밑, 시내 아파트 인접 마을버스 절 안내 간판
◆ 조건 : 정법포교하는 스님
0502)040-0408

토굴(암자) 안내
◆ 위치 : 지리산 백운산등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섬진강이 굽어 들어오며 흘러감
◆ 대지 : 130평, 법당1개 요사채1개, 방4개, 보일러식
◆ 가격 : 4천 5백만원
0664)781-4898

공양주 보살' 보십니다
나이 55~65세사이
02) 888-3393

D.D.R · 테크노 댄스 청소년 포교 '새바람'

신세대 선호…찬불가 접목 필요

청소년 문화포교의 방편이 날로 다채로워지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 교계에서 마련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해 보면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 D.D.R과 테크노 댄스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테크노 춤이 공연되는 곳이면 언제나 객석에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자리를 꽉 메운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가 5월7일 마련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종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참여의 열기가 대단했다. 5백여명이 참석한 객석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댄스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플랭카드'를 들고 일어나 춤을 따라 추는 등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던 성동기계공고 댄스그룹 '모크샤'의 박재현군은 "봉축 행사중 청소년들을 위해 처음 마련된 행사라 1개월전부터 TV에 나오는 우명 댄스그룹의 모습을 보며 맹렬히 연습했다"며 "타종교의 친구들도 많이와 응원해 줘 불자임이 자랑스러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같은날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한마음선원 중고등부 학생회가 마련한 '보컬 댄스음악 파티'에도 청소년들을 비롯한 2백여명의 시민이 동참해 축제 분위기를 몰씬 풍겼다.

또 5월14일 'D.D.R 춤 잔치 경연대회'를 연 광동중학교와 목동청소년회관에서는 신청자들이 쇄도하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이러한 행사를 자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청소년 포교 형태의 변화는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는 4월27일 청소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봉축백일장과 함께 테크노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청소년 문화 행사에서 이처럼 댄스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청소년들의 기호와 성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기존 프로그램들로만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교계의 모 종립학교에서는 봉축기간중 찬불가 합창대회 개최 공고를 내자 신청자가 저조해 진행이 어려웠던 반면 테크노 경연대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3배의 신청자가 몰려 예심을 이틀에 나눠 치른적도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교계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탈피해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찬불가 부르기, 국악 사물놀이 공연, 백일장 등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고려한 기존의 행사를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은 "N세대 청소년들의 기호에 치우친 프로그램만 늘어난다면 청소년 포교의 현장이 자칫 놀이마당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테크노찬불가, 퓨전 전통놀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부처님 그리기 등 기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교계의 청소년 문화행사에 테크노 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주최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한 명성여중의 6인조 댄스그룹 '연화힙합'.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⑥ 해강의 쌍계사 · 경국사 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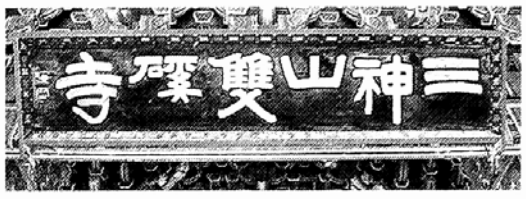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1868~1933)은 외숙인 이희수(李嘉秀)에게 글씨를 배웠고 18세때 청에 유학하여 서화를 연구하였다. 귀국 후 궁내부 시종관(侍從官)을 지냈으며 고종의 어명으로 왕세자 영친왕의 스승이 되어 서화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사진기술을 배워와 1903년 종로에 '천연당'이라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열기도 했다. 1913년에는 상업화랑인 '고금서화관'을 개설하였고, 1915년에는 안중식(安中植), 조석진(趙錫晉) 등과 함께 '서화연구회'라는 3년 과정의 사설미술학원을 열어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해강은 각체의 글씨를 모두 잘 썼으며 산수 · 화조 · 난죽뿐만 아니라 채색화에도 두루 능하였는데 특히 대자(大字)와 묵죽에 뛰어났다. 그는 금강산 마하연 바위 위에 사람크기만 한 큰 글씨를 쓰기도 하였으며, 안순환(安淳煥)과 함께 만든 같은 형태의 사액을 수십 개의 사찰에 나눠주기도 하였다. 그가 쓴 편액으로는 서산 개심사 〈상왕산개심사〉, 서울 경국사 〈다로경권〉, 〈화엄회〉, 장성 백양사 〈대가람백양사〉, 경주 불국사 〈불국사〉, 하동 쌍계사 〈삼신산쌍계사〉, 〈선종대가람〉, 양산 통도사 〈통도사〉,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가야산해인사〉 등이 있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 앞쪽에 걸려 있는 〈삼신산쌍계사〉 편액은 해강이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곳을 유람하면서 쓴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조선 후기쯤에 쓴 행서로 된 산문사액(山門寺額)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편액의 글씨는 고예(古隸)의 필법으로 중간 글자인 '三', '山', '寐' 세 자를 납작하게 써서 장법(章法)의 통기(通氣)를 고려한 흥미로운 글씨이다.

서울 경국사 관음전에 걸려 있는 〈다로경권〉 편액은 해강이 영산전을 건립하던 1930년경에 〈영산전〉 편액과 함께 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은 좁은 청색의 변죽을 대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전형적인 근대의 양식을 지녔다. 편액의 글씨는 한예(漢隸)의 결구에 고경(古勁)한 필선을 지닌 예서로 차를 달이는 화로와 경서가 있는 담백한 정취를 이르는 말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쌍계사 일주문 편액



◇경국사 관음전 편액

건강백과

스트레칭

아직 아이들이 어려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는 주부와 바쁜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이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은 없을까.

영등세브란스병원 문재호 재활의학과 과장은 인터넷 사이트 '종합의료정보'에서 "일은 운동과 달라 하루종일 아무리 바삐 움직여도 근육의 50%만 운동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운동하지 않아 퇴화해 결국 지방으로 대체된다"며 실내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스트레칭을 권했다.

■허리근육 스트레칭

'허리 근육 스트레칭'은 무릎을 구부리고 반듯이 누워 복부와 둔부의 근육에 단단히 힘을 준 뒤 복부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동시에 둔부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동작이다. 근육의 수축은 10~15초, 이완은 3~4초씩 한번에 15~20회 정도 반복해야 한다.

■어깨 관절 스트레칭

테이블 짚고 팔굽혀 펴기 효과

머리위로 팔 올린후 좌우 요동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목이나 어깨 관절이 굳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주도록 해야한다. 기본 동작은 30㎝정도의 막대기나 수건의 양끝을 손으로 잡고 역기를 들 듯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15회 반복하는 것이다. 또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어올린 상태로 팔을 허리와 함께 좌우로 흔든다. 어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벽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벽에 기어올라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좋다. 또 부엌의 싱크대나 테이블 위에 서서 손바닥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스트레칭

'하지 스트레칭'은 근육 발달의 불균형을 방지할 목적으로 권장된다. 아킬레스근을 늘려주려면 의자 높이에 양손을 짚고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좋다. 또 무릎을 펴는 근육인 사두박근을 강화시키려면 모래주머니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발목에 매달고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좋다.

"돌아볼수록 높은 스승의 은혜"

명성여고 퇴임교원 40여명 초청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15일 명성여고 교내식당. 케익 절단이 끝나자 재학생과 졸업생 50여명이 부른 '스승의 노래'가 실내에 엄숙히 울려퍼졌다. 명성여고 학생회와 동창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퇴임교직원 40여명을 초청해 위로하는 훈훈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개교 70주년을 맞아 '스승님은 영원한 명성인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건 명성여고 학생회는 그동안 학교의 버팀목이 됐던 교직원을 초대해 다과와 노래 공연을 펼치는 등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0여년동안 평교사로 재직했던 강봉규선생님은 제자들의 안내로 교정을 둘러보면서 "방과후에 학생들과 함께 관수동에서 이사와 어수선했던 학교를 정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화단을 정리했던 생각이 난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명성여고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퇴임 교직원 40여명을 초청,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가졌다.

이원주 명성여고 교장은 "참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의 조성은 미래의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중요하다"며 "올해를 계기로 매년 스승의 날에 '옛스승 모시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미래의 청소년' 주제특강

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6월3일 오후 2시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김경일 성암교육원장이 진행할 이번 특강에서는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져야할 마음자세와 가치관 등이 구수한 이야기식 강의로 펼쳐진다.

또 특강 전에는 청소년 5백여명과 함께 엑스포 행사장에서 환경정화 운동도 벌인다. (042)488-0732

디지털 상담실 유적답사

디지털청소년상담실은 28일 여주 신륵사를 비롯해 목아박물관과 도예촌 등지로 춘계 문화유적 답사를 떠났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혜능보육원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륵사에서 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인근 도예촌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실습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0431)212-5711

청소년단신

청소년 종합예술 대전

한국불교청년회와 마음의 전화는 공동으로 6월4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5회 참나 청소년 종합예술대전'을 개최한다. 논술 · 미술 · 서예 등 3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부, 중 · 고등부, 대학 · 지도자부로 나눠 열린다. 수상작은 7월12일에 발표된다. (02)326-0248

대불련 전국지부장회의

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월10 · 11일 양일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전국 지부장단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대불련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8월3일부터 개최되는 여름대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732-0239

번뇌씻는 비누 여드름 제거 · 피부 미용 효과

새상품 비누의 이름도 재밌다. '번뇌를 씻는 비누'. 특수필름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이 비누 중앙에 새겨진 이 제품은 몸과 얼굴을 씻을 때마다, 짧은 순간이지만 발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고자 고안했다. 또 100% 천연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청소년들의 여드름 제거와 여성 불자들의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격은 1개에 1900원. (0561)741-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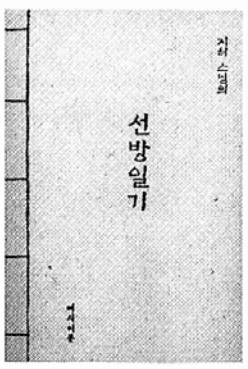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처절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범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켈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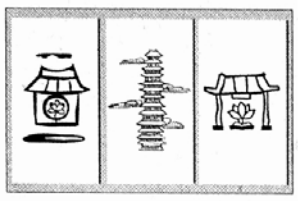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6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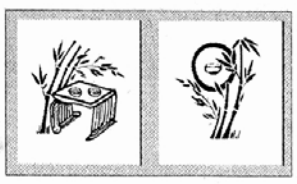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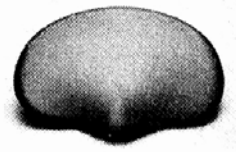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9-025009
- 의장등록3143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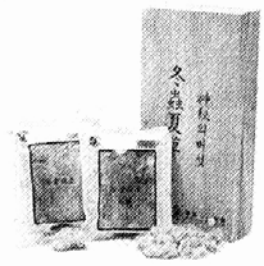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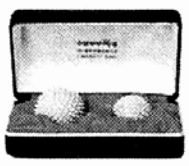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약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풍+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약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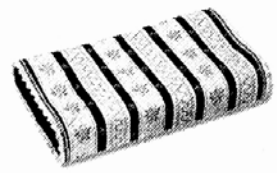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약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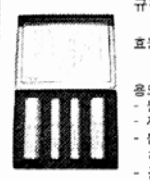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 4개 1세트

효능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영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몸보살계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몸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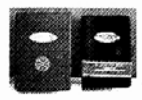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아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천공, 법회, 의례, 한문가까지
- 신행생활과 생기참 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8,000
일반형(인조피혁)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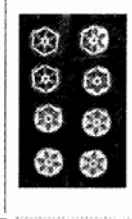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체 형 : ₩20,000원
무개체형 : ₩15,000

조상묘지용 동 하판야



▸종도량효능
산소주택차단 풍에너지장을 변화시켜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착
하판아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순금도금 은 하판야메달



▸종도량효능 남니꿈을 보료치형 배달
▸재질 : 천연자수정스부착 은매달순금도금, 투비 세팅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방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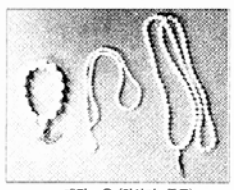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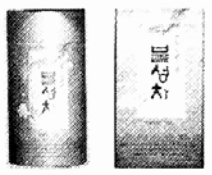
2. 죽염의 제조과정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판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밀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찜)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철분, 각종 필수 미네랄이 생성 응함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1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증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거담, 종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9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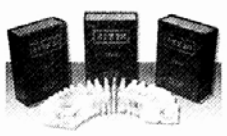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태에 식당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삼보미용죽염



피부에 기생하는 진상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표면을 깔싹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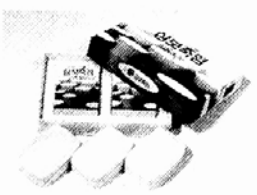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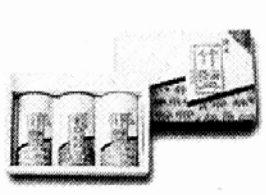
삼보죽염



삼보죽염 세트
용량 : 600g
가격 :₩105,000



삼보죽염비누
용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용량 : 600g(본말 합장이 공화씨환)
가격 :₩10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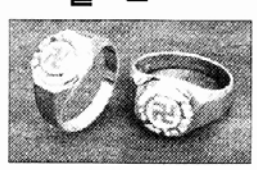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최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관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소비와 절약

통계청은 21일 '올 1분기(1~3월)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 "이 기간 동안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12.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계층간 소득불균형(빈부격차) 현상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이 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청의 발표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제2 금융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의 진단이 어떠하든 간에 IMF의 악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엔 이른 것 같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건전한 소비생활과 절약의 미덕을 살펴본다.

〈편집자〉

사치 말고 분수에 맞게 써라

▨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밝히고, 도박에 빠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게을러 방일함에 젖는 것이니라. 〈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선생경〉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별역잡아함경〉

▨덕행을 닦는 총명한 사람은 산마루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빛난다.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집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와 같이 하여 재산을 모은 그는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오는 가장이 된다. 그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라. 그중 한 몫은 생활비에 쓰고, 두 몫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몫은 예치해 두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부경전〉

▨어떤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하는 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라.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사제경〉

▨만일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남에게 이바지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니라.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 있음을 스스로 눈떠 욕심을 버려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속에 살아가는 사람중에 최상이니라. 〈복음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분수 넘은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궁핍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탓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니라. 〈잡아함경〉

신행 캘린더

5월31일 (수)

■ **보리수 선원 초심자를 위한 수행**=위파사나 수행센터 보리수선원은 31일 오후7시30분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수행방법을 지도한다. 02)928-2844

6월3일 (토)

■ **명등계 햇차 수확**=하이텔불교동호회 소모임 명등계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위치한 월수제차 차밭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햇차를 수확하러 떠난다. 동참자들이 생잎을 직접 구입해 제다하도록 한다. 0595-882-6247

6월4일 (일)

■ **참나 청소년 종합예술대전**=한국불교청년회, 한국차생활문화원,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5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종합예술대전이 오전10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02)326-0248

■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터사랑은 서울 문화유산 바로 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덕수궁→궁중유물전시관→정동교회→러시아공사관→농업박물관→경희궁 순례에 나선다. 안내는 한국교육연구소 한민호씨가 맡는다. 02)725-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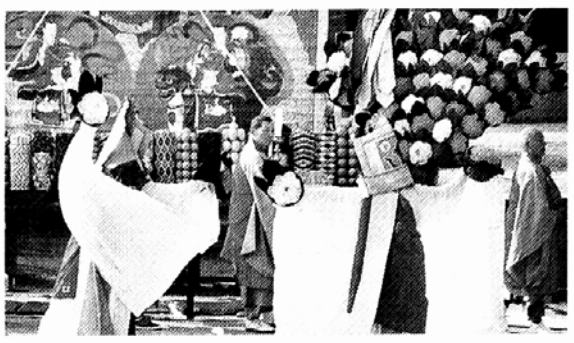
北美 활동 해외포교사 뽑는다

자혜불교회(법주 삼우스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북미지역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해외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한다.

해외포교사 1차 모집은 6월 20일까지이며, 선발된 사람은 자혜불교회 산하 캐나다 선련사 미륵승가대학에서 참선, 불교예절, 의식, 포교방법, 경전, 교리, 역사, 문화, 영어등의 교육을 3년간 받게된다.

지원자는 3년제 불교대학 졸업과 함께 미연방 "성직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포교사, 카운셀러, 불교운동 등을 펼치게 된다.

한편 종교재단법인 자혜불교회는 1967년 삼우스님이 서양인들에게 선을 가르치기 위해 뉴욕 맨하탄에 선련사를 창건한 것이 모체이며, 1972년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자혜불교회 선련사는 미국 시카고와 앤아보,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등 4곳에 포교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17-358-7027.



◇6일 영산재 시연회에는 인간문화재 50호 일응스님과 전수교육 보조자, 이수자,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군불교 총신도회 호국영령 천도대법회**=국군불교총신도회와 군승단은 호국의 달을 맞아 오전10시 호국원광사를 비롯한 전국 120개 사단급 군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02)796-0230

■ **석불선양회 통일기원법회**=석불 선양회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DMZ내 사면불이 모셔진 산중에서 통일기원 및 호국영령 왕생발원법회를 봉행한다. 02)557-0502

6월5일 (월)

■ **철야염불법회**=한국정토학회와 만일염불결사회는 오후5시 청계산 정토사에서 철야염불법회 입재식을 봉행한다. 이날 법문은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보광스님이 설한다. 02)581-3137

6월6일 (화)

■ **망월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7주년법회**=망월사는 단오를 맞아 오전 10시 '부처님 진신사리 7주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국악인 김성녀씨를 비롯 머루와 다래 등 불자 연예인 초청 음악회가 열린다. (0342)743-6612

■ **봉원사 영산재 시연회**=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단체 지정 기념 제12회 영산재가 오전 10시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 특설 도량에서 열린다. 02)392-3007

■ **담양 보리암, 순천 강천사 순례**=여래지 답사회는 담양 추월산 보리암과 순창 강천산 강천사 성지 순례를 떠난다. 02)3445-0202

■ **만일염불결사 및 정토학회 세미나**=한국정토학회와 만일염불결사회는 오전10시 정토사에서 내년10월22일까지 계속되는 만일염불결사 입재식을 갖는다. 또 오후2시에는 정토사 극락전에서 '염불신앙결사의 역사적 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581-3137

법회안내

보현불교대학 법문



암도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7일 대전보현불교대학에서 '보살의 수행과 실천-육바라밀'을 주제로 법문한다. 042)624-6555

'능엄경' 산림대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 스님은 6월8일 오후2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능엄경〉 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산림법회는 6개월에 걸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된다. 0346)527-1951

강진 옴천사 법문



정암 선각종 총무원장 스님은 6월4일 오전10시30분 광주불교능인회 녹야원에서 봉행되는 강진 옴천사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062)224-1080

'수행본기경' 강의



현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임교수 스님은 6월3일 오후3시30분 〈수행본기경〉을 강의한다. 02)765-9602

게시판

알림

▲**태고총림 선암사 경전정대불사**=태고종은 7~9일 매일 오후 1~3시 선암사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경전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02)745-2030

▲**우곡선원 참선교실 개설**=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곡선원은 7월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8시 생활참선 교실을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좌선 수행도 하고 6월11일, 7월8~9일 두차례에 걸친 명산대찰 탐방도 한다. 02)529-5027

▲**자원봉사자 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6월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간병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자 40명에 한하며,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2만원이다. (2)734-0612

▲**발맛사지 교실**=백천사회복지관은 발 맛사지에 관심있는 수강생의 참여를 기다린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12까지. 선착순 20명. 053)811-1347

▲**주부노래교실**=덕유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부노래교실을 연다. 032)325-2161

▲**무료직업훈련**=낙동복지관은 무료직업훈련의 일환으로 한식조리사와 이미용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 051)271-0560

모집

▲**노인보호센터 후원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후원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

▲**영정사진 서비스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 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6월24일까지 수시 접수. 02)2203-3677

▲**복지시민대학 수강생**=부산시사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6월8일 하고, 3개월 과정이다. 051)506-6633

▲**호스피스 수강생**=불교복지보건대학은 제4기 불심호스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으로 말기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물리치료, 재활요법 등의 이론 교육과 병원 실습이 있다. 051)647-6556

▲**휠체어 구입 후원**=용호복지관은 제체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휠체어 구입 후원 및 중고 휠체어 기증을 받는다. 051)628-6737

강좌

▲**불교기본교육**=조계사는 제28기 불교기본교육생을 모집한다. 불교기본교육은 초심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강좌로 불교상식, 부처님 생애, 근본교리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02)720-1390

▲**반야심경 사경**=한국불교예술문화원은 6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제3기 서예, 사군자, 달마 그림, 반야심경 사경 강좌를 연다. 02)2242-0331

▲**법안불교대학 개강**=법안정사는 6월7일 법안불교대학을 오픈한다. 불교대학은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2시에 수업이 있다. 02)653-4888

▲**직장인 교리강좌**=동산반야회는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6월7일 오후7시 동산법당에서 한다. 02)732-1206

▲**선어록·교양취미**=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는 6월1일 3개월 과정의 3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어록강의-달마혈맥론, 〈화엄경〉, 불화그리기, 생활역학강좌, 건강기공, 불교전통꽃꽂이, 요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 교양, 취미, 예술 강좌 및 어린이 유아 강좌 등 총 43개 과목 61개 강좌가 개설된다. 02)703-0108

구인

▲**물리치료사·간호사**=인덕노인복지회관은 물리치료사 1명과 간병인 0명을 구한다. 물리치료사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고, 간병인은 교육수료자에 한한다. 020385-8205

부음

▲목포 해양박물관 강순형 관장의 모친이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시와 칼럼

보덕현호선사 저

마음의 창



값 7,200원

새벽의 향내음 같고
아침이슬 같으며
짙은 안개같은 마음

늘 푸른 자연과 같고
청정수와 같으며
청순한 소녀의 가슴같은 마음

어둠속의 달님과 같고
새벽을 여는 샛별같으며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마음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으며
바다와 같은 마음

- 본문 중에서 -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 탈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품질 보증 불자님의 안전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 정숙

"갖는 도리를 좇지 말고 주는 도리를 좇아라"
- 대행큰스님 법어中에서 -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중고차 전차종 즉시 고가매입

※ 신용카드 할부
· 가맹점(6~18개월)
·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 전차종 매매/위탁/알선함
· 당일 현금 지급

■ 연 락 처
· 광주영업소 016)622-9082(김정숙) 011)601-0621(박동헌) Fax. 062)371-7544
· 해남영업소 017)611-6670(박동권) Fax. 0634)536-8845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이웃사랑엔 종교벽 없어요"

가톨릭 성직자와 스님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보시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 고성 베네딕트수도원(원장 여해동(살레시오) 수사)이 지난 3일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자비신행회에 독거노인 도시락 공양에 써달라며, 금식기도로 모은 성금 500만원을 전달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베네딕트 수도원 대원사에 500만원 기탁

"독거노인 급식에 써달라"…종교화합 본보기

여해동 수사와 이연학(요나) 수사가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대원사 현장스님에게 전달한 것은 5년전 로마 그레고리안대학의 에우지니오 교수신부와 이해인 수녀 등과 함께 대원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문화와 종교의 벽을 넘나드는 대화를 나눈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번 성금전달은 그때부터 이어온 종교화합 분위기를 한차원 승화시켜 '이웃 사랑'에 종교의 구별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든 것.

수사들은 대원사 신도들이 결성한 봉사단체인 자비신행회가 독거노인 110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고, 병원·자택 등에서 간병·호스피스 봉사를 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꽃'이란 소식지를 통해 보고서 곧바로 수도원회의를 거쳐 기도성금을 모았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아무런 주저 없이 종교를 뛰어넘어 전달된 것이다.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수사님들의 사랑의 정신을 통해 종교의 사명이 고통받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자비봉사행을 통해 호남지역의 불교 활성화는 물론 종교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광주 시내 2층 건물에 시민선방과 함께 법당, 교육장, 사무실 등을 갖추고 사회봉사에 나선 자비신행회는 160명의 회원들이 전남대병원 등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 3회 고아원 원생 돌보기, 매달 1회 양로원·소년원 위문, 호스피스교육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비신행회 김명실 총무는 "호남지역에는 불교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전무한만큼 타종교 봉사단체와 연대해 모범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살행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불자들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베네딕트수도원 살레시오 원장 수사(오른쪽)와 이연학 수사가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과 자리를 함께 했다.

"새천년 평화시대 이루자"

강원불교련 4일 기원제

영산재·산불이재민 돕기

강원도와 강원도불교연합회는 단오절을 하루 앞둔 6월4일 정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새천년 자유·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한 기원제'를 개최한다.

강원도가 2000년을 맞아 추진하는 '밀레니엄 르네상스' 18개 상징사업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로 사물놀이 및 도립예술단 공연과 괘불이운식, 1부 기원제, 2부 영산재 및 방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넙치 방생과 함께 불자들의 '환경운동 동참선언문' 채택, 강원도 산불피해성금 모금 등 인간방생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3·4교구본사 신흥사·월정사 신도들의 산불피해성금 모으기,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괘불이운 및 영산재 시연, 천태종 연합합창단(300명)의 찬불가 공연 등 도내 1만여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하는 이번 행사는 자비·보시를 근간으로 자유·공존·상생의 삶을 지향하는 참다운 방생의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은 "닫힌 마음을 열고 더불어 착한 삶을 살라는 방생의 참뜻인 '작선(作善)'을 생명존중과 인간화,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밀레니엄 르네상스'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춘천=김재경 기자

익산 미륵사지 역사·문화촌 세운다

72만㎡에 미륵사·주거지 복원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주변에 대규모 역사·문화촌이 조성될 전망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미륵사지 주변 경관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백제말 고도(古都)인 익산의 문화적 전통을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72만여㎡ 규모의 역사문화촌을 미륵사지 앞쪽에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원광대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수립한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촌은 역사·문화, 미륵신앙, 교육 및 공연, 동서화합, 민속, 세계종교, 전통음식 및 상가, 전통공예 제작 및 판매, 숙박, 공공편익 등의 주제에 따라 10개 공간으로 나뉘어 균형있게 개발될 예정이다.

이중 역사·문화공간에는 미륵사와 왕궁평성의 축소 재현, 마한·백제시대의 주거지의 복원 및 삼국시대 탑과 왕릉이 비교 전시된다.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용지매입비 67억여원, 건축물 보상비 43억여원, 공사비 75억여원 등 모두 2백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방안, 공사착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산불이재민 돕기 1천3백만원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불우학생에도 6백50만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회장 학현스님) 회원 1백30여명과 재학생·불교신도 4백여명은 19일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탁발에 나서 모은 1천3백만원을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에 써달라고 중앙일보에 기탁했다. 이들은 또 불우학우돕기에 써달라며 탁발로 모은 6백50만원을 대학측에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대구 BBS사장기 축구대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불심을 지향하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구불교방송 사장기 축구대회가 21일부터 28일까지 능인·심인등 종립중고등학교〈사진〉와 두류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참가팀은 지난해 우승팀인 대구·경북새연등회를 비롯 운불련 은해사 언론인불자회등 총17개팀.



법타스님은 "건전한 스포츠를 통하여 포교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승가와 재가가 함께 어울어지는 전법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열린종교 시민대학 개강

열린종교시민대학(학장 심산스님)이 1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2층 화엄회관에서 개강식을 가졌다.〈사진〉



통도사 주지 신허스님, 송영웅 풀빛교회 목사등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와 수강생 140명이 참석한 이날 개강식에서 서울대 정진홍교수(종교학)는 '새천년과 종교의식'을 주제로 특강했다.

열린종교시민대학은 6개월간 5대 종교의 본질과 역할, 종교문화, 신행생활 등을 강의한다.

학장 심산스님은 "서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진지한 고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미얀마선원 서울서 개원

남방불교 포교·인권보호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불자들의 수행공간이 될 미얀마선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등에 문을 열었다.

150명의 미얀마 출신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보스님, 아일랜드 출신 아디사스님, 대만출신 유과스님, 전재성 빨리성전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원법회에서 미얀마 출신 산디마스님은 "미얀마와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권 노동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안식처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얀마선원은 40평 규모의 한옥을 임차한 것. 국내에서 외국인 스님이 사찰을 개원한 경우는 일본과 대만, 스리랑카에 이어 네 번째다.

미얀마선원은 앞으로 동남아 노동자들의 한글교육, 내국인들의 불교영어 강독과 함께 초기불교경전 보급, 위빠사나수행법 지도, 월간회보를 통한 세계불교 소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02)363-5902

김재경 기자



◇21일 미얀마선원 개원법회에서 법문하는 산디마스님(왼쪽에서 세 번째).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청소년 모악축제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도영)는 28일 경내 잔디밭에서 김제시내 중증 장애인 70명을 초청, 위문법회를 가졌다. 또 6월4일 중·고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열고 백일장, 사생대회, 힘합경연대회를 펼친다.

태고종

168명에 승적 발급

13~1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지난해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제23기 수계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에 참가한 168명(사미 129명, 사미니 39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예불 및 108배 참회하루 17시간 강의와 울력, 참선,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충담스님 2주기 추모재

지난 98년 소신열반한 이충담 대종사 2주기 추모재가 6월5일 오후 1시 호명산 감로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제막하게 될 사리탑비는 종정 덕암스님이 비명을 짓고 동호 스님이 글을 새겼으며 총 높이 340cm, 비신 높이 210cm, 거북이모양의 대석 60cm, 용머리 모양의 옥개석 높이 70cm이다.

천태종

대전 삼문사 상량식

대전 삼문사(주지 세운)는 6월 3일 오전 11시 삼문사 상량식을 갖는다. 상량식에는 도용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42)221-3367

진각종

포교활성화 간담회

포교활성화와 종단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22일 대구 진각문화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 휴명 종회의장, 회정 총무부장 등 종단 스승들과 총금강회 6개 지부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총금강회 회장단은 △부처님오신날 등 종단행사에 대한 기획참여 △심인당간의 정보교류 △스승들의 다양한 법문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 등 신교도들이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심인당 사이버카페 개설

부산 동래 명륜심인당과 대구 동구 시복심인당이 각각 사이버카페를 개설했다. 자료실, 대화방, 초대하기 등 다양한 코너를 갖추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명륜심인당의 주소는 http://cafe.daum.net/youthbuddhist, 시복심인당은 http://cafe.daum.net/sibok 이다.

대한법화종

새 총무원장 법홍스님



새 총무원장에 법홍스님(대구 보은사 주지, 사진), 포교원장에 혜도스님(서울 대법사 주지)이 각각 선출됐다. 법홍스님은 1946년 경북 군위 생으로 지난 77년 대구 보은사에서 홍성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취임식은 6월13일 서울 세종홀에서 열리는 법화종 창종 54주년 기념법회 때 함께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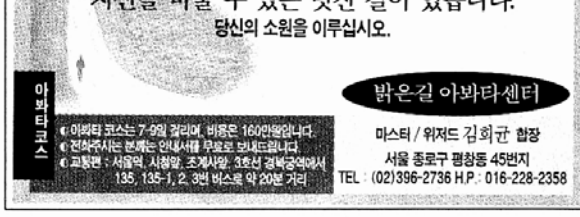
조동종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총무원장 학봉스님은 11일 서울 원효사 대웅전에서 관내 불우이웃 20명에게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강원도 산불이재민돕기 성금 50만원을 KBS-TV 방송국에 기탁하였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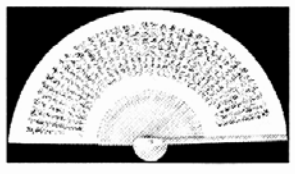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 아바타 코스는 7-9일 정리에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본계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관세음보살님께 전수받은
파 엽 체

수십년간 작품을 모시고 영험을 본 기적!!

나의 작품을 모시고 재수가 있고 취직이 되고 입시등 시험 합격 가정이 화합하고 투쟁시비가 없고 부부간이나 가족이 마음이 안정해짐





수십년간 많은 영험과 기적은 수련한 나의 독경 위신의 기력인것이다.

나의 친필 작품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영험과 기적은 모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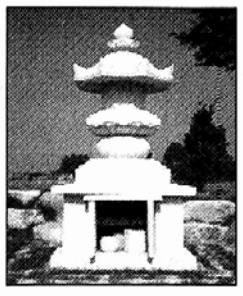
▶입금계좌
농협 801814-51-031377
예금주: 김 춘 길

선전기간중 보급가
· 합죽반야선 친필 13만원
· 법화경 수탕품 친필 20만원 10폭
· 佛字나 기타 액자 친필 3만원

보급처 천 홍 사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연락처 : 0591) 746-7350 017) 552-7350

영탑공급원(전국) 모집

▶묘지의 혁신
·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합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20여기 봉안으로 문중, 종중, 탑, 선산, 정원 등에 설치
· 조상 대대로 봉안하여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화합이 잘됩니다.
· 국내외 사찰경내에 신도의 조상을 함께 모시므로 그 자손이 대대로 신도가 됩니다.
· 전국 사찰경내 신도영가 영탑설치 환영.
· 영탑사업에 동참하실 주주를 모십니다.
· 벤처기업으로(특허) 국내외에 사업확장.
· 벤처기업 실무유경험자 0명 모집합니다.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우)330-820
▶ TEL : 0417)584-6674~6 FAX 0417)584-2335
011)438-0149
▶ home-page : WWW.YRP.CO.KR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사찰 내 암반굴착 공사 전문

당사는 암반굴착 전문 기술 업체로 사찰내의 석굴불사 축조 및 기타 불사에서 암반제거 작업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축조작업과 같은 터널작업에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성심껏 작업하겠습니다.

▶ 시공방법
① 다르다, HRS 등에 의한 무진동 굴착 공법
② 플라즈마, 제어발파 등에 의한 미진동 굴착 공법… 그 외 여러 가지 공법 중 주변 환경과 작업여건에 따라 공인기술 자격을 보유한 본사의 기술진들이 적절한 공법을 적용, 원하시는 대로 실현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02)719-5371/2
02)719-7614(FAX)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 1511호

"현재 상주시 연수암 내 석굴 불사 축조 작업 중"

(주) 세헌 ENG 기술사사무소

생전·현재의 모습 100% 재현

밀 납

■ 사진 1장으로 영정을 대신할 생전의 모습을 100% 재현합니다.
■ 밀납은 살아계신 고승·종정·은사스님을 재현 현재의 모습으로 가까이서 모실수 있읍니다.
■ 일반회사 창업주, 학교 설립자 이사장, 역 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조성해 드립니다.
■ 크기는 실제 모습을 기준합니다.
(앉은모습 서있는 모습)
■ 밀납은 동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구적 재료 사용)

한국불교 미술 밀납 연구원
원장 법 인 합장

▶ 전시장(작업실) 천안시 오룡동 56-5
▶ 대 표 전 화 0417)565-6977
▶ 긴 급 016)565-6977

장기기증 캠페인 대학생들 '호응'

생명나눔회, 14개 대학서 545명 서약

24일 오후 서울여자간호전문대.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교정 한 켠에 마련된 장기기증 캠페인 서명대에 학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죽으면 없어질 몸,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좋잖아요." 생전 골수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에 서약한 한진주(간호과 3년) 학생은 간단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소신은 뚜렷했다. 친구인 민경은 학생은 화장유언에 서약했고, 한 무리의 학생들은 서명대 앞을 지나치다 불교학생회 친구들에게 캠페인 취지를 듣고는 주저없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학교 불교학생회 회장 강민정 학생(간호과 2년)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교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불교계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화장유언도 3천229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14개 대학에서 벌인 '생명나눔캠페인'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도움으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대학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확산은 물론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캠페인을 벌인 대학은 동국대를 비롯해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한양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방송대 경원대 외국어대 시립대 세종대 상명대 서울여자간호전문대 등이며, 각막 221명, 장기 205명, 시신 97명, 신장 4명, 골수 18명 등 장기기증만도 545명에, 화장유언서약은 3,229명에 달했고 212명이 헌혈증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중 한양대는 모두 120여명이 각막, 장기, 시신, 골수 등을 기증하는 등 가장 높은 장기기증률을 보였으며, 서울산업대에서는 장기기증 65명, 화장서약 517명 등 모두 60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일반불자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캠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전에 이뤄지는 신장과 골수기증자도 다수 나옴으로써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특히 서울산업대에서는 '다물'이라는 기독교 학생 중심의 종교연구회 동아리가 캠페인 홍보를 맡아 적극 나섰고, 외국어대에서는 불자교수인 송위지 교수가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또 서울대에서는 불교총학생회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어 관심을 모으는 등 갖가지 화제도 만발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장 석민철 학생(농경제사회학과 4년)은 "이번 캠페인은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참여가 부족하다는 일반 학생들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고, 서울산업대 불교학생회장 김주경 학생(금속공예 3년)은 "불자로서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작한 대학가 캠페인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자 가을학기에도 대학가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실무를 맡았던 박찬주 간사는 "가을학기 캠페인에서는 이번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생각"이라며 "대학가 캠페인을 계기로 장기기증과 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서울여자간호전문대 캠페인에서는 '예비 간호사'들이 적극 동참해 '성명사랑'의 뜻을 나누었다.

녹슬고 갈라진 갑사 철제당간 포철서 보존처리

포항제철이 첨단 철 기술을 활용해 계룡산 갑사의 철제 당간(보물 제56호)을 보존처리하기로 했다. 통일신라 중기에 제작된 길이 15m의 갑사 당간은 현존하는 2개의 철제 당간 중 하나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현재 심하게 녹슬고 또 당간의 이음매가 갈리지는 등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갑사는 포철에 조사 및 보존을 의뢰했고, 포철은 즉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용접연구팀과 철골구조팀을 현지에 보내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당간은 부식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 보전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포철은 연말까지 3천 5백만 원의 연구비를 들여 당간의 재질과 부식 진행속도 등을 조사해 보전 방법을 찾아낼 방침을 세웠다. 또 문화재청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훼손 부분에 대한 복원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오종욱 기자

나눔의집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미국에 현지법인을 둔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내기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대표원고로 나선다. 혜진스님은 "할머니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목적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압박해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장애인들 육사나들이

우리는 선우는 1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제7회 장애인나들이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주몽재활원생과 암사재활원생 등 120명의 장애인들은 육군생도와 사병, 우리는선우 가족 등 310명에 이르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육사 교정을 산책하고 페이스페인팅, 풍선나르기, 박터트리기, 디스코 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도필선 기자

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 역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일, 20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김민하 수석부의장, 송석구 종교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하동 청소년수련원 수탁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이 경남 하동군이 위탁공고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을 수탁, 20일 약정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수탁받은 청소년수련원은 총 2만여평의 부지에 정신교육관, 야영장, 운동장, 수련의 숲,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관 1백명, 야영장 1천명 등 모두 1천1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명우 기자

8사단 신교대 법당 낙성

제 8보병 사단 신교대 법당 관음사(주지법사 김희균) 낙성법회가 지난 19일 봉선사 주지 밑운스님을 비롯 법당건립을 도운 심우회, 대전불자회 등과 부대간부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필선 기자

"수행환경 훼손 보상하라"

원각사 - 구미시 - 주택공사 '다른 목소리'

전통사찰인 원각사(주지 대혜,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앞 구미선산 주공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사찰측과 주택공사, 구미시간의 분쟁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각사와 구미 주공아파트 주차장이 바로 붙어있어 수행환경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원각사는 지난3일 "주공아파트 104동 12층의 확보거리가 16m가 안되는 데다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사찰 우측의 365-14번지 구거(溝渠)를 용도폐기하고 주공택지에 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각사측에 따르면 오배수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거를 택지에 편입함으로써 뒷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의 출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김방수)는 "국유지인 구거를 아파트건립에 따라 무상 불하받은 후 다시 일정공간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시공업체인 영남건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동원해 구거를 파헤치고 옹벽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원각사는 아파트 건립과 관련, 2년여 동안 소음과 먼지공해에 시달리고 종교행사 진행에 방해를 받아왔으며 요사채에 균열이 발생하고 민원해결 문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피해를 입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원각사측은 이래저래 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원각사는 6월1일 기자회견 및 신도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미=이윤호 기자

"남북정상회담 성사 기원"

선암사 6월7~9일 경판 정대불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평화통일 기원 선암사 장경각 경판정대불사를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승주 선암사에서 봉행한다. 이번 불사는 6월 1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이를 토대로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는 기원법회로 열린다.

첫날인 6월 7일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교구, 8일에는 대전·충남·충북·대구·부산·경북교구, 9일에는 광주·전남·전북·울산·경남교구 등 교구별로 동참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천수범자(千手梵字) 다라니경 탁본이 주어진다.

선암사에는 현재 모두 26종 835판의 목판이 장경각에 소장돼 있다. 이 경판들은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343판, 묘법연화경 259판, 석가여래행적송 62판, 침굉집 50판, 상월대사 시집 20판, 불설염불관문 1판, 선암사 심진록 2판, 대수구다라니 2판 등으로 대부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 사이에 제작된 보물급 문화재이다.

정대불사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담아 경관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法界圖)를 따라 도량을 도는 의식이다. 또 장경각에 모셔진 경판이 습기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불자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볕이 좋은 날을 골라 햇빛을 보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경숙 기자

만일염불결사 6월6일 입제

성남 정토사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는 운동의 일환으로 6월 6일부터 만일염불결사를 시작한다.

만일염불결사는 만일 즉 27년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염불수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입제식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정토사의 만일염불결사는 2027년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1천여 명의 염불 수행자들이 참여할 이번 결사에는 청화(곡성 성륜사 조실) 스님이 증명법사로, 인환(전 동국대 교수) 스님, 무진장(전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서돈각(불교진흥원 이사장) 박사,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 잦은 분규로 불자들의 신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올바른 신행관을 세우기 위해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 방편으로 염불결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0342)723-9797 오종욱 기자

목탁소리

문화포교의 힘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문화의 달이자, 가정의 달이며, 부처님이 오신 달이기도 했던 5월이 간다. 올해 5월은 여느해 보다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펼쳐졌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 진감선사를 기리는 두편의 공연은 불교문화의 향취를 만끽하게 했다.

지난 1일과 2일 국립극장에서 선보인 음악극 '오! 진감'은 우리나라에 차와 범패를 처음 들여와 보급 발전시킨 진감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창작음악극이라는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빼어난 연기와 무용, 탄탄한 극적 구성과 치밀한 무대장치, 거기에 극을 발쳐주는 창작불교음악이 한데 조화를 이뤄 근래 보기 드문 수준 있는 불교예술을 일궈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로 환호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며 그 어느 큰스님 법회나 심도있는 학술대회보다 더 큰 포교의 힘이 바로 불교문화에 있음을 실감했다.

국립국악원도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우리 전통불교예술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불교예술의 미, 천년회상 천년상생'으로 풀어냈다. 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인간문화재 이매방, 이춘희씨 등 대가들이 펼쳐낸 이 공연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불교예술이 갖는 생명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다만 이같은 공연들이 불교계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불교를 전하는 방법이 바로 문화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도두 다 알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교계도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불교예술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며, 불교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1세기 불교의 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문화의 달 5월을 보내며 다시한번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절감한다.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엄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덕화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을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낮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틀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의법 료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주부신행담

천식과 불법인연 ㉮



그림 · 이준석

백팔 참회와 경을 외는 기도정진 끝에 그렇게도 괴롭히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어느날 한 사찰을 찾아가 큰스님께 조상들의 천도재를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천도재를 지내려면 일주일동안 정성들여 기도를 올린 뒤에 해야 한다고 하시기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더불어 집에서도 내가 할 일은 기도라는 생각에 천식약을 먹으면서 매일 백팔 참회와 경을 외는 기도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본 딸아이는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며 백팔배와 경을 읽는 것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했다. 딸아이가 그렇게 기도정진을 열심히 한 이유는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이처럼 지극정성인 딸아이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천식이 서서히 낫기 시작하면서 불교방송에서 주최하는 인도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만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인도. 가슴 설렘을 안고 7박8일 간의 인도 성지순례를 떠났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델리의 녹야원이었다. 녹야원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설하신 곳으로 사르나트에 있는데, 사르나트에서도 맨 먼저 들른 곳이 차우칸디 스투파였다. 차우칸디 스투파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첫 설법 대상을 삼으신 5인의 수행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어 방문한 사르나트박물관은 AD 1세기경 쿠샨왕조대에 제작된 마투라 불상에서부터 3~5세기에 이르는 굽타왕조대의 불상 및 8세기경의 밀교의 영향을 받은 후기의 불상들이 시대별로 구분 소장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도에 와보고 싶어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엔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보드가야를 방문했다. 보드가야에 도착한 날이 성도절이라 기념 법회가 마하보디 사원 대보리사에서 거행됐었는데, 대보리사의 담장 곁에 자라고 있는 약 24m의 대보리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싯타르타의 탄생과 함께 이 자리에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 심어져 있는 보리수는 원래 보리수의 지손 격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리수나무 옆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금강좌가 있었고, 또한 좌측에는 이곳 금강좌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서 첫 발을 내디딘 곳에 새겨졌다는 부처님의 두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놓여져 있었다.

영축산 칠엽굴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칠엽굴은 부처님 입멸 이후 6개월 후에 대가섭 존자와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과 율을 모은 최초의 경전 결집장소로, 평생 배워도 부처님 말씀을 다 듣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인도성지순례는 나약해진 마음에 의지처로만 삼아왔던 불교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보고 들은 것 모두가 부처님 법음임을 지금도 생생히 느낄 수 있으니, 그런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해 준 부처님 가피에 감사할 따름이다.

나에게는 남매가 있다. 어려서 아무 탈없이 잘 자라준 두 남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활전선에 뛰어든 주부라면 모두들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일을 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린 남매를 잘 돌봐줄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두 남매는 아무 문제없이 성장하여 대학도 마쳤다. 아들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딸아이는 다른 직장을 거쳐서 불교텔레비전에 재직하다가 결혼을 하였다. 아이들은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런 아이들이 내게는 또다른 부처님이나 다름없다.

아기를 잉태하는 새내기 엄마들의 태교가 아기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절실하게 느꼈다. 딸아이가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명산 대찰을 두루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인지 아기가 배어나면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알아보는 것 같아 나를 여러 번 당황하게 했다. 제멋대로 움직이며 놀다가도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면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듣곤 했다. 제 엄마를 보고 손자녀석은 '엄마 응 응 응' 하며 달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지나가시는 스님을 보고는 합장인사를 하곤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간혹 TV에서 삭발한 연예인만 나와도 스님인줄 알고 합장 인사를 하니 '참으로 인연이라는 것이 이토록 뿌리깊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는 모기향만 피워 놓아도 합장하고 절을 해서 어른들을 웃긴다. 이렇게 하는 행을 따라하는 작은 녀석의 모습은 더욱더 천진하고 귀엽다. 자식들뿐 아니라 손자들도 내게는 또다른 부처님이다. 맑고 순진무구한 모습이 해탈한 부처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쯤이면 '술은 입으로 먹고 사람은 눈으로 든다'는 내용의, 오래 전에 읽었던 시가 생각나곤 한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 녀석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솔선 수범하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법만을 믿고 따르는 녀석들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난다. 얼마 전에는 손녀아이가 태어났다. 이 어린 손녀는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하면서도 그 손녀 역시 부처님 법만을 믿고 따르는 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촛불을 켜 놓고 향 한 자루 사르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 몸받기 어렵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불법을 잘 모르던 때에는 한두 번 다른 종교에 관심도 가져보았다. 그러나 불교방송에서 교리(敎理)를 조금 배우고 난 후부터는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할 길임을 알게 됐다.

새로운 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다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고 새로운 내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가치 있는 삶,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보며 부처님의 위대하신 위신력만을 언제까지나 믿고 따라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사실은 행여 병이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자신을 수양하다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항상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불·법·승 삼보가 내 곁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결식 노인을 위하여 점심공양을 보시하는 연꽃마을 마포 재가노인복지관에서 여러 보살님들과 함께 한 달에 몇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 투병생활에 시달리는 어린 새싹들에게 쓰여지는 거즈를 접는 일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다. 비록 크지 않은 봉사지만 남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니 내 스스로가 밝아지고 밝아짐을 느낄 수 있어 환희심이 절로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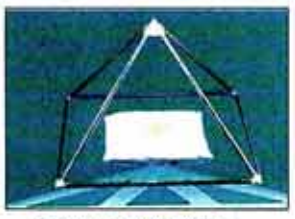
그리고 마음 속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남편이다.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야말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이러한 고마운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신 부처님이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불자님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린다.

이종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새천년, 우리 몸에 부족한 氣를 충전시켜주십시오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장이 깔끔하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명윤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적혈암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A : ₩200,000 B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21개 순금도금)
₩80,000
<set 220,000>



· 수정탐사추 : ₩40,000 · L-로드 : ₩20,000 · 무릎밴드 : ₩18,000 · 氣파스 : ₩10,000 · 수정육각히란야(식수용) : ₩35,000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035728 (예금주 : 김 진순)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①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
②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
③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 / 값 3,800원 /
⑤유마경 박음길 역 / 값 3,500원 /
작은경전 시리즈 ④묘법연화경 ⑥능엄경 ⑦부모은중경 · 지장경 ⑧금강경 ⑨백유경 ⑩대반열반경 ⑪숫타니파타 ⑫본생경 ⑬미륵경전 ⑭과거현재인과경 ⑮밀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낮선 포교당에서 알아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간

원옥스님의 포교당일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란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생상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이름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씨 습관과 기쁨……,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일상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 / 값 7,500원

원옥스님은 21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과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남 함양 안의 포교당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